왕태자의 호위기사 일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휴식을 가지게 된 클로드는 오늘따라 이른 아침임에도 일찍 일어나 식당에 와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엇을 잘못 먹기라도 한 건지, 아님 단순한 변덕인지, 지금쯤이면 자고 있을 시간임이 분명한데 그 멀쩡한 모습을 보니 클로드의 눈은 의외성 담아내며 눈썹을 꿈틀거렸다.

“네가 이런 시간에 일어나다니 별일이구나. 잠을 제대로 못 잔건 아닐 테고.”

“아, 형님.”

먼저 식사를 기다리던 루드비카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하자, 클로드는 대충 손짓으로 말리며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하녀가 빈 유리잔에 물을 따라주자, 클로드는 차가운 물 한잔을 마시며 제 동생의 모습을 훑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루드비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오늘 뿐만이 아니었다. 매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피아노만 주구장창 치질 않나 아니면 시답지 않은 정원 구경만 한다거나 또 아니면 아예 저택 바깥으로 나가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오는 것이 클로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제 동생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루드비카는 생일이 지난날부터 평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무엇에 그리 열중하는지 어떨 땐 두꺼운 책을 하루 종일 끼고 있거나, 또 아니면 방에 틀어박혀 악보를 쓴다거나, 또 어떨 땐 여태까지 모아둔 옷들을 정리한다거나. 분명, 할 일이 없는 건 똑같음에도 가끔씩 보이는 의외의 모습에 클로드는 관심이 가지 않아도 절로 눈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입꼬리까지 귀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굉장히 질려 클로드는 오늘도 어김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루드비카를 향해 주의를 줬다.

“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지만 자제하도록 해. 너의 그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셨다간 더 성을 내실지도 모르니까.”

“그런가요? 하지만 각하께서 오실 때까지,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흥얼거리는 것쯤은 상관없지 않나요?”

역시 그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위협조차 되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며 루드비카는 말끔하게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했다간 귀찮은 입씨름을 할 것 같아 클로드는 먼저 입을 꾹 다물고는 하녀가 준비해준 식사를 서둘러 시작했다.

이른 아침의 식사시간이 끝나고 저택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클로드 덕분에 루드비카는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야 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라고 해봤자 저택에 머물러 빈둥대거나 헤르세인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지만, 요즘 들어 루드비카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이토록 즐거울 수가 없었다.

그녀만 생각하자면 잠을 자는 것조차 부족할 만큼 루드비카는 하루 종일 헤르세인만을 떠올렸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 부족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일찍 그녀가 있는 궁전으로 향하고픈 마음이 가득했다. 마음 같아선 아예 그녀를 제 침실에 가둬두고 하루 종일 그녀의 곁에만 머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욕심에 앞선 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러다 그녀가 놀라기라도 하면 어찌한단 말인가.

침실에 돌아와 문득 거울 앞에선 루드비카는 자신의 양쪽 귀에 걸려 있는 귀걸이에 시선을 주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준 선물이자 잊을 수 없는 날을 만들어준 그녀의 선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자, 어쩐지 그녀는 무언가 망설이는 표정을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망설이는 모습에 혹시, 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다행이도 제게 내밀어진 작은 케이스 상자를 보자, 루드비카는 완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다.

"이건...?"

"서, 선물이야.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한테 다시 줘도 돼."

"아가씨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요?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다. 다름 아닌 그녀가 제게 주는 첫 선물이라니. 여태까지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 그녀가 제게 준 눈앞의 선물이 미치도록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루드비카는 그날 거기서, 그녀가 보는 바로 앞에서 케이스 상자를 열어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준 선물은 다름 아닌, 귀걸이와 커프스링크. 붉은색의 큐빅과 자수정으로 조합되어 만들어진 귀걸이의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은은히 돋보이는 무늬가 루드비카의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만들었으며, 커프스링크는 노란빛의 큐빅으로 만들어진 단순하면서도 흔한 커프스링크였지만 이미 그녀에게 선물 받은 그 순간부터 루드비카는 어떤 말을 전해야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 했어… 내 기준으론 제법 비싸게 주고 산 귀걸이지만, 당신한테는 거의 값싼 가격의 귀걸이일지도 모르니까. 미안, 이것보다 더 당신과 어울리는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그녀는 무언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루드비카에게 있어 선물은 값싸거나 비싼 것이 중요치 않았다. 그 선물에 얼마나 상대방을 향한 의미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와 그것을 전하는 마음이었다. 거기다 이렇게까지 선물을 준비했다면 필시, 저 혼자서 광장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자신을 생각하며 이 선물을 골랐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그녀 혼자 광장 밖으로 돌아다닌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안본 사이 어디 다치기라도 하지 않았을까하는 걱정과 괜히 장사치들에게 덤터기를 쓰여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 않았을까하는 미안함. 루드비카는 고개를 저으며 그 어떤 선물보다 그녀의 선물이 가장 값짐을 알려주고자 했다.

"알고 있나요? 여태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아가씨가 제게 준 이 선물이 제게 있어서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액수를 떠나, 저는 아가씨가 저를 위해 고심이 생각해주고 이걸 골라준 아가씨의 마음이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아가씨, 저는 지금 최고로 기뻐요."

"…정말로?"

"네, 진심으로. 그럼 아가씨, 지금 제 귀에 이 귀걸이를 걸어 주세요. 아가씨의 손으로 직접 걸어준다면 더 기쁠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심장이 아직까지 그 여운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미세하게 떨리던 그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귓불을 잡아 귀걸이를 걸어주던 손길과 손끝.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지 그녀의 손길이 귓불에 스쳤을 뿐인데 그토록 불에 대인 것 마냥 뜨겁게 느껴지는 처음이었다. 화상을 입기라도 한 것처럼 그 뜨거움의 열기가 아직도 귀걸이를 통해 느껴져 루드비카는 거울 속에 비치는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분명 손끝에서는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느껴지는데 귓불을 통해 이어진 귀걸이의 사이가 미열처럼 뜨겁게 느껴진다면 착각일까.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시체가 되어 유골이 된다하더라도 루드비카는 이 귀걸이를 평생 빼고 싶지 않았다.

“…내 사람, 나의 연인, 그리고 이생에 하나 뿐인 나의 꽃.”

만약이란 건 없지만, 아주 만약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전처럼 깊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 바보 같게도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이기에, 제 자신이 단숨에 빠진, 그리고 일생의 단 한번뿐인 유일한 사랑이기에 루드비카에겐 오직 헤르세인, 그녀 단 한명 뿐이었다.

거울을 지나쳐 루드비카는 옷들이 잔뜩 나열되어 있는 자신의 드레스 룸을 빤히 쳐다보았다. 벌서 몇 번이고 정리했음에도 아직까지 루드비카의 눈에는 화려한 옷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저 옷 한 벌만 해도 얼마짜리던가. 여태까지 자신이 이런 화려한 옷들을 얼마나 줄기차게 입고 다녔는지 그 과거들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리는 동시에 이제는 지우고 싶은 과거이기도 했다.

화려했던 제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자신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화려함의 자신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남자로서,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임을 떠나 ‘루드비카’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앞에 서고 싶었다.

루드비카는 화려함이 가득한 옷들을 죄다 무시하고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색이 어두운 옷을 꺼내들었다. 이제 그녀와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럼에도 너무 무난한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최대한 늦지 않기 위해 빠른 눈으로 갈아입을 옷들을 쏙쏙 골라낸 루드비카는 그 옷가지들을 가지고 드레스 룸에서 나와, 며칠 전 부터 행동하던 그대로 혼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매번 하녀에게 맡기던 그녀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입는 건 루드비카의 욕심이자 헤르세인을 위한 것도 있었다. 제 아무리 하녀가 자신에게 아무감정이 없다 해도, 어찌됐든 그녀들은 다른 성별의 여인이며 타인의 손이 아니던가.

이제 자신의 몸은 온전히 헤르세인, 그녀의 것이기에 루드비카는 타인의 손길에 제 몸을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로 인해 그녀가 질투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기쁘겠지만, 괜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아주 가끔씩 기분이 내킬 때면 혼자 옷을 입고는 했지만, 평소에는 거의 하녀들에게 맡기는 셈이었기 때문에 옷을 입는 루드비카의 손은 약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제법 손이 익숙해졌는지 갈아입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시 거울 앞에 선 채로 마지막 옷매무새를 다듬던 루드비카는 귀에 걸려있는 보라빛의 귀걸이에 시선을 주는 것을 끝으로 침실 밖을 나섰다.

“이게 ‘도’고 이거는 ‘레’ 그리고 이거는 ‘미’라는 거야?”

“네, 피아노 뿐 만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기 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이름을 알아야 그것을 이해하고 악보를 볼 줄 알게 되면서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연회장에서 악사들이 연주하는 걸보면 그냥 막 연주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외우고 연습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거였구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알려준 음악의 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워낙 루드비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차근차근히 배우고자 제일먼저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분명 그 의도는 좋게 시작됐지만 헤르세인은 마치 누군가 들이닥치지 않을까하는 눈치를 하며 책과 문 사이에서 시선을 오고가야 했다.

“헤세, 그렇게 걱정 되요?”

“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누구 보다 잘 알면서!”

헤르세인은 혹시라도 바깥에서 누군가 듣지 않을까 하는 경계로 작게 소리치며 더욱 등을 굽혀 어색히 앉아야만 했다. 어쩌다 현재의 이 꼴이 났는지 제대로 된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마치 물 흐르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루드비카의 무릎 사이에 앉게 된 헤르세인은 어떻게 하면 이 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산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계산을 방해하기 위함인지 원망스럽게도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이며 등을 어색히 굽히고 있음에도 여유로울 정도로 바짝 몸을 붙이는 루드비카의 대담한 행동에 헤르세인은 이젠, 문 쪽에 신경을 둘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을 하녀나 시녀에게라도 들킨다면 그야말로 큰일 날 사태가 아니던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곳은 자신의 식사를 빼면 접근조차 하지 않는 하녀들과 시녀들의 덕택에 조금이나마 안심은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완전한 불안은 버릴 수가 없어,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더욱 몸을 바짝 붙을수록 이제는 문 쪽에만 시선을 집중해야 했다.

“많이 걱정되나요?”

“당연하지! 하녀나 시녀들이 이 모습을 봤다간 누구보다 큰일 날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의 사랑을 받는 건 즐겁고 행복했으나, 혹시라도 이 모습을 들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지워낼 수 없었다. 결국 저 하나 때문에 피해를 가장 입게 되는 건, 루드비카 한명이니까. 하지만 그 불안감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게 만들 생각인지 루드비카는 그런 헤르세인의 허리를 더욱 감싸 안아 아이처럼 중얼 걸렸다.

“헤세가 제 걱정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다니? 왜?”

“그야, 이렇게 제 품에서 껴안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 누군가 문을 열고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눈처럼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와 헤르세인은 그저 두 손에 힘을 주는 게 고작이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

“헤세.”

“…응.”

헤르세인은 그가 정중히 왕녀전하라 불러줬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했는지 바로 애칭을 부르는 루드비카의 나른한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살짝 들어 그에 응하는 것처럼 조용히 반응했다. 그 모습이 루드비카에겐 덧없이 사랑스럽게 보여, 저도 모르게 픽 웃고 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맨 살이 보이는 목덜미에 짧게 입술을 맞추자 바로 움찔거리는 그녀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그것도 목덜미에 눌린 입술에 놀랐는지 헤르세인의 어깨가 굳어지자,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그녀의 허리를 감싼 양팔에 힘을 주어 자신의 품으로 더욱 끌어안았다.

“사랑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해 줄게요.”

매일 한번씩, 사랑함을 증명하고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이토록 절절히 들릴 수가 없었다.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루드비카처럼 표현하기가 서툴렀지만, 분명 그도 알고 있을지 몰랐다. 자신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란 것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그를 향한 마음이 가득할 것임을.

로렌드가 이끄는 아클레아 상단은 사브레 왕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상단이자, 로렌드가 손에 넣지 못할 물건은 거의 없었다. 거기에 그가 거래하는 주요 단골 고객만 해도 얼마나 되던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워낙 최상위 층의 귀족들을 주요 고객으로 상대하다보니 가끔씩 귀족들은 로렌드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곤 했지만 그럼에도 로렌드는 아클레아 상단의 가치를 높이고자 어떡해서든 그 무리한 부탁을 성사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터무니없는 부탁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걸러내야만 했다. 로렌드에게 있어 아클레아 상단은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브랜드이자 설령 흠이 생길지라도 앞으로 더욱 커질 상단을 위해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예 손끝조차 건들지 말아야 했다. 그것이 로렌드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신념을 무너트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루드비카, 유일한 친우였다.

“자, 네가 그토록 원하던 ‘라비올라 쟌’의 연주공연 티켓이다.”

“고마워, 로렌드.”

“하아,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 단골 고객들마다 피아노에 관한 언급을 몇 백번이나 했는지 넌 모를 거다.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짧은 지식으로 눈치껏 얘기하려니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알아?”

로렌드는 강하게 혀를 차며 테이블 위로 덩그러니 올려 진 공연티켓을 거의 질린 표정으로 봐야 했다. 고작 종잇조각에 불과한 저것을 얻기 위해 사탕발린 말로 얼마나 고객들을 상대했던가. 그때마다 제 자신조차 모를 잡 지식을 동원하여 얼마나 유려하게 대처했던가. 결국 원하는 것을 얻긴 했으나 그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알다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잖아. 원래라면 내 생일날 그녀를 데리고 이 공연을 보러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 되었으니….”

“너, 이 티켓 값의 두 배는 쳐서 나한테 갚아라. 알아들어?”

“알았어, 어찌됐든 무리한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

라비올라 쟌. 현재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뛰어난 천재성의 실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다. 워낙 인기가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보니, 그가 공연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티켓을 구하고자 공연장을 찾는 귀족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며, 암표까지 돌아다녀 본 티켓 값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불림에도 암표를 사고자하는 귀족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원래라면 루드비카는 이미 라비올라 쟌의 공연을 헤르세인과 같이 볼 예정이었다.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몰래 티켓을 예매하기 까지 했는데, 결국 그 티켓은 무용지물인 종이로 돌아가고 말았다. 공연을 보러 갈 겨를조차 없이 그날은 두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날이자, 잊을 수 없는 날이며 한 시라도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루드비카는 라비올라 쟌의 티켓이 제 손에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음날이 돼서야 티켓의 존재를 알아챘지만 이미 라비올라 쟌의 공연은 끝이 난 후.

하지만 아직 하늘은 그의 편인지, 루드비카는 다시 재공연을 한다는 라비올라 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워낙 그 바닥에선 입소문이 빠른 탓에 루드비카는 라비올라 쟌의 티켓을 구할 수가 없었고, 최후의 방법으로 로렌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공연 전날인 티켓을 겨우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루드비카는 그야말로 큰 빚을 진 셈이었다.

“그런데 그 공연, 너는 워낙 그런 쪽을 좋아하니 상관없겠지만 그녀… 아니, 왕녀전하께서는 안 좋아 하실 수도 있잖아. 너무 고상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로렌드는 당연히 그녀 역시 예술 쪽에 관련된 일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술은 처음엔 신기하면서도 독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체험이 되겠지만, 깊게 들어가는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술계 쪽이기도 했다. 어찌 보면 선입견일수도 있지만 그림이나, 조각, 특히나 연주 공연 같은 것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녀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제 친우가 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가씨는 내게 이렇게 말해줬어.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공부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걸?”

“그래? 그렇담 다행이지만. 그보다, 아가씨라니? 너 그분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왕녀이신데 전하라고 부르는 편이 낫지 않아?”

어째, 이것저것 간섭하는 잔소리꾼이 된 기분이지만 로렌드는 그럼에도 루드비카의 행동에 주의를 줘야 했다. 그저 평범한 귀족영애라면 루드비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재 루드비카의 연인은 제2왕녀인 헤르세인 왕녀. 이름뿐인 왕녀일지라도 신분은 그녀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왕녀전하도 아닌 아가씨라니. 나중에 둘 사이가 알려지거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호칭에 관해선 크게 책잡힐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나름 걱정이 되어 로렌드가 미간을 좁히자, 루드비카는 오히려 여유롭게 고개를 저었다.

“네 말대로 그게 정상적인 호칭이지만, 아가씨는 왕녀전하라 불리는 것을 싫어하셔.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시피 그분은 처음부터 왕녀로서 자라지 않으셨으니까. 그래도 나만은 예외로 두셔서 오히려 난 그게 더 기쁜 편이야. 그리고 이제는 입에 붙어버려서 바꾸기도 어색해. 아, 물론 단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애칭으로 많이 부르는 편이지만. ‘헤세’라고.”

“허, 팔불출 납시었구먼.”

“그거 기쁘네. 그런데 팔불출보단 더 확 와 닿는 단어는 없을까?”

“루드비카, 난 지금 칭찬이 아니라 네놈의 행색을 비꼬는 중이라고.”

그러나 그 비꼼은 루드비카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지, 기분 나쁘도록 예전보다 더욱 생글거리는 모습에 로렌드는 피곤해진 나머지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루드비카를 상대할 때마다 저 꼴을 봐야한다니. 로렌드는 어느덧 제 피부에 닭살까지 돋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라비올라 쟌의 연주공연이 있는 당일.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하늘은 어스름히 남색의 빛깔을 띄우고 있었다. 실크로드처럼 마차는 덜컹거림조차 없이 부드럽게 바퀴를 굴리며 여전히 이동 중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맞은편에 앉아 이동 중이었지만, 한사코 옆에 앉아 가겠다는 루드비카의 끈질김에 헤르세인의 옆자리는 완전히 루드비카가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연장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렸고 마차의 안락함에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려 하고 있었다.

“헤세, 많이 졸린 가요?”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는 것은 물론이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머리는 자꾸 위 아래로 꾸벅꾸벅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루드비카의 다정한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서둘러 눈을 뜨고는 거세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졸려. 그냥 좀 피곤해서….”

“흐음, 그래요?”

루드비카는 작게 웃음소리를 내며 입꼬리를 올렸다. 누가 봐도 졸린다는 뜻임이 명백한데 잠결에 서서히 취해서인지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로 다시금 눈을 무겁게 깜박이고 있었다. 괜스레 피곤한 그녀를 억지로 공연장에 데려간다는 생각이 들자, 루드비카는 흘러내린 그녀의 옆머리를 뒤쪽으로 넘겨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돌아갈까요? 오늘따라 헤세가 많이 피곤해보여요.”

그러나 그 말이 방아쇠처럼 아예 잠이 싹 달아났는지 헤르세인은 고개를 번쩍 들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꼭 공연 볼 거야.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공연이라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엔 아깝잖아. 이젠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마.”

또 한 번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녀의 표정에 루드비카는 얌전히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하기 전, 중요한 볼일이 있던 루드비카는 어느덧 마차가 목적지에 멈추자 먼저 문을 열고 내려 헤르세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헤세, 제 손을 잡고 내려와요.”

“벌써 도착한 거야?”

“아니요, 공연장에 도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헤세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게도 중요한?”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루드비카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려 바로 눈앞에 있는 한 건물을 볼 수 있었다. 눈앞의 건물은 상당히 고급스러웠으며 짙은 청록색의 입구 문이 가장 눈에 띄기도 해, 이곳이 어떤 건물인지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여전히 이 건물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헤르세인과 달리,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손을 잡고서 익숙한 걸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그가 오랜만에 보는 인물이 고개를 숙여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루드비카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알렌드로.”

“부탁이라니요, 저의 최고의 고객이신 루드비카님의 부탁이신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루드비카님을 우선시 해야지요.”

공연장에 도착하기 전, 루드비카가 현재 들린 곳은 바로 그의 연미복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알레드로의 부티끄였다. 알렌드로가 운영하고 있는 부티끄는 광장 주변으로 몰려있는 부티끄와 달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운영을 하고 있음은 물론, 워낙 실력이 좋아 고위 귀족들 사이에선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디자이너이기도 했다. 루드비카에게 먼저 인사를 끝내고 알렌드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헤르세인 쪽으로 향하자, 루드비카는 알렌드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그녀의 어깨를 제 쪽으로 이끌어 자연스럽게 미소를 그렸다.

“제 연인입니다. 그리고 비밀연애 중이라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알렌드로님의 무거운 입과 실력을 잘 알기에 제 연미복과 제 연인의 이브닝드레스를 맡기고자 합니다.”

“세상에, 루드비카님….”

제법 부끄러운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알렌드로는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루드비카, 그가 누구던가. 사교계의 붉은 장미라 불리며 거의 사교계의 화려한, 그리고 없어선 안 될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의 사생활까지는 알 수 없으나, 알레드로에게 있어 루드비카의 존재는 재력이 뒷받침되는 손님을 넘어 자신의 디자인의 한계를 한껏 더 열정을 이끌게 해주는 특별한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그것도 평생 두지 않을 것 같던 피앙세를 둔 것은 물론,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하듯 제 연인을 소개까지 할 줄이야.

어쩌면 이 광경은 알렌드로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지도 몰랐다. 거기에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달콤한 벌꿀 같은 기운이 풀풀 풍기는 모습에 알렌드로는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 이렇게 멍하니 있을 틈이 없었다. 당장에라도 두 사람에게 어울릴만한 연미복과 이브닝드레스를 죄다 준비하고자 알렌드로는 서둘러야 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루드비카님과 피앙세 분께 어울리는 옷을 준비할 테니 차부터… 아니, 일단 아,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루드비카님!”

알렌드로의 성격이 원래 저토록 유난을 떠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다급히 움직이는 것을 보건데 나름 당황한 것이 눈에 보여 루드비카는 피식 웃고 말았다. 반대로 루드비카의 곁에 바짝 붙어있던 헤르세인은 조용히 알렌드로를 보다가 뒤늦게 서야 이곳이 연미복과 드레스를 파는 부티끄임을 알 수 있었다.

아직 공연 시작까지에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루드비카는 알렌드로에게 최대한 빨리 연미복과 이브닝드레스를 간추려 줄 것을 부탁했고, 알렌드로는 아쉬웠지만 가장 멋진 연미복 이브닝드레스를 찾아주고자 심열을 기울여 각각 열 벌씩의 연미복과 이브닝드레스를 준비했다.

루드비카가 알렌드로의 도움을 받으며 연미복을 갈아입고 있을 동안, 헤르세인은 알렌드로의 여 조수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브닝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다. 서로의 모습을 가린 커튼이 쳐지고,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은 각각 첫 연미복과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쭉 관찰하던 알렌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다음 옷을 준비시켰고, 두 사람은 다시 두 번째의 연미복과 이브닝드레스를 갈아입고서 마주섰다.

“으음, 이것도 제법 괜찮아 보이지만 너무 색 배열이 과하네요. 루드비카님, 그리고 피앙세 분, 죄송하지만 다음 걸로 갈아입어주세요.”

정작 옷을 고르는 건 두 사람인데 어쩌다보니 알렌드로에게 옷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몇 번이고 갈아입는 행동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렇게 갈아입기를 아홉 번. 어느덧 열 번째가 돼서야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은 조금 피곤해진 얼굴을 하며 알렌드로의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알렌드로는 상당히 흡족한 얼굴을 하며 두 손뼉을 빠르게 쳤다.

“바로 이거에요!!”

아직 공연이 시작되기 전인 공연장의 리허설 무대. 처음에는 물 흐르듯 시작된 가벼운 연주가 점점 악에 받히더니, 급기야 연주자는 피아노 건반을 무너트리듯 내리치며 연주를 중단시켰다. 무대 위에서 그의 리허설 연주는 구경하던 무대 연출자들은 의아한 눈으로 저들끼리 속닥거렸지만, 정작 연주를 친 당사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호흡을 뱉어냈다.

“젠장.”

오늘 공연의 주인공이자,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휴식기에 접어들 그. 그의 이름은 라비올라 쟌. 라비올라는 중얼거리듯 거친 욕설을 뱉고서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어 눈을 감고 최대한 집중을 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피아노 건반을 내리치던 무거운 손을 부드럽게, 깃털처럼 가다듬어 아기 새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가벼운 연주로 다시금 연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연주도 아직 중장으로 채 가지 않은 연주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라비올라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연약하게 움직이던 손가락은 호흡처럼 거칠게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집중과 호흡이 흐트러지면서 아주 미세하게 건반이 제때 눌려지지 않는 순간, 라비올라는 바로 손을 떼어 근처의 있던 조율사를 불렀다.

“죄송하지만 이쪽 건반이 자꾸만 거슬리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율사가 즉각 대답하고서 건반을 점검하기 위해 피아노 쪽으로 다가오자, 라비올라는 조율사가 점검하기 쉽도록 아예 자리에서 비켜나왔다. 조율사는 비록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특히나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공연 전에 고슴도치마냥 가시를 세워 예민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분명 멀쩡한 피아노처럼 보임에도 건반의 불안정한 소리는 기막히게 감지해, 그때마다 피아니스트들은 극도로 더 예민해져 조율사에게 괜한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조율사들이 피아니스트들의 곁에 바짝 붙어 연주를 구경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지, 얼마나 피아노 연주의 영혼을 갈아 넣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금 조율사의 근처에 있는 라비올라는 다른 피아니스트들 보다는 그 불평이 덜했기에 조율사는 안심을 하고서 건반 점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편 조율사가 점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극도로 예민해진 기분도 이내 차분해졌는지 라비올라는 어느덧 자신의 근처로 다가온 후원자의 모습에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알베르셋 백작님.”

“오늘 공연은 어떨 것 같나? 라비올라 군. 휴식기를 갖기 전에 자네를 위한 최고의 무대 연출을 위해 수도에서도 가장 큰 오페라 극장을 빌렸네만.”

알베르셋 백작이 나름 재력을 뽐내고 싶었는지 껄껄 웃으며 잘 가다듬어진 수염을 쓸어내리자, 라비올라는 예민해진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알베르셋 백작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서 감히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자네 덕분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많이 들었던가? 그냥 그 연주의 값이라 생각해주게. 이토록 자네를 후원하면서 평생 즐거웠던 적도 없고 말이야.”

라비올라는 진심으로 감사가 담겨있는 미소로 그에게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알베르셋 백작의 후원을 받기까지, 아니 이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손톱이 깨질 정도로 피아노만을 연주하며 살았던가. 라비올라는 처음엔 자신이 평민이란 신분으로 인해 가로막힌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을까하는 생각도 있었다. 피아니스트의 길은 그야말로 있는 집 자제들, 특히나 귀족들이 갖는 일종의 취미생활 같은 개념이었다.

처음에는 신분으로, 두 번째는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선 피아노 고용선생은 물론 그 비용을 지불해야할 재력이 라비올라에겐 없었다. 어렸을 땐 그저 순수함으로 그것들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눈앞의 현실에 치이니 피아니스트란 길이 그저 일반 평민에겐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점점 무겁게 라비올라를 짓눌렀다.

거의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할까 싶을 때쯤, 그런 라비올라의 생각을 바꾸게 한건 한 남자 때문이었다. 거의 상금조차 얼마 되지 않는 콩쿠르를 전전하며 이번 콩쿠르를 끝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하려던 라비올라는 자신의 바로 앞 경연자의 연주 실력을 그때만 해도 평범히 감상했다. 처음부터 무겁게 가라앉는 피아노 건반의 소리와 느릿하면서도 마치 그 분위기를 갉아 먹으려는 어두침침한 곡. 그러나 느릿하던 곡은 서서히 빨라지게 되면서 중장을 향해, 종장을 향해 달려갈수록 라비올라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분명 무거운 곡이 분명한데도 연주자는 태평히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저런 곡을 연주하며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기괴하기까지 보이면서도 연주를 하는 사내는 점점 무언가를 털어내듯 상쾌한 표정까지 지어, 라비올라는 심각하게 연주자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끝난 연주. 경연을 진지하게 보는 심사원들도 관람하는 일반사람들도 그저 예를 갖춰 박수를 쳐줄 법도 하건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칠 생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누군가 제정신을 차린 듯 박수를 한두 명씩 치자, 그제야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비올라는 그들을 모습을 보고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그 경연자의 피아노 연주에 그들이 동화되어 압도가 된 것이었다. 거기다 무거운 곡을 연주함에도 여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으니 감상하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비올라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 서둘러 그 경연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대담히 물었다.

"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네, 말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연주를 했는데, 그토록 여유롭게 웃으며 연주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런 곡을 선택하면 웃을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이 경연을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모든지 암울하던 시기여서 일까. 모든지 안 되는 일이 많았기에 라비올라는 자연스럽게 눈앞에 있는 경연자가 이 상금도 얼마 없는 콩쿠르를 그저 단순한 대회로 여기지 않았나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의외의 말을 들어서인지,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여인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그렸다. 라비올라는 그런 남자의 미소가 이토록 여인처럼 아름다웠나 싶으면서도 분명 같은 성별인 남자임에도 이상하게 제 얼굴이 열이 오르는 느낌에 먼저 시선을 피해야 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이 대회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저는 피아노를 연주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어느 대회건 장난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연주한 이번 곡은 누가 들어도 듣기 거북할 정도의 무거운 곡이지요. 이 곡을 만든 작곡가는 그 다름 아닌, ‘베르지안의 장례식’이라는 곡이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얼굴로...."

"제가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곡가 베르지안은 독특한 세계를 가진 위인이라 생각해요. 특히나 베르지안은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아버지가 죽고 난후, 장례식을 치러줬을 때 사람들은 그가 미치광이처럼 웃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실성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실성한 것이 아닌 아무도 모를 베르지안의 아픔과 해방이란 자유를 품고 있었다면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제 뜻대로 해석해 연주를 한 것뿐입니다."

이런 연주자는 처음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작곡가 베르지안은 고전파 작곡가중 가장 으뜸으로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선 가장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베르지안을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것은 물론, 자신을 한 없이 아끼어준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저 해방이란 이유로 실성한 미치광이로 표현하다니. 물론 미치광이는 표현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베르지안을 해석한 사람은 눈앞의 남자가 처음이기에 라비올라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별개로 남자는 이번엔 아쉬움이 가득담긴 표정을 그려내고선 라비올라에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번 콩쿠르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피아노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지요. 어쩌면 그 아쉬움이 가득남아 제 마지막 열정을 이번 콩쿠르에 쏟아 부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이요?"

"네, 모두에게 보이는 제 연주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 당신은 아직 마지막 콩쿠르가 아니지요? 라비올라 씨?"

"제 이름을 어떻게...."

"그야, 어릴 때부터 당신의 연주모습을 쭉 봐왔으니까요."

어릴 때부터라니? 라비올라는 이번 처음으로 눈앞의 남자와 마주했다.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이미 자신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어느덧 남자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등을 돌려 가버리려 하자, 라비올라는 그를 붙잡았다. 연인들처럼 손목을 붙잡는 것이 아닌,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그를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었다.

"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성함을 알려주세요. 저를 꽤 잘 알고 계신 듯 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잘 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제가 압도될 정도로 훌륭했다고."

그러자 남자는 잘 묶인 붉은 머리카락을 잘게 휘날리며 미소를 그리곤 너무도 간단히 이름을 밝혔다.

"제 이름은 루드비카,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당신은 분명 모든 사람들의 귀를 휘어잡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피아니스트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아깝지 않나요?"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그때서야 라비올라는 눈앞의 남자가 누군지 아주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피아노 세계로 끌어들인 어린 천재 소년, 그리고 자신의 첫 동경의 대상. 라비올라는 아주 어린 시절 그의 어린 모습을 몇 번밖에 채 보지 못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는 성인 피아니스트 저리가라 할 정도의 천재수준으로 연주하는 자였으며 나이가 어림에도 가장 큰 콩쿠르란 대회를 모조리 휩쓴 천재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워낙 실력이 유명하다보니 매번 상금도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콩쿠르에서 라비올라는 루드비카를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새 부턴가 그의 유명세가 잠잠해지면서 더 이상 그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라비올라는 그가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고 은퇴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소문으론 그가 귀족임은 알고 있어도 정확히 어떤 귀족인지는 알지 못했기에 라비올라는 당연하게도 그가 귀족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피아니스트란 취미생활을 접은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거기다 이번 연주가 완전히 마지막이란 것에 그가 왜 그만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라비올라는 그날, 루드비카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의 말처럼 여기까지 어떻게 온 길이었던가. 손톱이란 손톱은 모조리 깨질 정도로 손끝에 피가 터질 정도로 오직 피아노만 생각하며 온 피아니스트의 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히 무너질 정도로 자신의 꿈이 하찮았던가? 거기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그가,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가 저에게 말했다. 그 길이 아깝지 않냐고. 어린 시절부터 줄곧 걸어온 그 길이 아쉽지 않냐고. 아까웠다. 이토록 아까울 수가 없었다. 그저 다른 피아니스트들처럼 잘 되지 않은 자신을 향한 핑계거리가 이토록 나태하게 나약하게 만든 건지도 몰랐다.

그때부터 라비올라는 거의 죽을 듯이 피아노에만 다시 몰입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때의 마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라비올라는 예술계 쪽에서도 이름난 알베르셋 백작의 후원을 받아 지금에 이르기까지 했다.

“라비올라 씨,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라비올라 씨가 말한 건반의 조율은 끝났습니다.”

조율사가 점검을 끝냈는지 그의 부름에 라비올라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신중을 기하며 잘 쳐지지 않던 건반을 빠른 속도로 쳐보기 시작했다. 띠링띠링하며 하얀 건반이 빠른 속도로 그의 손끝에 움직여지며 맑은 소리가 나오자 라비올라는 이내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조율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이제 완벽히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까지 심각히 예민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디를 가버렸는지 잔잔히 웃는 그의 모습에 조율사는 완전히 안도의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알베르셋 백작 역시 만족한 미소를 짓다가 무언가를 떠올렸는지 여전히 수염을 쓰다듬은 채로 알베르셋 백작은 라비올라에게 대답하듯 입을 열었다.

“아, 그러고 보니 라인하르트 공자도 자네의 연주를 보러 온다더군.”

“예? 라인하르트 공자님 말씀이십니까?”

백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네, 아쉽게도 후작이랑 첫째 공자는 아니고 둘째 공자라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말일세.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둘째 공자는 예술 쪽을 좋아하는 이라 나도 어느 정도 공자와는 안면이 있다네. 그런데 자네의 공연을 보러올 정도면 역시 자네의 실력이 수도 전체로 알려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하하하! 역시 내가 보는 눈은 있단 말이지!”

라비올라는 동그랗게 떠진 눈을 하다가 서둘러 고개를 움직여 공연장의 바깥을 보았다. 아무리 바깥을 보고 싶어도 좌석이 꽉차있는 실내가 전부였지만 라비올라는 이미 침을 꿀꺽 삼키며 바짝 긴장을 탔다.

‘그가 온다니…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과연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라비올라는 평소보다 다른, 들뜨면서도 바짝 긴장이 역력한 얼굴을 하며 어딘가에 앉을 지도 모를 루드비카의 좌석을 찾기 시작했다.

공연장에 도착하기 전, 여전히 매끄럽게 움직이는 마차의 안에서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에게 자잘한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가면을 건네주었다.

“이건….”

“가면이에요. 헤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미안해요, 헤세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건넨 가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안 그래도 귀족들이 득실거리는 공연장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무턱대고 맨얼굴을 보인 채, 그것도 루드비카와 함께 들어간다면 자신을 그들이 어떤 얼굴을 볼 텐가.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이라면 상관없었지만, 루드비카에게 만큼은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저보다 한가득 미안한 얼굴을 하며 가면을 건넨 그의 표정을 보니, 더욱 미안한건 제 자신이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당신의 곁에 있고 싶은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정도쯤이면 별거 아닌 걸?”

정말로 별거 아닌 표정을 그리며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에게서 받은 가면을 제 얼굴에 씌웠다. 눈 주변을 빼면 누구인지 모를 가면으로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어둠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은은히 보이고 있었다. 어느덧 마차가 멈추고 드디어 공연장에 도착했는지 이번엔 마부가 직접 나서서 마차의 문을 열어주자,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준비 됐나요? 헤세.”

“응.”

헤르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루드비카는 잔잔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서 이윽고 두 사람은 마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마차에서 단순히 내렸을 뿐인데 공연장의 빛이 강렬한 탓에 헤르세인은 잠시 동안 눈이 빛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했다. 그리고 눈이 서서히 빛에 적응되어 갈 때쯤 시야가 확연해지면서 공연장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공연장 입구로 들어서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귀족여인들은 모두가 저처럼 이브닝드레스를 한껏 차려입고서 우아함을 뽐내며 공연장 입구로 모여들고 있었다.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이 가면무도회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저처럼 화려한 가면을 쓰고 연미복을 입은 파트너들과 들어가는 귀족여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었다. 이 광경이 처음 본 일이라 동그랗게 눈을 뜬 헤르세인과 달리, 루드비카는 이런 모습이 익숙한지 차분한 표정으로 저들이 가면을 쓰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저렇게 가면을 쓴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싶은 귀족들이죠.”

“신분을 가리고 싶은 귀족?”

“네, 정확히 말하자면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죠.”

불륜이라니. 그 낮선 단어에 설마 자신도 루드비카와 불륜관계처럼 보이지 않을까하여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에 힘을 주자, 루드비카는 걱정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헤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헤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제 얼굴은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양쪽의 파트너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 그런 관계를 가져 완전히 정체를 가리고 싶다는 뜻을 표현하지만, 한쪽 파트너만 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온전히 내 파트너의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양쪽으로 가면을 쓴 그들이 그런 뜻을 나타낸 건지 몰랐지만, 한쪽 파트너만 가면을 썼다는 것도 어쩌면 떳떳하지 않는 뜻과도 같아 헤르세인은 다시금 손에 힘을 주었다. 어찌됐든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던가. 이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미안… 내 위치가 당신을....”

요즘 들어 자꾸만 미안한 기분이 드는 건 왜 일까. 분명 제 자신이 선택한 길임이 분명한데 자꾸만 이런 상황이 올 때면 루드비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피식 웃고는 헤르세인의 손을 들어 자신의 팔에 끼어 다른 손으로 그녀의 코끝을 꾹 눌렀다.

“그거 아나요? 헤세와 저는 서로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헤세가 마차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안해하지 말아요. 제가 헤세의 곁에 있겠다고 선택한 거니까.”

“....”

“아! 그리고….”

중요한 무언가가 남았는지 루드비카는 면장갑을 낀 손가락을 튕기며 싱긋 웃었다.

“여기서는 ‘당신’이 아니라 이제 ‘루카’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요?”

“아… 그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진 벅찬데, 애칭으로 부르려니 헤르세인은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다. 꿀을 먹은 벙어리마냥 헤르세인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차라리 루드비카처럼 쉽게 애칭이 불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마음속에선 그의 이름과 애칭을 여러 번 되뇌었지만 막상 입을 떼서 부르면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루....”

남들이 듣기엔, 남들이 보기엔 단순한 애칭일지라도 헤르세인에게 있어 그 의미는 남달랐다. 오직 자신만이 부를 수 있는 그의 애칭이자 자신만이 허락된 그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이 가볍지도 않은 함부로 부르기엔 쑥스러우면서도 그냥 부르기엔 마음이 무거운 특별함 때문에 헤르세인은 몇 번이고 그의 애칭 앞부분만을 반복해야했다. 루드비카는 살짝 장난을 넣어 대답하긴 했지만, 한 번도 애칭으로 불러주길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 불러주길 원하는 그의 아쉬운 표정이 그려져 있기에 헤르세인은 이번만큼은 그의 애칭을 부르고자 눈을 꼭 감고 겨우 입을 열어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그 애칭을 불러보았다.

“루… 카….”

“네, 헤세. 다시 한 번 불러주실래요? 헤세가 불러주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루카.”

“잘했어요, 나의 아가씨.”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가면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쓰지 않았다면 분명 자신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루드비카가 전부 봐버렸을지도 몰랐으니까.

어쩌다 운이 좋아 라비올라 쟌의 공연 티켓을 얻게 된, 그레이스 공녀는 자신의 기사이자 연인인 길버트와 함께 모처럼 시간을 내어 공연장을 찾아왔다. 모처럼 둘만의 시간인지라 그녀는 길버트와 함께 최대한 연미복과 이브닝드레스를 갖춰 입고서 마차에서 내려 이제 막 공연장 입구로 들어서던 찰나였다.

“음? 라인하르트 공자님?”

그녀는 혹시 자신의 눈이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최대한 눈을 가늘게 뜨고서 저 멀리에 있는 인물에 집중을 했다. 하지만 눈의 시력은 정상적인지 그녀는 그 인물이 진짜 루드비카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아름다운 외모와 유독 눈에 띄는 새빨간 장밋빛의 머리칼과 호박 빛의 눈동자. 그녀가 잘 알고 있는 라인하르트 공작가의 둘째 공자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파트너를 대동하고 왔는지 그의 곁에 처음 보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순간, 그레이스 공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저 분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식적인 장소는 아님에도 아직까진 그녀의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은지 그의 소유욕이 엿보이는 모습과도 같았다. 얼굴에 가면을 씌운 것은 물론, 놓칠세라 그녀의 팔짱과 어깨를 전부 독차지한 모습. 언뜻 보면 당연하듯이 보이면서도 처음 보는 그 생소한 모습에 그레이스 공녀는 루드비카의 파트너에 호기심을 가졌다.

어느 가문의 공녀인지 알 수 없으나 루드비카의 파트너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그녀도 익히 알고 있는 디자이너의 것이었다. ‘알렌드로’ 그가 누구이던가. 웬만한 재력으론 그가 만든 옷은 손쉽게 살 수 없으며 상당한 고위 계층의 귀족이 아닌 이상, 그의 작품을 입기란 쉽지가 않았다. 물론, 그녀 역시 디자이너 알렌드로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어, 몇 벌 정도는 그의 부티끄에서 구매했지만 알렌드로는 디자이너 중에서도 워낙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 제아무리 자신이 마음에 든 드레스를 골라 구매하고 싶어도 알렌드로가 쉽게 판매하지 않았다.

"제가 만든 정장이나 연미복, 그리고 드레스들은 그에 맞는 주인이 입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건방져 보일수도 있지만 아무리 옷이 날개라 해도 그 사람의 체형과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옷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옷이 날개기 때문에 입는다면 돼지 목에 진주가 아닐까요?"

만약 그 안에 숨겨진 뜻을 모르고, 그냥 알렌드로의 말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악독한 디자이너가 오직 돈과 신분에만 치중하여 고객을 상대하는 모습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신분이나 돈을 떠나, 색깔이나 옷의 배합 그리고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이 옷은 어느 사람에게 어울리고, 또 이 옷은 어느 사람에게 잘 맞지 않은지를 상당히 심열을 기울여 연구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했다. 때문에 알렌드로의 실력을 높이 사, 대다수의 고위 귀족들은 알렌드로를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루드비카의 파트너가 입고 있는 이브닝드레스는 그녀조차 나름 탐을 내던 이브닝드레시이기도 했다. 요즘 공연장에선 보기 드문 어깨와 등이 파인 드레스였으며 짙은 와인 빛의 색감이 화려하지도 않고 특히나 이런 공연일수록 그 차분한 분위기를 한층 우아하게 뽐내주어 그녀는 그 드레스를 보자마자 알렌드로에게 구매의사를 보였었다. 하지만 돌아온 알렌드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스러웠다.

"그레이스 공녀님께는 실례가 되는 말이지만, 이 이브닝드레스는 공녀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녀님께서는 조금 날카로운 눈매에다가 턱 선은 짙으시고 골격이 튼튼하시어 공녀님께서 입으신다면 아마, 억지로 입은 답답함을 보이실 겁니다."

만약 알렌드로의 직설적인 그 말을 다른 공녀들이 들었다면 기절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알렌드로의 깔끔이 그 이브닝드레스를 포기해야만했다. 과연 저 이브닝드레스는 누가 입게 될까? 란 생각을 하며 차츰 머릿속에서 잊히고 있었는데, 설마 그 드레스를 그의 파트너가 입게 될 줄이야. 거기다 루드비카의 차분한 짙은 검보라색의 연미복이 파트너의 와인 빛의 드레스와 어우러져 두 사람의 분위기를 한층 우아하면서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었다.

“아가씨, 설마 저 분이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이십니까?”

“세상에 길버트! 설마 질투하는 건가요?”

평소에 남들에겐 관심조차 없던 그녀의 정인이 유독 루드비카를 노려보듯 퉁명스럽게 물어보자, 그레이스 공녀는 장난기 가득히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당연히 질투를 하지, 설마 안하겠습니까?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너무 저분을 보지는 말아주세요. 저분도 엄연히 파트너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제는 대놓고 가시를 세우는 그의 질투에 그녀는 키득키득 웃으며 진정하라는 뜻으로 팔짱을 낀 그의 팔을 다독여야 했다. 평소에는 이처럼 표현을 하지 않는 그이건만, 아무래도 루드비카와 있었던 약혼 일에 나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그레이스 공녀는 제게 질투하는 길버트가 귀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일이 아니었다면 과연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했었을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렇게 길버트와 당당히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건, 루드비카의 덕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정인과 단둘이서 공연을 보러 올 일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살짝 발끝을 올려 자신의 정인의 뺨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길버트가 상당히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내려 보자, 그레이스 영애는 빙긋 웃으며 길버트를 잡고 있는 손을 꽉 잡고선 절대로 놓지 않았다.

“나에겐 길버트 당신 뿐 이에요. 그리고 내가 라인하르트 공자님을 보는 건 저분이 지금 곁에 있는 파트너분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는 거라 생각해줄래요?”

“뭐, 그런 거라면 저도 안심은 되는군요. 하지만 아무리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도 너무 저분을 바라보지는 말아주시길. 저분의 외모가 워낙 눈에 띄니 제 연인의 눈이 자꾸 한눈 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자, 그럼 들어가시죠. 나의 아가씨.”

“물론이에요. 나의 기사님. 이제 우리끼리의 추억을 쌓아볼까요?”

그녀는 길버트와 함께 최대한 루드비카의 시선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움직여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일종의 루드비카에 대한 배려이자 지금은 길버트와의 단 둘의 시간이 그녀에겐 덧없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웅성이던 실내의 소리가 한순간에 잠잠해지면서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다. 그리고 모두의 박수를 받은 남자는 덩그러니 놓여있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한참동안이나 심호흡을 한 뒤, 두 손을 하얀 건반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것은 마치, 새소리가 또랑또랑 지저귀는 음색과도 같아 맑은 피아노의 소리가 느릿한 연주로 무대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3층의 2인 귀빈실에서 단둘이 조용히 앉아 피아노와 연주자의 모습을 관람하기 시작한 헤르세인의 눈동자는 청명이 눈을 뜨며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피아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분명, 3층의 거리와 무대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어쩐지 헤르세인의 눈에는 연주자의 손가락이 빠르게 보일정도로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로 너무도 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루드비카가 알려준 ‘계이름’에 관한 건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 해도 피아노의 연주소리가 왜 이토록 기분이 좋은지, 왜 루드비카가 이토록 피아노를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어쩐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틀어 루드비카의 옆모습을 보았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지 루드비카는 살짝 편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서 본격적으로 피아노의 소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상당히 의외인 모습인지라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괜히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저런 식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기에 루드비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헤르세인은 다시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피아노 연주 소리에 집중했다.

첫 연주는 봄처럼 따뜻하면서도 풋사과처럼 풋풋한 느낌의 따스한 연주였다면 바로 이어진 두 번째 연주는 속도가 빠르면서도 여름과도 같은 정열적인 피아노 연주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리면서도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연주였다면 네 번째 연주는 차가우면서도 강렬한 낮은 음색의 피아노 연주가 강렬히 무대를 장악했다.

총, 두 시간을 넘어 다양한 곡들을 이어서 연주한 연주자의 피아노 소리가 매듭을 짓자, 어느덧 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내며 연주자에 대한 감동과 환희를 내보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고자 이동을 하고 있을 쯤, 헤르세인은 언제부터였는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루드비카의 시선과 마주쳤다. 루드비카는 상당히 이 공연을 즐겼는지 생긋 웃으며 헤르세인에게 이번 공연에 대한 감상을 물었다.

“헤세, 이 공연 어땠나요? 저는 꼭 헤세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생긋 웃으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그의 물음에 헤르세인은 여전히 가면을 쓴 상태로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저 피아노를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대해 집중을 했지만, 연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처럼은 아니더라도 연주소리에 최대한 집중을 했다. 그녀에게 있어 아직 예술계 쪽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이번 공연 관람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루드비카 덕분에 귀족들은 이런 음악을 즐기고 또, 루드비카 역시 얼마나 피아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지 조금 더 그를 알게 된 느낌이었다.

“좋았어. 그래도 아직 나는 당신… 아니, 루… 카처럼 피아노에 대해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공연을 한 연주자의 실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할 수 있었는지 눈과 귀를 뗄 수 없을 정도였어. 내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헤세가 혹시 지루하거나 싫어하면 어쩌나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좋아해주니 정말 다행이고 저야말로 고마워요.”

루드비카가 자리에 일어나 헤르세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이곳에서 나가고자 하는지 그가 정중히 내민 손에 헤르세인은 그 위로 자신의 손을 내려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때였다.

똑똑똑

똑똑 두드리는 귀빈실 문의 노크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다. 헤르세인은 갑작스러운 낮선 사람의 등장에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익숙한 연미복을 입고 있는 낮선 사람의 모습에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아, 실례했습니다. 멋대로 들어온 건 알고 있지만 오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결례를 무릎 쓰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 이라 대답하는 것도 애매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서 굉장히 기쁩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공자님.”

“편히 루드비카 씨라 불러줘도 됩니다. 라비올라 씨. 그리고 오랜만이군요. 저야말로 이렇게 만나게 되서 기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 서로에게 향하는 반가움이 깃든 눈빛에 헤르세인은 이 자리에 괜히 자신이 끼어있는 것 같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의 편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에 빠질까하며 슬쩍 옆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그런 헤르세인을 붙잡은 건 루드비카였다.

“여기 있어요, 헤세. 그리고 저를 위해 자리를 비켜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헤세가 제 옆에 마음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하니까요.”

“저어, 루드비카 씨… 옆에 계신 분은?”

라비올라가 헤세를 발견했는지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진한 미소를 그리며 혹시라도 헤르세인이 제 곁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은 채, 대답했다.

“제 연인입니다. 라비올라 씨.”

“아, 이런 제가 정말로 실례를 했군요. 제 후원자이신 알베르셋 백작님에게서 루드비카 씨의 소식만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온지라 제가 이런 생각조차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당연하게도 헤르세인을 귀족가의 공녀라 생각했는지 라비올라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서둘러 고개를 숙이자, 헤르세인은 손을 저으며 그가 어서 고개를 반듯하게 들어주길 바랐다.

“아니에요. 전 괜찮으니 어서 고개를 드세요.”

라비올라는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헤르세인을 똑바로 보았다. 가면을 쓰고 있어, 정확히 어떤 모습의 여인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녀가 입은 드레스며 루드비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는 그의 피앙세이자 지체 높은 귀족가의 공녀가 틀림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만 있음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피아노로 치자면 레가토(음과 음 사이를 끊지 않는 원활한 연주)의 분위기에 라비올라는 혹시나 괜히 이곳에 끼어든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두 번 다시없을 기회이자 그를 어쩌면 마지막으로 볼 것 같은 그 느낌에 라비올라는 루드비카에게 최대한 실례를 무릎 쓰고 다시 한 번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루드비카 씨,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탁… 말입니까?”

“예. 짧아도 좋으니 그때… 루드비카 씨가 콩쿠르에서 연주하던 그 연주를 다시 한 번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모든 관객들이 빠져나간 공연장 안에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제일 앞좌석과 한 사람은 무대 위의 피아노 의자. 그리고 그런 두 사람에게 피아노를 칠 연주자는 다름 아닌 루드비카. 루드비카는 의외로 라비올라의 부탁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의 부탁을 쉽게 받아들인 것은 이제는 과거의 추억 속에만 남아있을 콩쿠르의 분위기가 그리워서이며 또 하나는 처음으로 헤르세인에게 자신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비록, 마지막 콩쿠르 때 연주하던 곡은 아니었지만 라비올라는 그 어떤 곡이라도 상관없는 얼굴로 루드비카의 연주를 반갑게 기다렸다.

모두가 떠난 공연장과 오랜만에 나 홀로 서보는 무대 위. 라비올라가 알베르셋 백작에게 조금의 여유를 부탁했는지 공연장 실내 안으로 무대를 정리하고자 들어오는 연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루드비카는 그것이 가장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오랜만에 서보는 무대 위여서인지 이상하게 떨리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거기다 무대 아래는 헤르세인까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까. 이토록 손에 땀이 나는 기분은 실로 오랜만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팅팅 소리를 내는 하얀 건반을 몇 번이고 두드리다가 루드비카는 최대한 심호흡을 하며 하얀 건반위로 두 손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키는 것으로 루드비카는 눈을 내리깔아 두 손의 손가락을 움직여 연주를 시작했다.

현재 루드비카가 연주하는 곡의 이름은 ‘에델의 봄꽃’ 낭만파 작곡가로 익히 알려진 모르트가의 유명한 연주곡 중 하나였다. 연주의 곡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깃든 모르트가의 섬세함과 모르트가가, 살아생전 사랑한 연인을 위해 만든 일종의 프러포즈 곡이기도 했다. 처음은 손가락이 바쁠 것도 없이 단순히 하얀 건반을 움직이던 손가락은 어느새 양쪽으로 힘차면서도 연인을 위한 사랑을 담아내듯 우아하게 건반을 누르며 아름다운 음색을 무대 위로 퍼지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의 종장. 짧은 피아노의 연주가 끝나자 거의 정자세로 루드비카의 연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관람하던 라비올라가 차분히 박수를 치고 일어나 연주 때만해도 보이지 않던 개운한 미소를 보였다.

“역시 루드비카 씨가 연주하는 음색은 여전히 제 마음을 휘잡는 무언가가 있네요. 루드비카 씨, 무리한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루드비카 씨가 거절하지 않을까하고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제 부탁을 고민도 없이 바로 승낙해주셔서 무척 기뻤습니다.”

“저야말로 천재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라비올라 씨가 극찬해 주시니 제가 더 기쁘군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루드비카는 아직 피아노에 작은 아쉬움이 남아있었는지 자리에 서있음에도 피아노를 쓰다듬는 그의 손끝에는 여운이 작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기분을 잘 알고 있는 라비올라는 아무 말 없이 루드비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물음을 기다렸다.

“왜 제게 피아노 연주를 부탁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는 피아노를 거의 취미삼아 가끔씩 만지는 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부탁을 제게 한 라비올라 씨의 생각이 궁금해서 말이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루드비카의 물음에 라비올라는 어색히 웃다가 뺨을 긁적이며 대답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 욕심… 이랄까요? 루드비카 씨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제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꾼 건 어렸을 적,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가 콩쿠르 대회에서 단순히 관람만 하던 제게 꿈을 실어준 것이 바로 루드비카 씨, 당신이었으니까요. 당신의 그 고사리 같던 손이 제 어린 꿈을 실어주었고 후에는 꿈을 접으려던 저에게 다시 용기를 복 돋아 주신 것도 루드비카 씨, 당신이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이제는 너무 달려온 나머지 저만의 휴식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공연으로 제가 휴식기간을 가지면 혹시 더 이상 피아노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루드비카 씨의 소식을 듣고, 만약 당신의 피아노 연주곡을 듣게 된다면, 어쩌면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런데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루드비카 씨, 당신의 연주는 제게 꿈을 지켜주고 그것을 더욱 실연시켜주는 희망의 연주곡이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루드비카 씨. 이제 불안 같은 것 없이 그 꿈을 유지하며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저야말로 다시 당신을 만나게 돼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음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어 감사합니다. 라비올라 씨.”

라비올라가 정중히 떠나가고 어느새 공연장 실내에는 루드비카와 헤르세인 두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라비올라가 먼저 떠나기 전, 루드비카는 약 5분의 시간을 빌릴 수 있도록 라비올라에게 부탁했고, 그런 루드비카의 부탁에 라비올라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비록 무대 연출자는 그가 아니었지만 연출자들이 혹시라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고 주의를 끌고자 라비올라는 서둘러 실내를 떠났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던 헤르세인은 무대 위로 제게 손을 내민 루드비카의 모습에 고개를 들어 그의 두 눈과 마주했다.

“헤세, 제 손을 잡아줄래요? 헤세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가 작곡한 연주곡이 있어요.”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손을 거절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를 응시한 채로 그가 내민 손을 잡고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며 눈 깜짝할 사이 피아노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헤르세인의 손을 잡고 이끌던 루드비카는 먼저 자리에 앉아,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적당한 옆자리를 툭툭 두드리며 그녀를 향해 대답했다.

“자, 이쪽으로 앉아줄래요? 어서요.”

얼떨결에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원하는 대로 그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앉기 전만 해도 자리가 어느 정도 남을 거라 생각했건만, 막상 그의 옆자리에 앉아보니 루드비카의 어깨가 바짝 닿을 가까운 거리였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지 눈웃음을 휘게 지으며 지금부터 연주할 곡은 오롯이 헤르세인을 위한 연주곡임을 알렸다.

“한번쯤은 헤세를 위해,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닿아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위해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디, 헤세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헤르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루드비카는 진하게 입 꼬리를 말아 올리며 순식간에 연주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라비올라 때와는 전혀 다른 애틋하면서도 맑은 피아노의 연주소리가 시작 되었다.

라비올라가 연주한 음색보다는 조금 낮으면서도 더 느린 건반소리가 헤르세인의 귀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분명 유연하게 건반을 움직이는 그의 손길은 부드러운데 그 손끝에서 울리는 건반의 음색은 어쩐지 가슴이 아리면서도 애틋하고, 마음을 누군가 붙잡는 것 같아 헤르세인의 손은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그 음색을 집중해서 듣자면 숨이 막히면서도 그 음색에 깊이 빠져들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아 헤르세인은 괜스레 눈을 돌려 피아노를 연주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바로 눈동자에 담아냈다.

‘…루드… 비카?’

처음이었다. 그의 이렇게 표정하나 없이 오로지 피아노에 집중한 눈만을 하며 두 손을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얼핏 어스름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의 내면을 본 것 같아 헤르세인은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한 없이 표정이 없다가, 또 어떤 때는 한 없이 표정이 슬퍼지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한 없이 애틋하고도 애절해, 지금 루드비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곡을 연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느릿하던 곡이 서서히 빨라지면서 그의 호흡도 이제 곡을 쫓아가듯 숨 가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숨이 먼저 지치기 전에 연주가 다시 느려지면서 루드비카가 건반을 하나 둘씩 몇 번이고 누르다가 이내, 완전히 그의 연주가 끝나고 말았다.

“…어떤가요? 처음으로 헤세의 앞에서 연주를 해본 건데 저 잘했... 헤세? 혹시, 우는 건가요?”

“내가… 운다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헤르세인은 제 눈가를 확인하고 나서야 루드비카의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또, 언제부터 눈물을 저도 모르게 흘렸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라비올라의 연주를 들었을 때와의 전해진 감동이 다르단 것이었다. 어느새 루드비카가 가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다정히 닦아내주자 헤르세인은 그의 손을 제 뺨에 감싸듯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손바닥 아래에서 뺨 위로 느껴지는 그 온기를 느끼며 헤르세인은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상해. 그 사람이 연주한 곡들도 분명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동이 있었는데, 루카, 당신이 연주한 그 곡은 똑같은 감동이 분명한데도 내 마음이 그 음색처럼 슬픈 감정이 들었어. 분명, 당신이 연주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연주를 들었을 뿐인데 그 연주에 당신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연주가 내 시선을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

“눈물을 흘리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원래 제가 바란 건 당신이 제 연주와 제 모습에 단순히 기뻐해주길 바란 것뿐인데… 제 감정이… 저도 모르게 이 연주곡에 그런 감정들을 흘려보냈나 봐요. 당신이 동화될 만큼의 그 감정을 느끼도록.”

분명 이것은 그가 작곡한 연주곡이었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어떤 기분으로 이 연주곡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헤르세인은 알지 못했다. 그 작디작은 호기심이 헤르세인을 조금씩 흔들었다. 물어보라고. 이 곡이 어떤 곡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리고 루드비카는 자신의 그 물음에 분명 대답하리란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한 번도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조차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그 연주곡 속에 묻어 있는 것이라면?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 흔들리는 망설임을 눈치 챘는지 루드비카가 헤르세인의 뺨에 그대로 닿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조심스럽게 쓸며 대답했다.

“궁금… 하죠? 제가 왜 이런 음색의 연주를 작곡했는지?”

“그건....”

“배려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헤세라면 모든지 말해주고 싶으니까. 비록 이 연주로 헤세의 기분을 기쁘게는 커녕 슬프게 만들었지만, 오늘이 아닌 다음에 말해줄게요. 오늘은 그저 제가 연주하는 멋진 모습을 헤세에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고 기뻐해줄래요? 제가 헤세의 옆에서 멋지게 연주한 모습만, 오늘만을 기억해줘요.”

그가 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늘만의 연주한 모습만을 기억해주길. 애틋하고도 애절한 감정을 쏟아낸 그 모습이 아닌, 그저 피아노를 연주한 모습만을 기억해주기를. 결국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루드비카는 잔잔히 웃으며 서서히 그녀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가까이 했다.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의 얼굴과 점차 맞닿으려는 그의 촉촉한 입술과 숨결. 그 입술이 온전히 맞닿기 직전, 루드비카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그 어떤 여인들보다 제 눈엔 헤세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혹시라도 그녀가 부끄러움을 타, 입을 열기 전에 루드비카가 먼저 그녀의 입술 위로 제 입술을 덮어 그녀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헤르세인은 아직까지 그와 입술을 맞추는 행위가 심장을 가장 떨리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와 입술을 맞출 때가 가장 달콤하면서도 이 들뜬 기분을 무엇이라 표현해야할까. 헤르세인은 온 몸이 구름에 뜬 것 같은 이 기분을 한 시도 잊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감아 완전히 시야가 닫혀있을 때, 헤르세인은 온전히 루드비카의 입술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헤르세인은 알지 못했다. 루드비카가 들려준 이 연주곡이 첫 연주이자 마지막 연주였음을.

나른한 오후의 시간. 아직까지 스산한 가을의 날씨임에도 루드비카의 품에 안겨있는 헤르세인은 가을이란 날씨가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가슴에 기대어 서로 아무 말 없이 오붓하게 서로의 손을 가지고 손장난을 친다는 것이 또 다른 소박함의 즐거움이었다.

“계속 제가 준 팔찌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머리끈도.”

헤르세인과 소담히 손장난을 치던 루드비카는 그녀의 팔목에 걸려있는 가죽 끈 팔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이 걸어놓은 족쇄 같으면서도 저의 마음이 팔찌에 단단히 걸려있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뺨을 쓸어내리듯 엄지손가락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그런 루드비카의 행동을 조용히 보고 있던 헤르세인은 고개를 들어 그의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를 보며 똑같이 물었다.

“당신도 내가 준 귀걸이 계속 하고 있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닮는다고, 두 사람은 똑같이 대답했다.

“헤세가 준 제 소중한 증표니까요.”

“당신이 내게 준 소중한 증표니까.”

동시에, 서로 똑같은 말을 하리라 생각지 못했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동시에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작은 웃음이 서서히 멎어지고 헤르세인은 여전히 루드비카의 품에 그리고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입술을 열었다.

“저번에 공연장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나요? 제가 왜 그런 슬픈 음색의 연주곡을 작곡했는지.”

“얘기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혹시라도 그 솔직한 이야기가 그의 아픔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헤르세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루드비카는 작게 웃고는 도리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헤세에게 만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 얘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서 어쩌면 아물어질지 모를 과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응.”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 연주곡을 작곡하기 전인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줄게요. 듣더라도 웃으면 안 돼요?”

웃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약속하며 루드비카가 단단히 일러두자, 헤르세인은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절대로 웃지 않겠다는 각오어린 얼굴을 보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 자세를 취하자, 루드비카는 그 모습이 퍽 예뻐 보였는지 눈 깜짝 할 사이 그녀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다 떼어내곤 잔잔히 미소를 그렸다.

“자, 그럼 제가 일곱 살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귀족들에게 있어서 정략혼인은 흔히 있는 일이듯, 당연하게도 당시 젊은 라인하르트 후작역시 정략혼인을 하게 되면서 젊은 정실부인을 맞아들여야 했다. 아슬란 반 클라인 라인하르트. 그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이른 나이에 가주 자리에 앉아 가문의 안정을 위해, 아르카나 백작의 적녀인 이사벨라를 후작부인으로 맞이했다. 서로의 사랑 따윈 없는 가문과의 결속으로 맺어진 관계. 젊은 후작은 정략혼인과 더불어 후계자를 원했고 젊은 후작부인 역시 그에 대한 사랑은 없지만 라인하르트 가의 안주인이 된 이상, 후계자를 반드시 낳아야만 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라인하르트 가문의 후계자가 될 사내아이. ‘클로드’가 태어남으로써 라인하르트 가문은 안정기가 찾아오고 이대로 쭉 평화가 이어질 거라 모두가 그리 생각했다. 후작이 무도회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전까진.

당시, 별 볼일 없는 마르세유 남작가의 적녀에 불과했던 로자르나는 특유의 새빨간 머리색을 뽐내며 아버지와 함께 왕실 무도회에 참석해야 했다. 재력도, 권력도 미미한 마르세유 남작가에 있어서 왕실 무도회에 참석하란 초대장은 그야말로 강요나 다름없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왕실 명을 받들어 참석을 해야만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왕실 초대장은 수백 장이 넘어섰고, 그 수백 장 중, 백장 정도는 무작위로 이름 없는 귀족들에게 보내지는 것이기에 야심이 가득한 이름 없는 가문일수록 무도회는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마르세유 남작가는 적녀인 로자르나는 물론 마르세유 남작 역시, 권력에 큰 욕심이 없는 인물이기에 오히려 그들이 전해 받은 초대장은 그야말로 무거운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그저 얼굴만 비치고 간다 생각하며 남작과 로자르나는 무도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로자르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과 첫 만남을 가지 게 되었다.

그 인물은 바로 라인하르트 후작. 그것은 마치 서로에 대한 끌림처럼 로자르나와 후작은 서로를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를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무도회에서 서로를 보자마자 이토록 강렬한 끌림에 거부할 수 없던 두 사람은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었고 비밀스러운 밀회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다 로자르나는 그 하룻밤의 결실로 그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 잉태의 결실이 바로 ‘루드비카’ 수개월 후, 로자르나는 제 핏줄이자 후작의 핏줄인 루드비카를 품에 안게 되었다.

생각지 못한 핏덩이의 존재로 마르세유 남작은 혼인도 올리지 않은 제 자식이 그것도 라인하르트 후작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급격한 시름에 잠겨야 했다. 이미 후작에겐 정실부인이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이거니와 후작의 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니, 제 딸을 그의 첩으로 둔다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후작의 첩으로 두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혼인도 채 하지 않은 제 딸은 ‘미혼모’인 남작가의 영애가 아니던가.

결국 오랜 생각 끝에 마르세유 남작은 결심을 했다. 제 딸의 손자를 자신의 가문의 아이로 입적시키는 것. 그것이 남작이 자신의 딸과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두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

루드비카가 로자르나에게서 태어 난지 일곱의 해가 지난 날. 루드비카는 그야말로 마르세유 남작가의 귀염둥이이자 막둥이로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을 때였다.

“루카! 어디 있니?! 루카!”

“어머니!!”

일곱 살의 루드비카는 로자르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방실방실 웃으며 숨어있던 수풀 속에서 힘차게 튀어나왔다. 하지만 일곱 살의 어린 소년답지 않게 비스크 인형처럼 레이스가 잔뜩 달린 드레스와 분홍빛 파스텔 톤의 리본이 달린 보닛을 쓰고서 총총총 곱상이 뛰어오는 모습은 이젠 마르세유 남작가에서 흔히 보는 일상의 모습과도 같았다.

“세상에! 로자르나 아가씨! 루드비카 도련님께 또 저런 옷을 입히신 거예요?! 남작님께서 아시면 또 어쩌시려고요!!”

루드비카가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했는지 로자르나의 전속하녀인 마가렛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며 펄쩍 뛰자, 로자르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오히려 제게 달려오는 예쁜 아들을 사랑스럽게 보기 바빴다.

“뭐가 어때서 그러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별말씀 안하시는 걸?”

“아이고 아가씨! 남작님께서 별말씀 안하시는 게 아니라! 말문이 막히실 정도로 기가 막히신 거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도련님의 모습을 누가 봤다간 어쩌시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느덧 제 품에 안긴 어린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춘 로자르나는 흘러내릴 보닛을 다시금 씌워주며 리본까지 제대로 묶고서 루카의 통통한 뺨을 장난스럽게 당겼다.

“누구의 아들인지 정말로 예쁘네. 예뻐.”

“어머니, 저 정말로 예뻐요?”

“그럼. 이 어미의 눈에는 우리 루카가 가장 예쁘단다.”

로자르나가 루드비카가 아들임에도 이렇듯 계속 소녀처럼 여장을 시키는 것엔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처음에는 반 호기심으로 제 아들이 어린 공녀들 마냥 인형처럼 곱상하고 예쁘기에 한번 여자아이처럼 꾸몄더니 그 뒤로 오히려 루드비카가 직접 나서서 여장을 하고 다니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강제적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제 아들의 모습에 로자르나는 그것이 귀여웠다. 어차피 성인이 되고나면 강제로 입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입고 싶다 해도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달랐다.

그저 어릴 때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세길 겸, 루드비카가 하고 싶은 대로 로자르나는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미로서 제 아무리 아들이 어떤 옷을 입던 귀엽고 예뻐 보인다 해도 마르세유 남작은 그런 딸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다.

“로자르나! 또 루드비카에게 드레스를 입혔느냐?!”

“아버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젠 제가 나서서 입히는 것도 아니고, 루카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는 것도 지금 뿐이고요. 지금이야 아직 어려서 여자아이처럼 예쁘장하니 잘 어울린다하지만, 계속 나이를 먹고 크게 되면 그 예쁘장한 얼굴은 어엿한 성인남자의 모습이 될 거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 하는 것이냐? 로자르나! 루드비카가 평범한 아이였다면 나 역시 그러려니 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 루드비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평범한 아이. 그리고 마르세유 남작가에서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루드비카의 존재는 마르세유 남작과 로자르나에게 있어서, 풀 수 없는 문제와도 같았다. 만약 루드비카가 여느 귀족가의 자제들처럼 평범히 성장하고 평범히 배움을 배우면 애초에 이런 근심걱정은 두 사람에겐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라인하르트 가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은 것인지 루드비카는 그야말로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둘을 알면 열을 아는 ‘천재’중의 ‘천재’였다.

무엇을 가르치면 루드비카는 단숨에 외우며 가정교사들을 놀랍게 만들었고, 예절 교육을 한다하면 일곱 살 아이답지 않은 예절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귀족 신사가 갖추어야할 덕목들을 줄줄이 나열했다. 특히나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예술 쪽과 검술 쪽이었다.

차라리 예술 쪽에만 두각을 나타냈다면 두 사람은 안심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검술 쪽에도 뛰어난 두각을 보였을 때, 마르세유 남작과 로자르나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었다. 라인하르트 가문이 어떤 가문이던가. 대대로 상당한 검술 실력과 뛰어난 기사들을 배출한 기사 혈통의 가문이 아니던가. 피는 못 속인다고 루드비카가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작은 목검을 열심히 휘두를 때면 그것이 두 사람에게 더욱 실감토록 만들었다.

낮에만 해도 여자아이처럼 드레스자락을 잡고 총총총 뛰어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여느 사내아이들처럼 먼지가 뭍은 훈련복을 입고서 스승을 따라 목검을 휘두르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로자르나의 개나리색의 샛노란 눈동자에 선명히 담겨졌다. 훈련이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제 곁으로 돌아온 어린 아들을 보며 로자르나는 손수건을 들어 이마에 맺힌 여린 땀들을 꼼꼼히 닦아주며 루드비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카.”

“네, 어머니.”

“검술 훈련은 어떠니? 즐겁니? 혹시 힘든 것은 없고?”

조금이라도 제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답해주길 바랐었다. 하지만 그것은 로자르나가 원하는 대답이었을 뿐, 그녀의 어린 아들은 순수하면서도 해맑은 얼굴을 하며 크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검술 훈련할 때가 제일 즐겁고 좋아요!”

누가보아도 외모는 제 모습과 판박일 정도로 닮았을 터인데 이토록 검술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후작이 떠오를 정도로 루드비카는 그의 또 다른 면과 많이 닮아있었다. 그것이 로자르나의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움으로 뒤바뀌어 로자르나는 그 모습을 루드비카에게 내색할 수가 없었다.

완전한 밤하늘이 찾아오고 깊은 달이 뜬 늦은 밤. 로자르나는 침대에서 곤히 잠에 빠진 제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혹시라도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루드비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 영락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한편으론 후작의 모습을 닮은, 또는 그의 머리색을 가진 루드비카를 로자르나는 가끔씩 상상해보곤 했다.

‘루카, 내 아가… 만약 네가 그 사람을 빼 닮았으면 나는 너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나는…

.’

쓸데없는 생각임을 알면서도 로자르나는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아비가 없는 자식.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비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기특하게도 그것을 물은 적이 없었다. 은연히 마르세유 남작가에선 그것에 대한 금기가 알게 모르게 있었지만 루드비카는 고맙게도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눈치가 빠른 제 아들은 자신을 배려하고자 묻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로자르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죄책감만 커지게 만들었다.

“미안하구나, 루카. 이 어미의 이기심으로 널 지금까지 아비 없이 자라게 한,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렴.... 미안해, 아가.”

로자르나는 매일같이 밤이 되면 루드비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곤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보내곤 했다. 그러나 로자르나는 한 가지, 눈치 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그녀의 발걸음소리에 언제부턴가 루드비카는 조용히 자는 척을 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지를 전부 듣고 있음을.

로자르나가 저 홀로 루드비카를 키워 온지 7년의 시간. 거의 루드비카의 존재를 숨기다시피 로자르나는 하나 뿐인 제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제 손으로 키워왔다. 처음엔 루드비카를 임신했을 때, 로자르나는 이 사실을 후작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끝내 그리 할 수 없었다. 그와의 사랑은 분명 서로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었지만 그는 가문을 이끄는 가주이자 엄연히 정실부인이 있는 몸. 더불어 그에게는 이미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는 적자 클로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운명을 믿지 않았다. 귀족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녀 역시 정략혼인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 따윈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운명처럼 후작을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반하게 되는 동시에 로자르나의 운명을 단숨에 바꾸어 버렸다. 제 스스로가 선택한 사랑이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과 미래.

만약, 제 자신이 그와 어울리는 위치였다면 처음부터 그의 연인이었다면 처음부터 그의 옆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로자르나는 후작을 향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부터가 죄의 시작이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의 옆자리. 바랄 수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 그것이 로자르나가 선택한 사랑이자 감히 넘볼 수 없는 머나먼 사람이었다.

지금에서야 다시 생각하면 루드비카를 낳은 것이 다행인 선택이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자르나는 뱃속에 있는 루드비카의 존재를 후작이 알게 되어 혹여나 빼앗기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그가 자신을 혹시라도 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로자르나를 흔들었다. 그와의 사랑으로 가지게 된 사랑의 결실이라지만, 아이의 몸속에 흐르는 핏줄은 결국 고귀한 라인하르트 가문의 핏줄. 그녀의 뱃속에는 고귀한 핏줄이 자라는 동시에 어쩌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핏줄일지도 몰랐다.

후작의 사랑과 그 하룻밤으로 인한 생명의 씨앗이 뱃속에서 꿈틀거릴 때면 로자르나는 그 경계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후작의 사랑을 선택한다면 아이는 포기해야했고 아이를 선택하면 후작의 사랑을 포기하는 동시에 평생을 후작을 그리워하며 살아야할지도 몰랐다. 그것이 감히 정실부인이 있는 남자를 감히 마음에 품은 죄였으니까. 그 어떤 귀족조차 감히 ‘첩’으로 또 다른 부인을 두는 귀족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나 고위 귀족들에게 있어, ‘첩’이란 것은 그들에게 있어 ‘흠집’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자르나는 끝내 선택해야 했다. 모두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평생 그와의 사랑을 매일 같이 밀회를 나누는 나날이 아닌, 그의 사랑을 포기하는 대신 뱃속에 품은 이 씨앗을 지키기로. 어쩌면 제 헛된 이기심일지도 몰랐다. 아이를 낳는 동시에 그와 지난날의 달콤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기억을 그저 꿈으로만 안주하지 않기 위해. 그러나 그 이기심을 떠나 감히, 어떻게 뱃속에서 자라는 그 작은 생명을 감히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로자르나는 결국 임신 사실을 숨기며 배가 더 불어오기 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골 별장으로 완전히 숨어버렸다.

그렇게 꽁꽁 숨어살아 루드비카를 낳은 지 7년의 시간. 로자르나는 이 조용한 평화가 부디 계속되길 바라고 또 바랐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

“루카, 조심하렴.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보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저 피아노 콩쿠르에서 또 우승했어요!!”

그 작은 손에 들려있는 묵직한 트로피가 아직 어린 루드비카가 들기에는 무리인지 루드비카는 끙끙대며 기어이 트로피를 들고서 로자르나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로자르나의 전속하녀 마가렛이 짐짓 손을 내저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어휴, 아가씨 말도 마세요. 제가 도련님 대신 트로피를 들겠다고 했는데도 글쎄, 도련님이 굳이 저 무거운 트로피를 들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랬어? 루카, 마가렛 말이 사실이니? 어찌 마가렛한테 들라 하지 않고? 무거웠을 텐데.”

어느새 테이블 위로 짐짓 화려한 황금색을 뽐내고 있는 트로피가 그녀의 시선에 닿자, 루드비카는 오히려 방긋 방긋 웃으며 로자르나에게 애교를 부리듯 몸을 베베 꼬았다.

“헤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들고 싶었는걸요? 콩쿠르에서 제가 우승하고 받은 트로피인데 제가 직접 들어서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의미가 있죠. 어머니 저 잘했지요? 빨리, 잘했다고 예쁘다고 해주세요!”

이제는 대놓고 칭찬을 바라는 아이의 순진한 눈망울에 로자르나는 마가렛을 흘끔 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기며 저와 닮은 새빨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잘했어 내 아들. 그리고 우승까지 하니 이보다 더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겠니? 이리오렴 루카.”

“어머니!”

로자르나가 팔을 벌려 제 품에 아이가 뛰어들길 바라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품으로 루드비카가 뛰어들어 그 품에 안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자르나는 이 따스한 평화가 지속될 거라 여겼다. 불현듯 제 앞에 나타난 후작을 보기까진.

루드비카와 함께 작은 정원을 거닐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로자르나는 부리나케 달려오는 마가렛의 모습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도 덤벙거리는 그녀의 하녀이지만, 유독 그날따라 마가렛의 모습은 덤벙이기보단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며 달려오다 넘어진 것도 까먹을 만큼 로자르나를 향해 외쳤다.

“로자르나 아가씨 큰일 났어요! 그,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분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니?”

“라, 라인하르트 후작각하요!!”

“...뭐?”

대체 그가 이곳을 어찌 알고 찾아왔단 말인가. 아니, 후작이기에 이곳 별장하나 찾는 것쯤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에게서 혹시라도 루드비카를 빼앗길까봐 도망치듯 이곳에서 숨어 지낸지 7년이란 시간. 만약, 그가 저를 잊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별장을 들켰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후작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단 한 번도 로자르나를 찾지 않았다. 혹시나 저를 찾을까하는 불안감에 집안의 하녀를 시켜 그의 근황을 알아보았으나 후작은 마치, 저 같은 사람을 단숨에 잊기라도 하듯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만이 전부였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느낀 감정은 아픔과 후회, 자신을 향한 한심함이었다. 그리고 루드비카를 향한 안타까움과 미안함까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건만 그 사랑은 그때에만 불이 활활 타오르다 꺼진 것처럼 다 식어버린 재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래서야 제 자신만 그를 향한 사랑만 절절했을 뿐이지 않던가. 그 뒤로 로자르나는 오로지 루드비카를 키우는 것에만 전념했다.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루드비카를 볼수록 저와 꼭 닮아가는 아들을 볼수록 로자르나는 그렇게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현재. 그를 향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세월이, 시간이 약이 되듯 로자르나는 첫사랑을 알게 된, 순진하던 그 시절의 마음은 이미 사라져 버린지 오래였다. 분명 그 순진하던 순수하기 짝이 없던 마음이 없어졌다 여겼건만, 그가 다시 그것도 이곳에 직접 왔다는 마가렛의 목소리에 로자르나는 다시 한 번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렴풋이 눈치 챘는지 제 손을 꼭 잡는 작은 손길에 로자르나는 정신을 차리고서 마가렛에게 당부했다.

“마가렛, 루드비카를 부탁할게.”

“아가씨….”

“루카, 아무래도 중요한 손님이 온 것 같으니 잠시 마가렛이랑 꼭 같이 있어야 한단다. 알았지?”

혹시라도 그 어린 손이 자신을 붙잡을까봐 로자르나는 마가렛에게 루드비카를 떠넘기곤 후작이 기다리고 있을 장소를 향해 서둘러 움직였다. 하녀들의 뒤를 따라 응접실에 도착한 로자르나는 무려 7년 만에 보는 후작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너무도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라서 일까. 방금 전까지 그토록 떨리던 심장의 소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예전과 달리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보니, 로자르나는 선뜻 먼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서로가 한참동안이나 말없이 식어가는 찻잔만을 구경하고 있을 쯤, 먼저 입을 연건 로자르나가 아닌, 매서운 목소리의 후작이었다.

“로자르나. 내게 할 말이 없소?”

후작의 목소리는 마치, 꽁꽁 숨어 살던 죄인을 찾아 죄를 묻는 집행자와도 같았다. 온전히 자신을 담아내던 잿빛 눈동자는 이미 한줌의 재처럼 얼음마냥 식어 버린지 오래. 그 눈동자는 분명 자신을 담아내고 있음에도 자신을 향한 애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지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는 국왕의 충실한 신하이자 귀족들이 떠받드는 제일의 귀족, 그리고 한 없이 차갑기만 한 라인하르트 후작만이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다짜고짜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인사대신 할 말이라니요. 저는 각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를뿐더러 제가 각하께 해드릴 말은 전혀 없습니다.”

후작이 저리 나오니, 로자르나 역시 마르세유 남작가의 적녀로서 최대한 예전 같은 마음은 죽이고 또 죽이며 냉정함으로 응수해야 했다. 적어도 그의 눈동자에 자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그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겨울의 눈동자에 로자르나는 더 이상 후작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건, 감정이 없는 후작과 그저 모정만이 남아있는 로자르나, 두 사람 뿐이었다.

“7년 동안 내 눈을 속이고 내 핏줄을 숨긴 것이 과연 그대가 잘 한일이라 생각 하는 건가?”

“숨기다니요? 7년 동안 제가 각하께 무엇을 숨겼단 말인지요? 애초에 저와 각하의 사이는 그리 각별한 것도 아니지 않았나요?”

“로자르나, 그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가문의 힘을 써서라도 그대의 아이… 아니, 그대와 나 사이에 태어난 내 핏줄을 강제로 데려가야 솔직히 털어놓을 것인가!”

후작이 더 이상 참기를 포기하고 그녀를 향해 외치자, 로자르나는 되레 눈을 홉뜨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7년. 루드비카와 함께 숨어 지내는 그 순간부터 로자르나는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예상하고 있던 건지도 몰랐다. 그는 라인하르트 후작가의 가주이자 아무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높은 권력의 사람. 그의 명령 한 마디라면 이 세상에 갖지 못할 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후작은 그 어떤 것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시 가문을 이끄는 가주로서, 후계자의 아버지로서, 정실부인의 지아비로서 후작은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자신 따윈 진즉에 잊어버렸듯이.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평화로이 살고 있던 이가,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 하는 말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지금까지 깊숙이 숨어있던 그 불안감이 후작의 외침에 로자르나의 눈을 크게 흔들었다.

“각하의 아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각하의 핏줄이라고? 각하께서 몰래 제 뒤를 케넨 정보꾼들이 그리 말합니까? 각하의 핏줄이라고?”

“로자르나!”

“무슨 생각으로 이곳까지 직접 찾아오신 건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말해드리지요. 각하의 핏줄은 물론, 그 아이는 라인하르트 가문과 전혀 무관한 아이입니다. 각하의 핏줄이 아닐뿐더러 그 아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르세유 남작가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자 제 아버지의 늦둥이일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렸으니, 각하.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지요.”

후작의 매섭던 그리고 차갑던 눈빛은 아까보다 수그러졌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느새 분노와 원망이 깃들어있었다. 거의 노려보듯이 그녀를 쳐다보던 후작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한발자국 발을 떼다, 무슨 생각인지 제자리에 발을 돌려놓고는 나지막이 입을 뗐다.

“로잔.”

몇 년 만에 그의 입에서 불리 우는 애칭이던가. ‘로잔’ 오직 단 한사람이 부를 수 있는 애칭이자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저가 허락한 유일한 사람. 하지만, 끝내 로자르나는 후작을 향해 눈을 마주치지도, 절대로 입을 여는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았다. 한때는 열렬히, 그리고 지독히 사랑했던 남자. 그러나 이제는 철부지 같던 그 어린 마음은 이곳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과거의 지울 수 없는 편린. 로자르나는 결코 흔들리고 싶지 않아 끝내 눈을 고이 닫아버렸다. 아니, 완벽히 닫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니요? 설마 저분이 제 아버지에요?”

이곳엔 없어야할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로자르나의 닫히려던 눈을 저절로 번쩍 뜨게 만들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선이 열린 문으로 향해 있을 때는 이미, 후작을 가로 막은 그 앞에는 저와 쏙 빼닮은 붉은 머리칼의 루드비카가 또랑또랑한 눈으로 후작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로자르나는 당장이라도 루드비카를 자신의 품에 숨기고자 문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만, 오히려 저를 가로 막는 후작으로 인해 로자르나는 루드비카를 제 품에 숨길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놀라게 한 후작의 말에 로자르나는 흔들리는 눈으로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뒤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마르세유의 성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름은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루드비카, 제 이름은 루드비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찌 말끝을 흐리는 것이지? 상관없으니 대답해 보거라.”

“정말로, 정말로 각하가 제 아버지인가요? 정말로?”

티끌하나 더러움이 묻어있지 않은 순진무구한 눈동자.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귀족가의 자제들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의 눈은 이토록 맑을 수가 없었다. 후작은 아이의 눈과 눈을 맞추기 위함인지 처음으로 제 후계자에게 조차 해주지 않던 한쪽 무릎을 꿇어, 아이의 붉은 머리칼을 흘끗 보며 대답했다.

“내 소개를 아직 안했구나. 내 이름은 아슬란 반 클라인 라인하르트. 네 말처럼 내가 바로 네 아비다. 루드비카.”

“어머니.”

“왜 그러니? 루카?”

“어머니, 반한다는 건 대체 뭔가요?”

후작이 별장을 다녀간 후, 지속되던 일상의 평화는 한순간에 깨졌지만 깨진 평화의 파편들은 다시 하나 둘 조각을 맞춰가며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루드비카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가 아닌 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그날부터 루드비카에겐 작은 변화가 있었다.

분명, 그날 그 자리에서 로자르나는 후작이 루드비카의 친부임을 부정했지만, 루드비카의 등장과 함께 후작은 제 아들에게 그 정체를 밝히고야 말았다. 마르세유 남작가에선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이자 후작의 이름. 결국 후작이 나타남으로서 그 금기가 루드비카에게 직접적으로 깨져버리자 로자르나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불안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혹시라도 루드비카가 저를 버리고 제 아비와 함께 이곳을 떠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왜 후작이 친부임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하는 어린 아들의 혹시나 모를 외침과 그런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루드비카가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의 절망과 원망. 로자르나는 과연 그 무거운 사실을 고작 7살의 아이가 버틸 수 있을지, 그 상처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우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의 이기심 하나로 아이는 태어났고 제 아비의 정체를 꽁꽁 숨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어미인 저를 루드비카가 어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후작은 루드비카를 끝내 데려가지 않았다. 아니, 데려가지 못했다. 그것은 루드비카가 후작의 손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네 아비다. 루드비카, 너는 내 핏줄이니 나와 같이 라인하르트 후작가로 가지 않겠느냐? 그곳엔 네 형도 있단다."

"형… 이요? 저의 형님이 계신단 말씀인가요?"

"그래, 그리고 네가 라인하르트 후작가로 오게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루드비카, 이 아비와 함께 가겠느냐?"

루드비카를 향해 내민 후작의 손이 저토록 악마가 유혹하는 검은 손으로 안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로자르나는 그런 후작의 행동에 말릴 수도 루드비카를 향해 애원할 수조차 없었다. 어미를 선택할지, 아비를 선택할지, 그것은 오롯이 루드비카의 몫. 제 아무리 아직 7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라 해도 루드비카는 또래의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다. 무엇을 판별하고 분간할 줄 이미 알고 있으며 머리가 너무나 명석한 덕분에 루드비카는 이미 이른 나이에 어른들의 세계, 특히나 귀족 세계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만약, 루드비카가 후작을 선택한다 해도 로자르나는 그 선택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온전히 루드비카가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자, 후에 성인이 된다면 후작의 재력과 권력이 받쳐주기에 루드비카의 미래는 이미 안정이 보장된 셈이었으니까.

로자르나는 확신했다. 제 아들이 후작의 손을 틀림없이 잡을 것이라고. 이제 이 어미의 손을 떠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루드비카는 오히려 맑은 눈으로 저를 향해 마주치곤 싱긋 웃으며 후작의 손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여태까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한번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자다가 꿈에서 잠시 깨어났는데 밤중에 어머니가 제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계셨죠. 저는 괜히 어머니의 그 손짓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자는 척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가 깨어난 것도 모르시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안하다고…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한 본인을 용서하지 말라고. 각하, 저는 그때부터 감히 어머니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있어 제가 얼굴도 모를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분명 슬픈 표정이 가득하실 거니까요. 하지만 각하, 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지 얼굴을 가지신 아버지인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그게 너의 선택인 것이냐? 루드비카."

"네, 저는 계속 어머니의 곁에 있고 싶어요."

후작은 루드비카의 선택에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루드비카를 향해 미련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어린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듯 후작은 완전히 돌아서 떠나갔다. 후작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로자르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제 아들을 봐야만 했다.

"루카… 왜 후작각하를 따라가지 않고 이 어미의 곁에 남은거니? 어쩌면 널 위해서라도 좋을 기회였을 텐데…."

"저는 어머니가 더 좋으니까요. 후작각하께선 이미 가족이 계시지만 어머니 곁에는 제가 떠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할아버지 밖에. 어머니에겐 저 뿐이 듯이 저에게도 어머니뿐인걸요?"

"...아가."

지금까지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를 다 쏟아내듯 로자르나는 루드비카를 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이토록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있던가? 그것도 어린 아들의 앞에서.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그 날의 기억일지도 몰랐다. 두고두고 저의 어린 아들이 자신을 선택해준 것에 감사히 생각하는 것은 물론, 루드비카를 위해서라도 로자르나는 비록 가문의 재력이 후작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이 가문을 온전히 루드비카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임을 그날 그렇게 다짐했다.

“어머니?”

“아, 미안.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질문을 잊었구나.”

“아이참 어머니도.”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

“반한 다는 건 대체 뭔가요?”

저도 모르게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린 로자르나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루드비카의 질문에 최대한 집중했다. 하지만 집중할 사이도 없이 다시 한 번 후작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로자르나는 아주 오래전, 무도회에서 첫눈에 반했던 후작의 모습을 그리며 아직까지 호기심 가득할 나이인 루드비카에게 그때의 감정 그대로 대답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어미는 너의 아버지를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기분 이었다고 할까? 그리고 막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지. 또, 주변엔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 장소가 어디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심장을 죽을 만큼 두근거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지. 아마 그게 반했다는 것이 아닐까?”

“으음, 뭔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정작 질문을 한 루드비카는 로자르나의 대답이 어려운지 이해하기 위해 끙끙거리며 고개를 기울이자, 로자르나는 그런 루드비카의 모습에 픽 웃고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루카.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한 거니?”

“으음, 요즘 마가렛이 가져다주는 동화책을 이것저것 다 읽어보고 있는데,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이나 왕자님들은 전부 서로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는 거 있죠? 아무리 그 부분을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본 건데… 혹시 제가 괜한 말 한건 아니죠?”

태양과도 같은 동그란 눈에는 혹시 제 심기를 어지럽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한가득 묻어있었다. 로자르나는 처음엔 제 아들이 머리가 너무 명석하고 눈치가 빨라 남다른 아이라는 뿌듯함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눈치를 은근히 보며 혹시라도 저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하는 눈치를 보는 아들을 보니, 머리가 아무리 명석하고 눈치가 빨라도 아이는 역시 그 나이의 아이다워야 한다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로자르나는 괜스레 루드비카의 한쪽 뺨을 쭉 늘리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난기어린 얼굴을 하며 씨익 웃었다.

“아직은 네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그리고 괜히 이 어미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아으으 어어이 뺘이 너우 아하여! (아으으 어머니 뺨이 너무 아파요!)”

“루카, 언젠간 너도 성인이 되고나면 이 어미처럼 사랑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란다. 그러니 아직은 네가 그렇게 자세히 생각할 필요도 이해할 필요는 없단다. 그것은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이니까.”

기대가 되었다. 점차 성장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다 큰 제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어질지.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혼인을 하고자 저에게 소개를 시켜줄 그 모습과 그 미래를 상상하니, 아직 그 미래가 한참임에도 로자르나는 어서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3년이 지나고, 루드비카는 10살이 되었다. 특히나 이미 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 천재 소리를 듣고 살던 루드비카는 이미 모든 학문을 깨우쳤고, 피아노 실력과 검술의 실력은 더욱 일취월장할 정도로 향상이 되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실력이 천재성으로 향상되는 반면, 2년 전부터 마르세유 남작가의 사정은 좋지 못했다.

2년 전, 심장발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마르세유 남작은 미쳐 유언장조차 제대로 남기 못한 채로 눈을 감아버렸고, 마르세유 남작가는 그야말로 가문을 이끄는 가주의 자리가 비어진 상태였다. 루드비카는 아직 성인식을 치루지 않은 어린 나이였으며 왕실 법도로 성인식 나이가 정해진 것은 15세. 아직까지 루드비카의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결국, 임시가주로 로자르나가 그 자리에 앉아 가장으로서 가문을 이끌어야 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로자르나가 임시가주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안고야 말았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몸은 물론, 어떤 날은 제대로 서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로자르나는 불치병에 점점 침대위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사용인들의 도움과 마가렛의 조언으로 함께 간단한 서류에 서명을 하기까지. 루드비카가 짊어질 짐은 어린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아직 어렸었다.

이젠 남작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면서 사용인들은 대거 다른 귀족가로 옮겨갔고, 남작가에 남아있는 하녀라곤 로자르나의 전속하녀인 마가렛이 전부였다. 루드비카가 검술 훈련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자르나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작성한 작은 서류를 마가렛에게 넘기며 당부했다.

“마가렛….”

“…예, 아가씨.”

“혹시… 혹시라도 내가 완전히 눈을 감거든 꼭 이것을 루드비카에게 전해주렴.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이제 루드비카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너 밖에 없구나….”

“…아가씨.”

점점 쇠약해져가는 로자르나의 모습에 마가렛은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그녀의 서류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하지만 그 슬픔도 잠시, 로자르나의 앞에 다시 한 번 후작이 나타나면서 루드비카와 로자르나의 이별은 갑작스레 찾아왔다.

“루드비카를 내가 데려가겠소.”

“그게 무슨... 아, 안 돼… 안 돼요! 각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곤 루드비카를 데려가겠다니요!! 제게서 그 아이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제 저는 그 아이의 곁에 있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루드비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데려가겠소.”

“아, 아슬란! 안돼요! 제발! 제발!!”

갑작스러운 후작의 변심. 로자르나는 몸이 성치 않은 병자의 몸임에도 루드비카를 데려가겠다는 후작의 매정한 그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바지자락을 붙잡고서라도 말려야 했다. 어떻게 키운 자신의 아이던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소중히 기른 제 자식이던가. 후작에겐 클로드란 멀쩡한 후계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몇 년 전 그는 이미 루드비카의 선택에 손을 놓으며 미련 없이 돌아서지 않았던가. 그런데 갑자기 데려가겠다니.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 어머니!! 싫어요! 이거 놔주세요! 어머니가 아프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루카! 내 아가! 루카!!”

힘없이 다리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로자르나는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루드비카에게 닿지 않았다. 후작의 손에 끌려가다 시피, 저 만을 부르며 어떡해서든 제 손을 잡으려던 그 작은 손을 로자르나는 끝내 붙잡을 수 없었다.

후작으로 인한 생이별. 루드비카는 로자르나의 가녀린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라인하르트 가문에 들어서야 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끌고 온 후작에게서 처음 만났던 그때와 전혀 다른 매정한 말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다. 실질적으로 너는 비공식적인 ‘사생아’이나 서류상으론 내 후작부인인 이사벨라의 핏줄이자 ‘차남’으로 등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네 위치를 생각해 네 생모의 이름을 절대로 언급해선 안 된다. 알겠느냐?”

갑작스럽게 뒤바뀌어버린 환경변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뻔히 살아있음에도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작부인이 그것도 서류상에 적혀진 자신의 어머니란 사실을 루드비카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멀쩡히 자신의 어머니는 살아있건만 어째서 후작부인을 진짜 어머니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3년 전에 만난 후작에겐 처음 만나는 아버지란 호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이 전혀 달랐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하는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반문했다.

“싫어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싫습니다. 싫어요! 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큰 죄인가요? 제 어머니는 오직 로자르나 벨 하이트 마르세유! 단 한 사람 뿐 입니다!”

피가 이어진,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여인이자 자신의 어머니. 루드비카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이곳에 온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모습이 그토록 아른거릴 수가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부르던 가엾은 어머니. 안 그래도 불치병으로 인해 침대위에서 꼼짝할 수 없는 어머니이건만 루드비카는 이곳에 마음을 붙이기는커녕 제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루드비카의 생각을 무심히 지워버리듯 후작은 감정조차 없는 잿빛의 눈동자를 바로 하며 루드비카를 세뇌하듯 같은 말만 딱딱히 반복했다.

그것은 마치 루드비카가 후작의 말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그 어디에도 여러 개의 정답 따윈 없다는 대답이나 마찬가지였다.

“잊지 말거라.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라인하르트의 피를 잇는 몸이자 나의 둘째 자식. 너는 더 이상 마르세유 남작가의 사람이 아닌, 라인하르트 후작가의 사람이며 너의 어미는 로자르나가 벨 하이트 마르세유가 아닌, 이사벨라 반 셰를린 라인하르트가 네 어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넌 더 이상 마르세유 남작가의 아들이 아니거니와 내 정실의 핏줄임을 선언한 것이다. 루드비카.”

루드비카가 로자르나와 떨어져 라인하르트 가에 살게 된지도 또 다시 3년. 제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 루드비카는 하녀나 시종들을 시켜 몰래 마르세유 남작가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는 다시 루드비카의 손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듯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후작은 루드비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전부 꾀고 있었다. 덕분에 3년 전에 간신히 몇 번 주고받았던 편지를 빼고는 그 뒤로 루드비카는 두 번 다시 편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느덧 루드비카는 13살이란 어엿한 나이를 차고 있었다.

루드비카의 입적된 서류상으론 생모라 불리는 이사벨라. 루드비카는 지금도 그녀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의 존재는 후작부인에게 있어서 가문의 치부 같은 존재이자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는 존재가 분명함에도 후작부인은 루드비카를 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닌, 그 사이의 경계선에서 후작부인은 루드비카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네가 그 루드비카이구나. 각하께 얘기는 들었단다. 비록, 너의 생모는 아니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나는 너를 최대한 예우해줄 것이다. 너 역시, 나를 이 집안의 부인으로서 존중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잘 부탁하마. 그리고 부디, 라인하르트 가문의 차남으로서 네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할 것이다. 알겠느냐?"

라인하르트 가문에 살게 되면서 루드비카는 그녀를 종종 마주쳤지만 그녀는 짧게 인사만 남길 뿐, 가문에 대한 애정도 후작에 대한 사랑은 더욱이 없었다. 또한 그녀는 친 아들이자 장남인 클로드에게조차 애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후작부인으로서 가문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네가 아버지의 ‘사생아’이구나."

후작부인 만큼이나 기억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루드비카에게 있어서 클로드와의 만남은 이보다 더욱 강렬할 수 없었다. 처음마주하자 제게 내 뱉은 그 직설적인 말이 뒤늦게 서야 실감될 정도로 루드비카는 그날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가문에선 사용인들 모두가 입단속을 철저히 하는지 내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루드비카의 존재를 반기지 않았다.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껄끄러운 존재이자, 그들도 후작이 말하기 전까진 전혀 몰랐던 ‘사생아’란 존재.

거기에 엄연히 후작에겐 정실부인과 어린 후계자가 있음에도 바깥에서 나온 권외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하지만 후작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루드비카가 공식적으로 라인하르트 후작가의 ‘차남’이 된 이상, 사용인들은 후작의 말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법’이었다.

다만, 그들은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후작의 명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기에 그 법이 먹혀들었지만 가문의 적통의 피를 이어받은 후계자이자 그것도 정실부인의 소생인 클로드만큼은 후작의 소리 없는 ‘법’이 통하지 않았다.

"아,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루드...."

"형님이라고? 사생아인 네가, 지금 내게 형님이라 부른 것이냐?"

분명 말에는 은근 뼈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장남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 건조한 눈빛 속에 루드비카는 클로드가 저를 어느 정도 달가워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클로드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혈통과 이미 후계자로서 키워졌기 때문에 가문의 친인척들은 물론, 수많은 귀족들조차 이미 어린 클로드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당했다. 또한, 라인하르트 가문답게 기사의 피까지 진하게 이어받았는지 클로드는 고위 귀족들 사이에서, 사용인들 사이에서도 검술 능력이 뛰어난 수재로 칭찬이 자자했으며, 클로드가 루드비카와 처음 만났을 당시, 클로드의 나이는 13살. 이미 왕성에선 최연소 견습기사로 발탁된 상태였다.

그날 이후로 루드비카는 ‘천재’라는 것을 버리는 동시에 또 다른 많은 것을 놓아야만 했다. ‘차남’이란 위치 때문이 아닌, ‘사생아’에 불과한 제 자신이 라인하르트 가문의 눈에 띄어봤자 좋을 것이 없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토록 좋아하고 놓고 싶지 않았던 검을 손에서 내려놔야만 했다. 특히나 최연소 견습기사로 발탁된 클로드가 있는데, 사생아에 불과한 자신이 검을 가지고 클로드의 눈에 찍히기라도 한다면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갈 것임이 분명했다. 더욱이 서로 친모의 핏줄은 다를 지언정, 반쯤은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이기 때문일까? 루드비카는 클로드의 싫은 내색이 분명하는 눈짓에도 직설적인 표현에도 이상하게 클로드는 싫지 않았다.

오히려 제 존재를 각인시키는 클로드의 모습이 솔직해서 좋아 루드비카는 검 대신 피아노 쪽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검을 손에서 내려놓은 지 3년. 라인하르트 가문에 들어와 그때부터 쭉 검 대신 피아노만 만지던 루드비카는 오랜만에 저를 부르는 후작의 부름에 집무실로 향해야 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니를 못 본지 3년의 시간. 그 3년의 시간동안 루드비카는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받으며 완벽한 후작가의 차남으로서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바꿔야 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평소대로 썼던 말투는 점잖아 졌으며, 여전히 13살답지 않은 나이임에도 루드비카는 수도 특유의 귀족말투와 높임말을 쓰며 후작을 응시했다.

“내가 널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 제가 각하께 그 답을 듣고자 이곳까지 부름에 찾아온 것이겠지요.”

저에겐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로 서류만을 응시하는 후작의 모습을 루드비카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눈에 담아냈다. 처음 후작을 보고 자신의 친부임을 알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환희. 하지만 그 감정은 한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결정처럼 현재 루드비카가 후작을 보는 감정은 건조함과 친부이면서도 친부 같지 않은, 온전히 후작이란 자리에 가문을 이끄는 가주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사가 그러더구나. 아직도 네가 피아노 따위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의 재주가 그것밖에 없으니, 피아노라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잔 재주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검을 잡고 클로드의 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떠하냐.”

“검을… 말입니까?”

“그래, 라인하르트 가문의 피를 잇는 이상, 너 또한 검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 클로드는 이미 네 나이 때에 최연소 견습기사가 되었다. 지금 시작한다면 조금은 늦을지 몰라도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구나.”

루드비카는 후작에게 자신이 왜 검을 잡지 않는지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라인하르트 가문에 들어온 이상, 자신의 미래는 후작의 한 마디에 뒤 바뀔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그동안 이곳에서 후작의 말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후작이 바라는 이상적인 차남으로 뒤바꾸었던가. 괜히 검을 잡아 클로드의 신경을 쓰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 한번 검을 내려놓으니 그 기쁨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검에 대한 별다른 감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놓을 수 없는 유일한 것. 피아노 뿐.

로자르나가 가장 좋아한 루드비카의 재주이자, 그나마 남은 친모와의 추억이 있는 연결고리. 루드비카는 단호한 얼굴로 후작의 원하는 뜻을 거부했다.

“죄송하지만 각하, 저는 검술에 대한 소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어머… 아니, 마르세유 남작가에 있을 때 몇 번 잡아본 적이 있으나 스승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르세유 남작께서도 그런 제 검술 소질을 포기하셨을 정도이고요. 그러니 그나마 제가 잘하는 피아노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고려라도 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거절하는구나. 하지만 이번만 기회가 아니지.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니. 지금은 피아노에 집중하고 싶을지 몰라도 내일, 혹은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할 것이다. 너는 라인하르트의 피를 이은 아이이며 우리 가문에선 절대로 피아니스트를 만들 생각은 없으니.”

한 마디로 지금은 생각이 어려 넘어가주겠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후작의 반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간이 흘러 루드비카가 이제 막 성인식을 치른 15살이 되던 해. 라인하르트 후작가에 폭풍이 들이닥쳤다. 여전히 로자르나의 얼굴을 못 본지 어느덧 5년. 나름 술수를 써, 마르세유 남작가에 편지를 무사히 보내긴 했지만 루드비카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을 수가 없었다. 혹시 어머니가 저를 잊은 것이 아닌지, 그것이 불안해 루드비카는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며 답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루드비카의 앞으로 도착하는 답장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 불안감과 우울이 겹쳐 평소처럼 피아노가 손에 잡히지 않던 루드비카는 우연히 저택 문 앞에서 우편부에게서 후작에게 전달될 편지를 받는 집사 헨드릭을 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헨드릭이 편지를 꽤 많이 받는구나 하고 그러려니 넘어갔겠지만, 편지의 양이 많아서인지 헨드릭은 단 하나의 편지를 떨어트리곤 그것을 눈치 챌 겨를도 없이 집무실로 향하고 말았다. 루드비카는 서둘러 헨드릭에게 바닥에 떨어트린 편지를 전해주고자 그 편지를 손에 든 순간, 눈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이름을 읽어야만 했다.

“…마가렛?”

이미 헨드릭에게 전해줄 생각은 까맣게 잊어 버린지 오래.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킬세라 루드비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 빠르게 마가렛이 보낸 편지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루드비카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인하르트 후작각하께.

안녕하십니까, 후작각하. 로자르나 아가씨의 전속하녀인 마가렛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르세유 남작가의 재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 후작각하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 이렇게 결례를 무릎 쓰고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본래라면 루드비카 도련님께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나 각하께서 제가 도련님과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니, 이렇게라도 각하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 글로 써서 보냅니다.

로자르나 아가씨께서 불치병으로 돌아가신지, 벌써 5년입니다. 루드비카 도련님께서 라인하르트 가문으로 가신 뒤로, 아가씨께서는 서있기 조차 힘드신 몸임에도 마르세유 남작가의 재산을 도련님께 전부 물려드리고자 빠르게 일을 처리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것을 각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적기까지 망설였지만, 루드비카 도련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물색하셨는지 아가씨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가씨가 돌아가신 뒤, 감히 하녀인 주제에 이런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이 결례인줄 잘 알지만, 저는 더 이상 각하의 명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각하께서 루드비카 도련님을 어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나, 저는 본디 로자르나 아가씨의 전속하녀….

이제 루드비카 도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도련님께 속일 수 없는 일이며, 계속해서 도련님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죄스럽고 도련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더욱이 감히 하녀인 제가 아가씨가 돌아가신 뒤로도 마르세유 남작가의 재산을 계속 맡고 있다는 것도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 듯, 싶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각하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로자르나 아가씨의 전속하녀, 마가렛 올림.』

“거짓말....”

루드비카는 과연 이 편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오로지 이 편지에 관해 알고 있는 후작에게 직접 묻고자 루드비카는 당장 집무실로 뛰다시피 향했다. 집무실로 향하기 전, 헨드릭은 거의 하얗게 질려있는 루드비카의 얼굴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집무실 문을 막아섰지만, 루드비카는 헨드릭을 밀치고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분명 문을 시끄럽게 열었음에도 후작이 표정하나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에 루드비카는 그럼에도 인내하며 또박또박 물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편지! 사실입니까?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고요!”

“네 어머니인 이사벨라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분명, 눈앞에 들이밀어진 편지를 봤음에도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진 것임을 알면서도 후작은 외면했다. 결국, 그 모습에 루드비카는 이성의 끊을 놓아버리며 후작에게 소리쳤다.

“무려 5년씩이나 저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각하의 손에 이끌려 모든 것을 통재당한 채로 이곳에 5년씩이나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습니다! 각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배움을 익히는 동안! 제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어머니가… 돌아 가셨습니다… 적어도… 임종이라도! 그 마지막까지는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실을 제게 감쪽같이 속이시다니요!”

증오와 분노 그리고 원망을 한가득 토해내며 핏발이 선 눈과 함께 루드비카는 후작을 노려보며 외쳤지만, 정작 후작의 대답은 평소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메마른 사막처럼 무미건조할 정도라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껴야 했다.

“널 위해서였다. 로자르나도 끝내 내 행동에 이해를 하겠다, 해주더구나.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죽음을 평생 네게 말하지 말라고.”

“후작각하!!”

“그런데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알게 되었구나. 이것을 받거라.”

제자리에 고상히 앉은 채로 후작은 루드비카를 향해 하나의 오래된 편지를 쑥 내밀었다. 그 편지의 정체를 알 리가 없는 루드비카는 여전히 원망어린 눈을 하며 편지에 손끝하나 대려하지 않자, 후작은 작게 한숨을 쉬며 이 편지가 누구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했다.

“네가 이곳에 오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자르나가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전속하녀가 내게 보낸 편지이다. 네 것이기에 함부로 뜯어 내용을 보진 않았다.”

루드비카는 아슬아슬 흔들려 언제 꺾일지 모르는 연약한 꽃처럼 두 눈을 크게 흔들리며 후작이 내민 로자르나의 편지를 받아들였다. 편지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흘렀던가. 루드비카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루드비카에게.

루카,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내 소식을 그저 글로써 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지 말아주렴. 아가, 나의 루카. 이 어미가 처음 불치병을 알았을 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더구나. 네가 성인식을 치루고 훌륭히 성장하여 혼인하는 모습도, 너를 쏙 빼닮은 손자조차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너의 곁을 떠나야 하다니….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동시에 네 앞날이 제일먼저 걱정이 되더구나. 임시가주 자리에 앉아 가문을 어떡해서든 안정시키고 너에게 물려주고자 내 나름 것 힘을 썼지만,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질없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단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산더미이건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침대위에서 서류의 서명을 하고 나를 보살피는 너를 향해 웃는 것이 전부라니… 그러다, 후작각하가 갑작스레 너를 그렇게 데려간 후로, 많이 속상했단다.

너를 붙잡을 힘조차 내겐 없었고, 네가 그토록 나를 애타게 불렀건만 그 여린 손을 붙잡기엔 내 힘이 너무도 터무니없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미로서 깊게 생각해보니, 네 앞날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다시 나는 후작각하께 편지를 보냈다. 내 걱정, 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만큼 너를 철저히 라인하르트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이 못난 어미를 잊을 정도로 내 언급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서 차남으로서 완벽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또… 내가 눈을 감음에도 그곳에서 적응할 너를 위해, 내 소식을 전해주지 말라고… 이 못난 어미의 결정에 눈물을 흘리지도, 슬퍼하지 말아주렴.

하지만 루카, 너는 나의 피가 이어진 나의 아들이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피가 네게 흐르고 있단다. 오히려 마르세유 남작가 보다, 라인하르트 후작가에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 비록, 그 길을 걷기까지 많은 시련이 오고 보이지 않는 위협이 네게 상처를 줄 것이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단다.

지금까지 어미로서 네게 해준 것이 많이 없다만, 나는 네가 라인하르트란 가문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훨훨 펼쳤으면 싶구나.

그리고… 이 말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렇게 적어본단다. 처음엔 너를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단다. 어미로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해선 안 되었지만, 그땐 내게 있어 너의 존재는 내 미래가 뒤바뀔 큰 문제였단다. 후작각하의 사랑, 그리고 뱃속에 있던 너. 그 경계의 사이에서 나는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 어린 생명을 고작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너를 선택했단다.

어찌 보면 내 이기심으로 그 미련으로 인해 너를 낳았지만, 네가 내 품에 안긴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너를 사랑 없이 키우지 않았단다.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철없는 내 방식대로 키우긴 했지만, 네가 내 아들이라서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한 아이의 어미로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뻤는지 알아줬으면 하구나. 나의 예쁜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도 고맙고, 이 못난 어미의 곁에 지금까지 남아줘서, 잘 커줘서 고맙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루드비카, 비록 너를 그리 무정히 데려간 후작각하이나, 결국 너는 각하의 피가 이어진 각하의 자식이란다. 부디 네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렴. 그 모든 원망과 미움, 증오를 네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있는 내게 주길 바라마….

이 세상에 하나 뿐인 내 아들, 그리고 소중한 나의 보물 루카, 너는 나에게 두 번 다시없을 최고의 선물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가.

로자르나 벨 하이트 마르세유 올림.』

“어머니....”

얼마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으면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들이 눈물자국으로 얼룩져 있던가. 루드비카는 편지를 끌어안으며 소리 없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러내렸다. 온통 저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던 어머니의 힘없는 글씨들. 그러나 옛 사랑이자, 첫사랑이기 때문이었을까. 후작을 향한 그녀의 작은 미련이 방패막이가 되어 루드비카의 마음을 찢는 동시에 아물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다.

“진작 제게 말을 했다면… 이정도까지의 원망은 없었을 겁니다. 제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토록 허무히 보낼 수도 없었겠지요! 어머니를 한때 사랑했던 각하가 너무도 밉고, 그런 각하를 사랑한 어머니가 밉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가장 후작각하가 제일 원망스럽습니다! 이 사실을 5년 동안이나 비밀로 묻히신 것이 원망스럽고! 어머니는 이 편지에서 조차 각하 생각하시는데, 각하께선 제 어머니 보단 이 가문이! 그깟 서류더미들이 더 중요하시니까요!!”

“....”

“예… 어머니의 말처럼 이제 제 마음이 가는대로 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각하의 사생아로서가 아닌, 라인하르트란 차디찬 핏줄을 가진 차남으로서 이 가문의 재력을 마음껏 써보도록 하지요. 하지만, 각하께선 제게 원하는 바는 이루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작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루드비카는 제 자신을 향한 혐오감을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루드비카와 피가 이어진 이는 라인하르트 가문을 빼면 아무도 없었다. 모두 하늘로 떠나갔을 뿐. 나 홀로, 그야말로 가문 내에서 제 자신은 겉도는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때부터 루드비카는 자기혐오와 후작에 대한 원망을 한가득 품으며 한동안 미친 듯이 살아야 했다. 처음으로 입에 대보지도 않던 독한 술이란 술은 모조리 마셔보는 것은 물론, 저의 얼굴만을 보고 다가오는 공녀들의 유혹과 손짓을 루드비카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폐인처럼 살기를 1년. 왜 자신의 주변에는 죽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지 이번엔 후작부인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눈을 감으며, 또 다른 사람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다.

“1년 동안 미친 듯이 폐인 짓을 했으면 그만 정신 차려. 언제까지 너로 인해 아버지와 가문에 피해를 줄 것이냐.”

“형님은… 후작부인이… 그것도 형님의 생모께서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으신 겁니까?”

후작부인이 눈을 감은 검은색 관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위로 흙들이 덮이기 시작했다.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혼란한 루드비카의 눈과는 달리, 클로드는 그녀의 친자식임에도 서늘히 눈을 내리깔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슬프지 않냐고? 슬프기야 하겠지. 감정이 풍부한 너와는 다르게 나는 너만큼의 슬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또, 너의 말처럼 분명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슬퍼해야할 이유를 찾는 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애정하지 않으신 분이셨으니까. 그저 난 두 사람의 필요로 태어난 후계자에 불과했으니까….”

후작과는 너무나 쏙 빼닮은 후계자이자, 차가운 감정조차 닮은 라인하르트 가의 장남. 루드비카는 그런 클로드의 절제어린 감정이 부러우면서도 슬픈 감정이 무뎌질 정도면 라인하르트의 핏줄이 얼마나 무던히도 차가운지 다시 한 번 실감이 되었다.

후작부인까지 그렇게 떠나가고, 1년간의 폐인 짓을 서서히 그만뒀을 쯤, 루드비카는 더 이상 피아노를 예전처럼 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던 아름다운 연주조차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루드비카는 건반위로 손을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피아노는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결국 루드비카는 그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잠시 작곡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거의 세 달이 돼서야 제목 없는 연주곡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피아노가 손에 잡히지 않아 시작했지만, 음표를 하나하나 새길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내려, 밝던 연주곡은 음울하면서도 애절히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그 곡은 현재, 루드비카에게 있어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새겨주는 연주곡이자 여전히 제목이 없는 루드비카의 하나 뿐인 과거의 상처가 스며든 완성곡이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루드비카는 어머니가 불현 듯이 떠올랐다. 한없이 장미꽃과도 같던 화사하던 저의 어머니. 그러나 그 화사하던 장미꽃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점차 말라가며 저도 모르는 사이, 모든 꽃잎이 지고 말았다. 그리고 시작된 자기혐오와 후작을 향한 원망. 동시에 폐인처럼, 또는 방랑하게 살던 그 과거가 이제는 한참의 과거처럼 느껴지듯 지금 루드비카의 품에는 그가 제대로 살아가야하는 ‘이유’가 그 품에 안겨 있었다.

“그거 아나요? 헤세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너무나 바람과도 같았죠.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여기저기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며 그것에 안주했고… 어쩌면… 그 화려함 속에 저는 제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비록 다른 귀족만큼 거대한 재력을 갖춘 마르세유 남작가는 아니었으나, 루드비카가 보기엔 로자르나는 그야말로 화사하고도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아름다운 꽃이나 다름없었다. 분명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나 장신구를 보면 수수하기 짝이 없는 것임에도 그 새빨간 장미꽃과도 같은 머리색이 모든 것을 감싸주듯 루드비카에게 있어, 어머니의 존재는 눈부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로 그녀는 7년간 숨어 살아야 했으며, 자신으로 인해 혼인조차 하지 못한 ‘미혼모’로서 그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 자신만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다른 누군가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텐데. 자신만 없었더라면 다른 공녀들처럼 아름답게 스스로를 가꾸고 쉽게 드나드는 사교계의 꽃이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런 생각들이 제 자신의 자기혐오로 뒤바뀌게 되면서 루드비카는 1년 동안의 폐인 생활 속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사무치고 미쳐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효심이 지나치게 깊은 자식처럼 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루드비카에게 있어서 로자르나의 존재는 하늘이고 태양이자,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친구이자, 감히 바꿀 수조차 없는 ‘어머니’란 존재였다. 결국, 라인하르트 가문으로 가는 동시에 루드비카는 로자르나의 안식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몇 년 동안이나 가문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에 이토록, 슬프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아픔은 끝내 피아노의 건반조차 함부로 건들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으며 그 고통으로 루드비카는 자신만의 연주곡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제는 그 아픔이 덜해졌는지 피아노의 건반은 쉽게 칠 수 있으나, 고통으로 만들어낸 연주곡이여서 일까. 이상하게도 그 곡을 쳤다하면 그 감정이 우러나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과거가 떠오르는 동시에 여전히 슬픔으로 인한 연주곡의 제목을 지어낼 수가 없었다.

참으로 희한한 곡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연주곡을 쳤다하면, 어떨 땐 기쁜 감정이 나와 손이 빨라지는 반면, 또 어떨 때는 감정이 한 없이 밑으로 쳐져 손이 느릿해지거나 도무지 감정이 따라잡지 못해 종장을 끝맺지 못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다행이도 이번엔 헤르세인이 보는 곁에서 무사히 종장까지 매듭을 지었지만, 저도 모를 억누른 처연하고도 애틋한 감정이 흘러나와 동시에 헤르세인까지 그 감정을 감화시키고야 말았다.

결국 그 감정이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루드비카는 그 감정을 숨길 수 없기에 이번 기회를 빌어, 그 어떤 귀족조차 알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혹시나 이 과거 이야기를 듣고,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 루드비카는 불안한 눈으로 품에 안겨 있는 헤르세인의 눈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제 첫인상이 헤세에게 안 좋은 쪽으로 기억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가볍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화려한 것에 눈을 쫓고, 사람을 품고, 그 향에 도취되는 동시에 제 멋대로 나비처럼 날아다녔으니까…. 헤세는… 이런 제 모습이 싫나요?”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품에서 벗어나 곧게 허리를 피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가 물었다. 이토록 방랑하게 산 저를 싫어하냐고. 분명 스스로 그렇게 말했음에도 헤르세인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그의 호박 빛 눈동자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루드비카가 과거에 얼마나 방랑하게 살았던, 폐인처럼 살았던 헤르세인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에겐 누구나 그런 지독한 아픔의 과거 있는 법이니까. 오히려 ‘동정’의 마음이 생겼다면 그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저와 같은 ‘사생아’ 하지만, 그것은 라인하르트 가문의 암묵적인 비밀스러운 금기일 뿐, 헤르세인의 눈에도 타인의 눈에도 루드비카는 그저 후작가의 ‘차남’이자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자신이 얼마나 루드비카가 부러운지를 또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루드비카’란 이름에서조차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심하며 지었을지 떠오르면 이토록 어여쁜 이름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엔 이기심일지 몰라도, 결국 그의 어머니는 오직 루드비카만을 생각한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던가.

‘나와는 같은 사생아일지라도 이 사람의 어머니는 내 생모와 달라… 너무나 부러울 만큼.’

어떻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부럽다고. 그녀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했음을, 그 모성애가 지극히 눈이 부시고 자신조차 느껴보지 못한 그 모정이 헤르세인은 부러웠다.

헤르세인은 빈손을 들어 오직 저만을 응시하는 루드비카의 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듯 그 뺨을 좌우로 살며시 움직이며, 자신을 응시하는 그 눈을 마주했다.

“그때는 내가 한껏 가시를 세우고 있어 싫어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 말은 제가 싫지 않다는 말인가요? 정말로?”

“응,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알 수 있게 됐어. 오히려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더라도 당신은 무사히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그게 내 곁에 있는 당신이라서 더욱 다행이고. 당신이 그토록 방랑하게 산 것도 결국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만약… 다른 여자로 인한 이유 때문이었다면 질투하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일이니까 싫어하지 않아. 비록 당신과 나와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다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기에, 루카 당신이기에 나는 이해하려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

“헤세….”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다 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난 확신하게 대답할 수 없어. 그 상처를 완전히 견디는 건, 오로지 당신의 몫이니까. 그리고 아직 그 연주곡의 제목을 못 지었다고 했지? 그럼, 당신과 나 둘이서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면 어떨까? 어쩌면 그 제목이 지어진 순간, 당신의 상처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 아픔을 덜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

늘 일자로 굳어 있던 그녀의 입매가 부드럽게 풀리며 곱게 웃고 있자, 루드비카는 눈을 감고서 자신의 뺨에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알고는 있었다. 지금 이 모든 말들이 어린아이 같은 칭얼거림이자 그녀에게 있어서 어쩌면 상처조차 아닐지도 모를 별품 없는 과거일지도. 그녀의 과거에 비하면 자신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

헤르세인은 여태껏 부모가 누군지조차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오다 생모의 강요로 욍녀란 직위를 얻어 이곳에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야말로 성안의 새장 속. 또한 새장 속에 새만 가둬났을 뿐, 왕비는 자식에 대한 애정조차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은 어떠하던가. 그녀와는 다르게, 어린 시절까진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지 않았던가. 하지만 자신의 아무도 모를 이런 과거를 그녀가 알아줬으면 싶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들려줌으로서 루드비카는 제 자신조차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아픔을 치유 받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리고 확실히 헤르세인은 루드비카가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 상처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기에 그녀가 함부로 나설 수도, 그렇다고 흔하디흔한 대답으로서 극복할 수 있을 거란 대답이 아닌, 그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대답. 하지만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덜어내고 싶어 하는 그 말이 루드비카의 마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점점 깊어져 있을 동안, 그런 두 사람을 숨죽이며 몇 분이고 문틈 사이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서둘러 떠나갔음을 두 사람은 끝내 눈치 채지 못했다.

아라네아 왕비의 궁전. 그녀의 궁전은 여느 궁전과는 달리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했지만, 특히나 오늘은 더욱 왕비의 궁전은 하녀의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움직여야 했다. 하녀와 전속시녀조차 들어와 있지 않은 왕비의 침실. 청소시간이 지났음에도 왕비는 그 어느 누구도 들이지 않고, 오직 맞은편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하녀를 응시하며 차갑게 입술을 열었다.

“그게 사실이냐.”

“…예, 왕비전하.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님께서 지금 헤르세인 왕녀전하 곁에 계시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말에 한 치라도 거짓이 있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식솔들까지 그 명이 짧아질 것이다.”

“제가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왕비는 이제 허리까지 숙여 바닥에 엎드리려는 하녀의 떠는 모습에 작게 한숨을 토해내야 했다. 요즘 들어 시녀나 하녀를 시켜, 헤르세인이 있는 궁전에 사람을 보냈다 하면, 궁전에 아무도 없다는 되풀이만하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왕비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심을 가져야 했다. 그녀가 익히 알고 있는 헤르세인은 어딜 나가길 좋아할 성격이 못되었다. 늘 자신의 궁전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은 헤르세인이 아니던가.

그러나 한번 시작된 의심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그것을 증폭시켜 왕비는 최대한 입이 무거운 하녀를 선별하여, 헤르세인의 궁전에 감시의 눈을 보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녀의 입에서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알게 된다면 어찌 된단 말인가. 또한, 예상외의 인물이 하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왕비의 미간은 절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에 대한 여러 소문은 왕비조차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떠나, 왕비는 이 같은 소식이 혹시라도 왕후에게 들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왕후라면 충분히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던가. 분명 무언가 단단히 잡고 물고 늘어져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은 물론, 빈센트까지 압력을 가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하녀의 눈으로 확인했을 지언정, 왕비는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완전히 믿을 순 없었다. 단 1퍼센트의 가능성까지 염두하며 왕비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앞으로, 네 식솔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주도록 하겠다.”

“와, 왕비전하!”

“단, 네 입이 얼마나 무겁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왕비의 매섭고도 서리 같은 푸른 눈이 하녀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자, 하녀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자신의 충성은 오로지 왕비에게 있음을 증명해야했다.

“저는 왕비전하의 궁전에 소속된 이후부터 오로지 왕비전하에게만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왕비전하를 위해서라도 제 목숨이 다할지라도 제 식솔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든 이 입을 무겁게 달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하지만 그 말이 만에 하나 뒤집어 지게 된다면, 나는 국왕폐하를 움직여서라도 네 식솔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을 시에 국왕의 권력까지 동원한다는 왕비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녀는 몸서리치듯 허리를 잽싸게 더욱 숙이자,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하던 왕비의 눈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무래도 지켜보는 것이 아닌, 직접 움직이고 제 눈으로 확인할 때가 온 것이었다. 왕비는 제게 충성을 맹세한 하녀를 아무 일도 없었듯이 평범히 돌려보내며 어느덧 다 식어버린 찻잔 위로 시선만을 덩그러니 놓고 있었다.

그렇게 상념에 빠져 가만히 있기를 십 여분. 왕비는 자리에서 인형처럼 뻣뻣이 일어나 침대의 근처에 있던 작은 서랍 쪽으로 다가가 웬만하면 열지 않던 맨 마지막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서랍을 끌어당기자 그곳에는 작은 크기의 투박한 보석함이 왕비의 시선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다. 또 다시 한참동안 보석함을 쳐다보던 왕비는 이내 보석함을 들고서 침대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 보석함을 열었다.

혹시라도 수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왕비는 일부로 자물쇠를 걸어놓지 않았다. 자물쇠가 없는 덕분에 보석함은 쉽게 열릴 수 있었고, 보석함의 덮개를 여는 동시에 안에는 갖가지의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왕비는 눈부신 보석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아무도 모를 이중으로 덮어놓은 보석이 가득담긴 또 다른 덮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비는 그것을 집어 들어 손바닥위로 두자, 처음과는 달리 그것을 보는 왕비의 눈동자는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 줄과 둥근모양의 펜던트. 그 작은 백금의 펜던트는 여태껏 그녀가 가진 갖은 보석의 목걸이보다 심플하면서도 어찌 보면 별 볼 일없는 투박한 펜던트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펜던트 위로 새겨진 글씨와 문스톤으로 세공된 초승달 문양, 알렉산드라이트로 세공된 태양의 문양이 그 빛을 발하는 순간, 왕비는 신음을 삼키며 제 품에 펜던트를 안고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에른.”

왕비가 된 순간부터 절대로 부를 수 없던 그 이름. 그러나 이 더러운 육신 속에서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외쳐본 그 숭고한 이름을 왕비는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입 밖으로 토해내야 했다.

그저 무심히 대답한 한 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일으키던가. 그 전말은 이러했다. 평소처럼 다프니안 남작이 내준, 공부를 하며 조용히 책을 일던 헤르세인에게 루드비카는 그녀가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건넸다.

“헤세, 헤세가 태어난 날은 언제이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헤세는 제 생일을 챙겨줬는데 저 역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묻는 것도 너무 미안하지만… 미안한 만큼 많이 챙겨주고 싶어요.”

“생일…?”

헤르세인은 움직이고 있던 깃털 펜을 멈추고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루드비카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잔뜩 기대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루드비카와 달리, 헤르세인은 표정하나 없는 담백한 얼굴을 하며 무심히 시선을 책으로 내리곤, 다시금 펜을 움직이며 짧게 대답했다.

“없어… 그런 거.”

“없다니요? 그게 무슨....”

그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헤르세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루드비카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헤르세인은 그런 루드비카를 향해 시선을 주지도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글쓰기에만 집중하며 펜을 움직여야 했다.

“헤세.”

하지만, 그것을 그냥 넘어갈 일 없는 루드비카는 잘만 움직이던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덮어 움직임을 봉쇄하자, 결국 헤르세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루드비카를 흘끔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만 했다.

“알잖아, 난 왕비전하의… 원치 않은 사생아란 걸.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그리고 나도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관심도 없고. 아, 그래도 당신 생일은 별개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당신의 생일은 외우고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는데 과연 생일이란 것이 중요할까? 더욱이 원치 않은 사생아이기 때문에 헤르세인은 왕비에게 자신이 어느‘력’에 어느‘날짜’에 태어났는지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것을 왕비에게 묻는다는 자체는 어쩌면 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상처’일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편이 자신에게도 왕비에게도 서로에게 좋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되려 루드비카에겐 안타까움이 되었는지, 그녀의 손등위로 겹친 그의 커다란 손엔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했는지 루드비카는 그 안타까운 표정을 금방 지워내며 예쁘게 눈을 휘고는 뜻밖의 말을 꺼내었다.

“그럼, 제가 헤세의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줘도 되나요?”

“...내 생일?”

“네, 단 하나 뿐인 헤세를 위한 특별한 생일을.”

다음날.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거지만,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손에 이끌려 왕성 바깥으로 나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결코 모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경계심과 반쯤은 답답함에 용기를 내어 왕성 바깥으로 몰래 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궁전에 드나드는 하녀나 시녀들의 모습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니, 그 경계심을 풀고 마음대로 바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바짝 조인 긴장감을 서서히 풀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긴장감과 경계심이 양심적으로는 작게나마 머릿속에서 자꾸 상기시키고 있는지, 왕성 바깥으로 나왔음에도 헤르세인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미련처럼 몇 번이고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궁전 쪽을 향해 시선을 쭉 보내다가, 루드비카의 손에 이끌려 그 미련에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여전히 로브를 꾹꾹 뒤집어 쓴 채로, 그리고 변장한 루드비카의 손을 잡고서 거리를 걷던 헤르세인은 싱그러운 다양한 꽃들이 가득한 익숙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 왕성 바깥에서 나와 루드비카를 만났던 그 장소.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그 말이 실감될 정도로 헤르세인은 설마 루드비카와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거기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은 한창 가시를 세우던 때라 대담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루드비카를 못마땅하던 과거이기도 했었다.

“헤세,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 왕성에서 만났던 그때와 두 번째로 왕성 바깥에서 만났던 그 날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만약, 루드비카와 그날 처음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인연은 더 이상 없었고, 그와 같이 이렇게 손을 잡으며 거리를 거닐 날도 없었을 것이었다. 헤르세인은 처음 루드비카를 만났던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왕성에 들어와 원치 않은 제2왕녀로서 입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의 강요로 참석해야만 했던 라인하르트 후작을 위한 환영식.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루드비카.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루드비카가 만약 귀걸이를 자신의 머리위로 떨어트리지 않았더라면 그 인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만남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저 고독히 자신의 궁에 틀어박힌 채로 왕비에 대한 복수를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몰랐다.

그와 만나기 전과 지금의 자신은 너무도 다름을 알고 있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이들이 헤르세인의 눈엔 그저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지독히도 가시를 세우며 제 자신 밖에 생각하지 않던 저였는데, 루드비카를 만난 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타인의 배려. 처음엔 그것이 못마땅하고 어딘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어 루드비카를 외면했지만 그는 어느새 부턴가 진심이 담긴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점차 그 행동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물론, 하물며 그때 당시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말 갖지 않은 소리로 들렸던가. 그의 주변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고위 귀족들의 영애들이건만,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자신을 향한 마음이 한 치의 거짓도 아닌, 진심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자신이 한발 뒤로 물러서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발 앞으로 다가오는 유일한 사람. 자신의 태생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허물없이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열을 다해 더욱 진심을 내보이던 루드비카.

결국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저도 모르게 그에게 감화가 되었는지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며 지금의 연인으로 이르기까지 했다.

헤르세인은 어느새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꽃가게의 여주인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잠시 추억에 빠져 멍하게 서있는 사이, 루드비카는 마음에 드는 꽃을 골랐는지 꽃가게의 안으로 들어가 5분 정도 지났을 쯤, 노란빛의 파스텔 톤의 포장지로 감싸인 푸른 꽃을 들고 나와 멍하니 있던 헤르세인의 눈앞에 바로 건넸다.

“이 꽃, 그리고 꽃말… 헤세는 기억하고 있나요?”

“이 꽃은….”

그가 한 아름 자신에게 안긴 꽃다발은 다름 아닌, 푸른 싱그러움의 물망초. 헤르세인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이 꽃의 이름을 다행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이 꽃의 꽃말 역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에 또 한 번 놀라웠다.

“분명 이 꽃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맞아요. 이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꽃을 헤세에게 전해줌으로써 저는 지독히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란 존재를 잊지 말아주기를. 나란 사내를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남아주기를….”

“…루카.”

유독 이 물망초가 그에게 속박당하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족쇄가 싫지도, 그렇다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조차 아니었다. 오히려 바보처럼 그 족쇄가 단단히 자신의 손과 발을 붙잡아 평생을 그에게 향할 시선을 생각하면 헤르세인은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 꽃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뭐가?”

헤르세인의 품에 안겨있는 물망초 꽃다발을 물끄러미 보던 루드비카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뱉어냈다. 대체 이 꽃이 어디에 희한함을 느끼는 건지, 루드비카를 따라 꽃다발을 쭉 쳐다보던 헤르세인은 곧 이어진 루드비카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어쩐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물망초를 보고 있자면, 물망초는 헤세랑 닮은 것 같아서요.”

“…내가? 이 꽃이랑? 대체 어디가?”

대체 어디가 자신과 물망초가 닮았다는 것인지 헤르세인은 꽃다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문득 헤르세인은 머릿속에 스치던 로맨스 서적의 어떤 글귀를 떠올렸다. 여인들은 대게 아름다운 꽃과 본인을 닮았다거나 그 꽃에 비유를 하면 좋아한다고. 물론, 루드비카의 그 말이 헤르세인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로맨스 서적에 적혀있던 그런 느낌의 비유가 아닌, 어떤 의미가 담긴 함축적인 의미 같았다. 헤르세인이 고개를 기울이며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루드비카는 입 꼬리를 끌어 올리며 그녀가 궁금해 하는 그 의미에 대해 대답했다.

“그 푸른 꽃잎을 보면 헤세의 모습이 그려져요. 또, 완전히 닮지 않음에도 그 푸르름이 헤세의 남빛의 머리색을 연상시키게 만들죠. 그리고 작고 여린 꽃임에도 제아무리 밟혀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화려함은 없지만 그 수수함 속에서 당차게 일어나는 그 작은 힘이 헤세를 닮았다 생각해요. 또, 그 꽃말처럼 헤세를 보고 있자면 언제나 제 머릿속에선 헤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아아, 그런 의미였구나.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꽃다발을 들어 얼굴을 재빨리 가려버렸다. 기쁜 한편으로는 이토록 부끄러운 감정이 넘쳐나다니. 분명 자신의 새빨개진 얼굴을 루드비카가 본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없을 것이었다.

“헤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최대한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새빨간 얼굴은 작은 미열이 그대로였지만, 헤르세인은 혹시라도 루드비카가 그것을 걸고넘어지기 전에 그의 손을 먼저 붙잡고서 그저 앞만 보며 그를 이끌었다. 왠지 아직까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은 심술이었다.

“빠, 빨리 가자!”

헤르세인은 얼마가지 않아 다시 리드를 루드비카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리드를 빼앗긴 조그만 한 불만은 있었으나, 그가 이끌어주어 보여주는 것들은 무엇이든 눈에 들어오고 재미났기에 그 불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루드비카가 사준 꽃다발과 거리를 거닐 때 마다 쉴 틈 없이 사주던 거리 간식들. 아직까지 해는 지지 않았지만 헤르세인은 슬슬 왕성으로 돌아갈 시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루드비카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완전히 왕성으로 돌아가기 전, 잠깐의 휴식을 위해 두 사람은 광장의 분수대 쪽으로 향하던 찰나였다.

“잠깐, 거기 지나가는 두 사람. 이쪽으로 와서 점 한번 보는 게 어때?”

카랑카랑하면서도 어딘지 자신감이 넘치는 여인의 목소리가 분수대로 향하려던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짙은 보랏빛의 천으로 온몸을 뒤덮은 여인은 두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빨갛게 칠해진 손톱을 뽐내며 괴상한 그림들이 그려진 카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향해 고개를 저었지만, 무슨 생각인지 루드비카는 입꼬리를 말아 올리곤 헤르세인을 이끌며 점쟁이가 있는 곳에 다가갔다.

“얼마를 주면 되는 건가요?”

이 세상엔 공짜란 없듯이 루드비카는 당연히 점쟁이에게 점치는 비용을 물었다. 하지만 점쟁이는 여전히 카드를 정리하며 루드비카에겐 시선한번 주지 않고는 천속에 가려진 매서운 입을 움직였다.

“돈은 필요 없어. 나야 돈으로 먹고 사는 점쟁이라지만 당신과 당신의 연인을 보니 오늘은 특별히 돈은 받지 않으려고. 내 점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네들의 운명에 돈은 절대로 받지 말라고.”

“그거 신기하군요. 그럼 공짜로 해주는 점이니 사양치 않고 받도록 하죠. 자, 헤세 자리에 앉을까요?”

어느새 벌써 자리에 앉은 루드비카의 행동에 헤르세인은 정말로 점을 볼 거냐는 얼굴을 하며 루드비카를 쳐다봐야 했다. 점쟁이에 호기심을 보이는 루드비카와 달리, 헤르세인은 점쟁이는 물론 카드 점으로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그들의 혀를 믿지 않았다. 제 아무리 슬럼가에서 살았다 해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슬럼가에서도 점쟁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들 이었다. 비록 거짓된 사탕발린 말로 사람을 속여 점을 본, 애꿎은 사람들의 돈을 전부 갈취하는 점쟁이들이었다.

그런 인식이 오랫동안 박혀서인지, 헤르세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점쟁이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었다. 그런 헤르세인의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점쟁이는 카드를 정리하던 행동을 멈추고 코웃음을 치며 헤르세인을 향해 그림자 속에 감춰진 눈을 음산히 빛내며 대답했다.

“앉아.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든 믿지 않던 그쪽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공짜로 점 쳐주겠다잖아? 앉는 게 좋을 걸?”

은근 오만해보이기까지 하는 점쟁이의 강요어린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공짜로 해준다니 결국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헤르세인까지 완벽히 자리에 앉자, 점쟁이는 퍽이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새빨갛게 칠해진 입 꼬리를 말아 올리며 탁자위로 잘 정돈되어 있는 카드 더미를 툭 건들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자, 그럼 누구의 점부터 쳐줄까?”

새빨갛게 칠해진 손톱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점쟁이의 손을 보고 있자면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손톱과는 별개로 카드를 섞는 것은 물론, 현란한 손으로 한 뭉텅이의 카드를 부드럽게 부채처럼 펼치는 그녀의 손재주에 헤르세인은 눈은 어느새 감탄으로 감돌고 있었다.

“자,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 볼까나? 그래, 여자 쪽이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뒤집어져 있는 카드 중 3장을 골라봐.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말이야.”

점쟁이가 검지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건들며 카드 뽑기를 기다리자, 헤르세인은 수 십 개의 뒤지어진 카드를 한참동안 보다가 손이 가는대로 3장의 카드를 골랐다. 그리고 점쟁이의 눈짓에 뒤집어진 카드를 앞면으로 뒤집자, 각기 다른 그림이 그려진 카드들이 헤르세인의 눈에 비쳤다.

“어디보자. 손이 가는대로 뽑으라 했더니 정말로 손이 가는대로 뽑았네. 의외라고 해야 할지, 아님 그 운명의 순리대로 뽑은 건지… 확실한건 그쪽의 삶이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는 거지.”

점쟁이는 혀를 끌끌 차며 부채꼴로 펼쳐진 카드들을 정리하고, 헤르세인이 뽑은 3장의 카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일먼저 점쟁이는 첫 번째 카드를 가리키며 덤덤히 새빨간 입술을 움직였다.

“제일 첫 번째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흔히 사람들이 잘 뽑는 카드이기도 하면서, 대체로 운이 어느 정도 있다하는 사람들은 이 카드를 잘 뽑기도 하지. 이 카드는 행운, 향상, 그리고 전환기를 뜻하지만, 그쪽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보자니, 행운 쪽 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환기가 보이는 것 같네.”

“…전환기?”

“그래, 전환기. 간단히 말하자면 조만간 그 계기가 찾아올 것인데, 그 계기를 통해 그쪽의 선택에 따라 커다란 전환점이 곧 온다는 거지. 이해했어?”

“....”

헤르세인은 영 미덥지 않는 눈으로 수레바퀴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제 아무리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법이라지만, 이 카드만으로 자신의 전환점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계기가 언제 일지, 전환기가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차피 점쟁이의 뱀 같은 말이기에 헤르세인은 다음 카드를 가리켰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어차피 저자거리의 점쟁이. 점쟁이의 자신만만한 말투 때문인지 몰라도 헤르세인은 평소 왕성에서 썼던 말투를 버리고 루드비카와는 전혀 다른 딱딱하면서도 슬럼가에서 살던 그때의 말투로 돌아갔다. 하지만 헤르세인의 말투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점쟁이는 다음 카드를 보며 피식 웃고는 짙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 카드를 뽑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는데, 용케도 이걸 뽑았네? 이 카드를 뽑는 사람은 대게 우리 같은 길거리에 흔한 이가 아닌, 고아한 피를 가진 이가 선택하는 카드지. 아무튼 의외야. 아님, 그 로브에 가려져 내가 그 속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까?”

알 수 없는 말만 족족하니, 헤르세인은 이제 그만 한귀로 흘려듣기를 택했다. 어서 빨리 이 카드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재촉어린 눈을 하자, 점쟁이는 서두르지 말란 느긋한 표정을 하며 옆에 있던 루드비카를 흘끔 보고는 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건 군주. 그것도 그냥 군주가 아닌 ‘황제’를 뜻하는 카드지. 이 카드의 의미는 결실, 행동, 세월, 그리고 미지. 보아하니 미지는 필요 없고, 결실, 행동, 세월, 이 세 가지에 그쪽의 미래와 삶이 다 들어있어. 흐음… 그러고 보니 그저 평범히 운명의 수레바퀴를 뽑은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카드의 점과 미래가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

“....”

“어쩌면 그 수레바퀴의 전환기가 이 카드를 선택한 미래의 종점 같은 건가? 참 희한하게도 뽑았어, 카드를. 하기사 원하는 카드를 그쪽이 뽑고 싶어 뽑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로브 속에 가려진 헤르세인의 탐탁지 않은 눈을 꿰뚫기라도 했는지, 혹시라도 불만어린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점쟁이는 피식 웃고서 서둘러 다음 카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 이 카드는 매달린 남자. 또는 사형수라 불리기도 하지. 뭐, 대부분 매달린 남자라 불리지만, 그쪽이 뽑은 앞의 2장의 카드가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 계기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 카드는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지. 어디보자… 신중한 것 같으면서도 경계는 많고, 가시를 곧잘 세우며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어때? 맞지?”

헤르세인은 굳이 점쟁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 따라 남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맞으나 그걸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답 없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점쟁이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다 3장의 카드를 다시 한 번 뚫어지게 정리하듯 쳐다보던 점쟁이는 무슨 일인지 말이 없었다. 점쟁이의 침묵에 헤르세인이 먼저 입을 떼려 했지만, 카드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점쟁이는 천속에 가려진 눈동자를 움직여 어쩐 일인지 미래를 엿보기라도 한 것처럼 탄식을 뱉어냈다.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드문드문하게 그쪽의 앞으로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 평생카드 점을 치며 별별 사람을 봤지만, 그쪽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어쩜 이리도 시련이 시련을 뛰어넘을까. 매 한순간이 산이고 바다이며 그것이 끝임을 생각하면 다시 낭떠러지가 눈앞이고.”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고? 그쪽, 지금이 가장 평화로울 때이자, 행복의 정점이란 소리야.”

평화, 그리고 행복의 정점? 점쟁이의 이야기가 어쩐지 불쾌하게 들리면서도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커지는 불안에 미간을 좁혀야 했다. 뭐지? 이, 불안은? 분명 점쟁이의 헛소리임이 뻔함에도 발끝에서 서서히 기어 올라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헤르세인의 손에 힘을 쥐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힘은 얼마가지 않아 손등위로 감싸는 따뜻한 온기에 헤르세인은 고개를 틀어 그 손의 주인을 보았다. 뺑뺑이 안경너머로 저를 향해 보이는 안심하라는 눈웃음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표정.

루드비카의 얼굴을 봤을 뿐인데, 방금까지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그 불안감을 그가 지워주었다. 이에 끝나지 않고, 루드비카는 손등위로 감싸고 있는 손에 힘을 작게 주며 점쟁이를 향해 미소를 그렸다.

“그럼 제 차례인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뽑은 카드의 결과가 어떨지.”

루드비카의 싱그러운 미소에도 점쟁이는 오히려 재미를 느꼈는지 흥미롭다는 시선으로 두 사람을 보다가, 여유로운 손짓으로 탁자위에 있던 3장의 카드를 다시 카드 뭉텅이에 섞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카드를 이리저리 섞다가 부채꼴 모양으로 쭉 펼친 점쟁이는 헤르세인에게 했던 것처럼 3장의 카드를 고르길 권유했다.

“3장의 카드를 골라.”

점쟁이가 느긋이 손톱을 정리하고 있을 동안, 루드비카는 뒤집어진 카드들 중 몇 번이고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내 마음에 든 3장의 카드를 고를 수 있었다. 루드비카가 3장의 카드를 전부 고르자, 손톱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점쟁이는 어째서인지 구석진 곳에 미리 섞여 준비되어있던 또 다른 카드 뭉치를 한쪽으로 펼쳐 루드비카에게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나 더 골라. 이 카드는 당신이 고른 3장의 카드와 다르게 이건 별개의 역방향 카드니까. 방금 고른 3장의 카드와는 별개야.”

“역방향의 카드? 왜 저만 한 장을 더 고르는 거죠?”

역방향의 카드를 고른 적 없는 헤르세인과는 달리, 루드비카는 자신만이 역방향 카드를 고르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나 점쟁이는 음산히 웃음소리를 내며 턱을 괴고는 천속에 가려진 입 꼬리를 진하게 끌어 올렸다.

“흐음, 왜 일까? 점쟁이인 주제에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어쩌겠어? 일종의 변덕인지 아님 정말로 내 속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고 있자니 왠지 카드 한 장을 더 뽑아야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

“변덕이라… 좋습니다. 한 장 더 뽑도록 하죠.”

루드비카가 이내 역방향으로 뒤집어진 카드 한 장을 더 뽑자, 점쟁이는 역방향인 카드 한 장을 자신 쪽으로 두고서 나머지 카드들을 전부 정리했다. 그리고 루드비카에게 선택된 3장의 뒤집어진 카드들을 전부 앞으로 뒤집어 하나하나 씩 훑어보았다.

“당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여자도 그렇고, 어쩜 둘이 별난 카드들만 족족 뽑을 수 있을까? 지나갈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보인다 했지만, 여기까지 미치다니. 아, 물론 좋은 의미로 말한 건 아니야.”

점쟁이가 키득키득 웃으며 턱을 괴자, 루드비카는 여전히 미소를 그린 채로 점쟁이가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릴 생각 따윈 전혀 없다는 얼굴을 보였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점쟁이는 싫지 않았는지 자신의 설명을 기다릴 루드비카를 향해 제일 첫 번째 카드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첫 번째 카드는 죽음의 사신. 마음가는대로 고르라 했더니, 여자만큼이나 고르는 솜씨가 아주 타고난 것 같아. 첫 번째 카드부터 이 카드를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말이야. 이 카드는 격변, 그리고 죽음을 뜻하지.”

“격변과 죽음… 정확히 뜻을 풀이하면 제가 죽는다는 말인가요?”

“흐음, 글쎄? 이제 카드의 첫 장만 봤을 뿐인데 그 죽음까지 내가 어찌 내다볼 수 있겠어? 내가 죽음을 내다보는 사신도 그렇다고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말이지. 하지만 그 안경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얼굴 너머엔 어떤 쪽의 의미가 가장 클까? 하나 정도 얘기해주자면 카드란 것은 한번 뽑은 순간 뒤바꿀 수도, 다시 물릴 수도 없다는 거지. 정해진 순리 같은 것이니까.”

점쟁이는 그 다음, 붉은 손톱으로 두 번째 카드를 가리키며 다음 설명을 이어갔다.

“자, 그럼 다음카드를 볼까? 두 번째 카드도 별난 걸 뽑았네? 이 카드는 악마. 그리고 악마가 의미하는 것은 사심, 타락, 격렬, 바꿀 수 없음을 뜻하지. 바꿀 수 없다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지만, 당신의 운명이 어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악마란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는 있겠지?”

“그게 무슨 뜻이죠?”

루드비카가 짐짓 차분한 어투로 묻자, 점쟁이는 음산한 미소를 그리며 악마가 그려진 카드를 툭툭 건드렸다.

“무슨 뜻이기는. 악마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좀먹는지 알아?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나약할수록 검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야. 물론, 당신의 마음이 나약한지 강인한지 나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 마음은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을 뿐이니까. 하지만 악마란 것은 본디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 서서히 자신의 색으로 물들이지. 그리고 쉽게 타락하게 만들고. 악마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은 마수를 부리는 악마라 생각하겠지만, 평범한 우리들 눈에는 모든 것이 유혹적인 악마들이야. 그러니 쉽게 유혹에 빠져들고 자기도 모를 죄를 저지르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후이고. 그러니 조심하는 해, 그 유혹에 현혹되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자, 그럼 세 번째 카드를 봐볼까?”

점쟁이의 시선이 두 번째 카드를 지나 세 번째 카드에 시선을 멈추었다. 루드비카가 고른 세 번째 카드는 새하얀 날개가 달린 천사가 양날의 검을 든 그림이었다. 루드비카는 그 이미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며 점쟁이를 쳐다보자, 점쟁이는 오히려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세 번째 카드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점쟁이가 루드비카와 카드를 번갈아 보길 세 네 번. 점쟁이는 처음으로 의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기해. 보통 세 번째 고른 카드는 그 카드를 고른 본인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성격은커녕 앞에 보았던 카드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다면 제 미래는 무언가 뒤엉켜 있다는 말인가요?”

루드비카가 조심스레 묻자, 점쟁이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걸 뭐로 들은 거야? 아니지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어. 죽음의 사신 카드나 악마의 카드를 뽑은 걸 보면, 범상치 않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당신, 이 세 번째 카드가 뭔지 알아? 심판. 심판의 카드지. 그리고 이 카드를 뽑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알아?”

“...글쎄요.”

루드비카는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가로 젓자, 점쟁이는 루드비카의 앞에 나란히 놓여있는 3장의 카드를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둔 역방향의 뒤집어진 카드를 루드비카의 앞에 두며 점쟁이는 눈을 휘게 웃었다.

“심판의 카드를 뽑은 이들은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지. 혹은 신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자들이거나. 심판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부활, 변화, 결과. 당신이 듣기에도 평범한 카드는 아니지 않아?”

“확실히… 평범한 카드는 아니군요. 그럼 다르게 생각한다면, 저는 죽다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 하지만, 카드들에는 고유의 의미들이 담겨 있어.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는 법이며, 우리들은 카드를 뽑은 이들이 어떤 미래로 갈지에 대한 제시를 들려주는 게 다니까.”

보통 카드들에는 고유의 의미들이 담겨 있으며 그것에 비껴나가는 카드들은 없었다. 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미래와 그것을 카드가 예견하여 미리 그 방향을 오지 않도록 제시한다? 희한한 일이었다. 여태까지 별별 사람들의 점을 보며 기구한 삶을 지닌 이들을 점쳐보기도 했지만, 이런 카드를 뽑은 사람은 점을 치는 일에 있어서 처음이었다. 그 안경너머로 과연 어떤 눈동자를 지녔을지 알 수 없으나 점쟁이는 확신했다. 눈앞의 남자는 보통내기가 아님을. 그렇지 않고서야 제아무리 죄 많은 인간조차 이런 카드를 연속으로 뽑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튼 이런 카드를 연달아 뽑은 이상, 당신은 조심해야할 것이 천지야. 조언하나 해줄까? 명을 길게 잇고 싶다면 제아무리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해도 그곳엔 발조차 들이지 않는 게 좋아. 그 가시밭길에 발을 들인다면 스스로 제명을 줄이는 셈이나 다름없으니까. 어쩌면 그것을 경고하고자 당신의 손에 심판의 카드가 뽑힌 건지도 몰라.”

“조언 감사히 받도록 하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란 것이 본디 하지 말라는 것에 더 이끌리고, 나아가고 싶은 법이죠. 제 명이 설사 짧아진다 해도 그 가시밭길을 굳이 간다면 그건 그거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말을 들은 일반사람이라면 표정이 쉽게 변하기 마련인데 루드비카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그 모습에 점쟁이는 혀를 차며 뒤집어진 역방향의 카드를 바로 뒤집었다. 루드비카와 점쟁이 사이로 탁자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단 한 장의 카드. 역방향의 카드는 한명의 여자와 한명의 남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있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였다. 만약, 정방향의 카드였다면 더욱 관심이 가질법한 카드의 그림이나, 하필 역방향이기에 루드비카는 역방향의 카드를 물끄러미 보며 점쟁이에게 물었다.

“이 카드는… 어떤 의미의 카드인가요?”

“이 카드는 사랑, 또는 연인. 만약 이 카드가 정방향의 카드였다면 말 그대로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있어, 뽑길 잘한 카드일지도 몰라. 이 카드의 정방향은 그런 의미의 카드니까. 하지만 역방향은 전혀 다른 의미지. 질투와 배신, 그것 말고도 이 역방향의 카드는 뽑은 본인의 숨겨진 본성을 뜻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주변 인물들의 본성을 뜻하는 바가 크지. 주변을 크게 보고, 사람 한명 한명을 볼 때마다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특히나 질투가 사람 한명을 집어삼킬 정도까지 가진 자라면 더욱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배신보다 질투에 미친 자가 제일 무서운 법이라고.”

“근데 말이지, 내가 왜 당신에게 역방향 카드를 고르라 한줄 알아?”

“변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님, 잘 모르겠군요. 그 이유를 모르니 이렇게 자리에 앉아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여간 말은 잘해.”

점쟁이는 마지막 역방향 카드를 짚어 다른 카드 뭉치 속에 섞어 버렸다. 그리고 탁자 위로 붉게 칠해진 손톱을 덩그러니 보이며 깍지를 낀 다음, 두 팔을 탁자에 고정시켰다. 그러나 천속에 가려진 두 눈만은 루드비카를 주시하며 점쟁이는 처음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를 내며 서늘히 입술을 열었다.

“제 아무리 카드로 점을 치는 점쟁이 인생일지라도, 사람 보는 혜안이 없다면 저자거리에 흔히 있는 사기꾼이나 다를 바가 뭐야.”

“그럼 당신은 혜안이 있는 점쟁이인가요? 아님, 사기꾼인가요?”

루드비카의 역질문에 점쟁이는 그 어떤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앉아있는 루드비카만을 뚫어지게 보며 그가 뽑은 카드들을 다시금 떠올렸을 때, 점쟁이는 확신어린 눈을 빛내며 피식 웃었다.

“흐음, 글쎄? 그렇다고 점쟁이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마. 우리 같은 점쟁이들은 그저 점을 봐줌으로서 갈림길이 있으면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약간의 정보만 알려줄 뿐이니까. 그럼 다시 원점으로. 내가 왜 역방향 카드를 뽑으라했는지 물었지? 지금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니, 당신이 뽑은 3장의 카드가 전부 역방향 카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쩌면 역방향 카드를 당신에게 뽑으라한 건 필연인지도 몰라.”

“필연…?”

“그래, 필연. 죽음의 사신, 악마, 심판, 이렇게 악운의 카드를 전부 뽑는 사람은 흔치가 않지. 그런 당신을 위해 수정구슬 한번쯤은 봐줄까?”

“수정구슬이라 하면?”

점쟁이는 오늘 특별히 선심 쓴다는 큰 몸짓으로 탁자 구석진 곳에 천으로 가려져있던 수정 구슬을 꺼내어 소매로 대충 구슬 표면을 닦은 후, 요란한 손짓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겉 표면은 투명한 유리구슬과 다를 바 없지만, 어쩐 일인지 점쟁이의 손짓에 투명하던 유리구슬이 점점 보랏빛을 감싸며 구슬 안에는 보랏빛의 연기와 붉은빛의 연기가 서서히 혼합되듯 섞여가고 있었다.

점쟁이의 행동과 구슬 속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에 루드비카는 물론, 헤르세인 역시 신기한 눈으로 수정 구슬을 지켜보고 있지만, 점쟁이의 손짓이나 행동을 보자면 그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점쟁이를 기다리길 5분정도 흘렀을까. 섞일 것 같으면서도 뒤섞이지 않은 보랏빛 연기와 붉은빛의 연기가 점점 커지더니 가운데서부터 새카맣게 퍼져나가는 검은 연기에 점쟁이의 어깨는 순간 움찔하고 말았다.

‘뭐, 뭐지? 내가 잘못 본건가?’

수정구슬의 안쪽의 검은 연기가 다른 연기를 집어삼킬 만큼 커질수록, 천속에 가려진 점쟁이의 미간은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여태까지 줄곧 점으로 먹고 살긴 했지만, 수정 구슬을 보면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점쟁이였다. 수정구슬은 카드의 점처럼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진 않았다. 그 사람의 본질과 예견되는 사물을 보여줄 뿐. 하지만 눈앞의 남자에 대한 수정 구슬을 읽으면 읽을수록 칠흑 같은 그림자에 삼켜지듯 도무지 수정구슬에 비치는 사물이 보여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검은 연기가 짙어질수록 수정구슬은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지 서서히 표면에 금이 가다가 이내, 쩌적 소리를 내며 구슬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수정구슬은 파편처럼 탁자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혹시라도 수정구슬의 파편이 튀지 않을까 염려되어 루드비카는 재빨리 헤르세인의 몸을 단단히 가려주었지만 구슬의 파편은 다행이도 두 사람에겐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되진 못했다. 하지만 유리파편을 피하기 위해 몸을 멀찍이 떨어트린 두 사람과 달리, 점쟁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꿈쩍하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던 수정구슬. 그런데 고작 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자 수정구슬이 깨진다? 말이 되지 않았다.

‘혹시 내가 언제 떨어트린 적이 있었나?’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떨어트린 적은커녕 구슬을 함부로 굴린 기억조차 없었다. 점쟁이는 한참동안 조각 조각난 수정구슬의 파편을 보다가 이내, 스물 스물 피어오르는 불길한 생각을 지워버렸다. 구슬이 깨진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구슬 속에 느껴진 그 검은 기운이 요점이었다. 그 기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불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기운은 틀림없기에 점쟁이는 루드비카를 보며 평소보다 말을 빨리했다.

“이런 일은 나도 난생 처음이긴 한데, 이렇게 된 이상 하나 충고하나 하지. 주변을 잘 경계하는 게 좋을 거야. 특히나 가까운 사람을. 내가 말했지? 역방향 카드의 의미는 질투와 배신이라고. 배신은 딛고 일어설 수 있어도, 특히나 질투에 미친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법이야. 그러니 조심해. 특히나 질투에 미친 사람으로 인해 죽고 싶지 않다면.”

붉은 석양이 서서히 지고 있을 쯤, 비밀의 집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어느덧 변장을 풀고서 붕 떠 있는 머리를 정리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니, 지켜보기 보다는 점쟁이가 했던 불길한 말이 헤르세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 보내면 기억에도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점쟁이의 그 말들이 강하게 남았는지 헤르세인은 특히나 루드비카를 향해 충고 아닌, 경고와도 같던 점쟁이의 말을 지워낼 수 없었다.

저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 헤르세인의 표정을 읽어냈는지, 루드비카는 대충 머리를 쓸어 넘기고서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눈을 마주치고는 헤르세인을 불렀다.

“헤세.”

“…어? 어… 응….”

“혹시, 점쟁이의 말이 신경 쓰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곡을 찔렀는지 헤르세인의 어깨가 약간 움찔한 것을 루드비카는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움찔한 모습을 보니, 괜히 그녀의 신경을 쓰게 한 것 같아 루드비카는 꽃다발을 들고 있는 그녀의 여린 두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신경 쓰지 말아요. 구슬이 깨진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신의 대리자가 아닌 이상, 그 어느 점쟁이가 사람 하나하나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본디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 하는 법이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점치길 바라죠. 설령 그 말들이 전부 맞아떨어진다 해도 저는 죽을 생각이 없어요. 왠지 아나요?”

그 물음에 헤르세인은 작게 고개를 젓자, 루드비카는 곧 이어 대답했다.

“당신의 곁에 있어야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빈자리에 오롯이 있을 수 있는 건 저 밖에 없으니까.”

루드비카를 향한 헤르세인의 두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토록 자신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람은 루드비카, 그가 유일했다. 때문에 더욱, 알 수 없는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만약… 나 때문에 당신이 죽는다면? 그 주변인물이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서로 응시하는 두 눈동자는 줄곧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먼저 버틸 수 없었는지 심연 같은 바다 빛 눈동자가 먼저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만약, 정말로 점쟁이의 말처럼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 주변인물 중에 자신이 포함되는 거라면? 그런 생각이 헤르세인의 머릿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잔잔하던 파문이 한순간의 파도처럼 마음조차 진정되지 않는 이 불안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도 모르게 헤르세인은 꽃다발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고 말았다. 동시에 잡고 있는 꽃다발의 포장지가 작게 일그러진 것을 두 눈으로 본 루드비카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어느새 차가워진 헤르세인의 뺨에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리곤 작게 미소를 그리며 질끈 감아버린 그녀의 눈동자가 제게 닿기를 바랐다.

“저를 봐줄래요? 아무리 불안해도 눈을 감지 말고 저를 봐주길 바라요. 당신의 그 불안함이 사라질 때까지… 아니, 그 불안함이 전부 사라진다 해도 평생 곁에 있을 테니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줘요.”

“...루카.”

“제가 만약 죽는다면… 그건 당신을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눈에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가슴 아파 하지 말아줄래요? 당신의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나 때문이라면 더더욱 싫으니까.”

질끈 감았던 두 눈을 다시금 떴을 때, 여전히 헤르세인의 앞에 있는 건 루드비카였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봐도, 마음에서도 기억에서도 지워낼 수 없는 단 한 사람. 이제 자신에겐 정말로 루드비카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그것도 본인 입으로 대답했다.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가슴 아파 하지도 말며, 만약 정말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의 죽음이 결국은 저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제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헤르세인은 강하게 부정하듯 고개를 크게 저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았는지, 루드비카는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벨벳으로 감싸인 작은 상자를 꺼내어 헤르세인에게 내밀었다.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네요. 원래라면 더 좋은 분위기 속에 건네주고 싶었는데….”

“이건....”

“루비로 만들어진 귀걸이에요. 저의 하나 뿐인 보물이자, 제가 가장 사랑한 어머니의 단 하나 뿐인 유품.”

상자의 케이스가 열리자 장미색보다 더욱 붉은 보석이 박힌 귀걸이가 제 빛을 뽐내고 있었다. 루드비카가 가장 사랑한, 그리고 그의 보물이자 단 하나 뿐인 유품이라 하는 루비 귀걸이.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왜 자신에게 보여주는지 헤르세인은 의아한 눈으로 루드비카를 보자,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한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그 손바닥 위로 루비 귀걸이 담긴 상자를 건네주며 대답했다.

“어떤 것이 가장 헤세에게 값진 선물이 될지 생각해봤어요. 마음 같아선 이것저것 주고 싶은 게 잔뜩 이지만, 가장 의미가 담긴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 뿐인 생일을 제가 유일하게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아무 선물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당신 어머니의 유품이잖아. 그리고 내 생일 같은 건....”

“제가 말했죠? 헤세의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 특별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비록, 점쟁이 덕분에 그 특별한 날이 조금 망치긴 했지만 오늘 가장 헤세가 행복했으면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받아줄래요? 어머니의 유품인 것을 떠나 이 귀걸이의 주인은 헤세라고 생각해요. 유품이라도 그저 눈으로만 보는 장식으로 평생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물방울 모양의 루비 귀걸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귀걸이였다. 3단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는 겉은 화려해보이면서도 루비 특유의 붉은 빛깔이 마치, 루드비카의 머리색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 더더욱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하나 뿐인 보물이자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끼고 다닌 유품이라 생각하면 이 귀걸이의 무게가 헤르세인에겐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헤르세인의 두 눈이 어서 대답을 기다렸다. 그 두 눈은 마치, 이 귀걸이를 받을 충분한 자격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흔들리는 눈이었다. 그러나 정작 흔들리고 있는 헤르세인의 눈동자와 달리, 루드비카는 열린 케이스를 도로 닫아 그녀의 품에 도로 상자를 안기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격보다는 이 귀걸이의 주인은 처음부터 헤세의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귀걸이를 주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헤세를 만나게 되면서, 헤세의 연인이 되면서 이 귀걸이의 주인이 이제야 누군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헤세, 당신의 것이라고.”

“루카….”

“헤세,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제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헤세의 옆에 있게 해줘서 고맙고, 당신의 연인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게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 여자만의 한 남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눈물의 한 방울은 기어코 눈가에서 가련히 흔들리며 뺨을 타고 떨어지고 말았다. 처음이었다. 그 누가 자신의 태어남을 이토록 고맙게 생각해주는 이가 있을까. 그 누구도, 하물며 생모인 왕비조차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정조차 해주지 않던가. 그러나 단 한 사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 이 말을 듣고자 지금까지 버텨내고 살아왔던 걸까?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처럼 오늘의 날은 헤르세인에게 있어,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가장 특별한 날임은 틀림없었다.

비밀의 집에서 루드비카와 아쉬운 헤어짐을 하고서 비밀통로를 통해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온 헤르세인은 침실로 들어서기까지, 등골에서 느껴지는 싸함을 지워낼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의 궁전은 사람 한명조차 드나들지 않는 궁전임에도 마치 얼음 궁전마냥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오한에 헤르세인은 서둘러 문이 굳게 닫혀있는 침실의 앞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

다행이도 아직까진 해가 저물지 않은 시간이라 제 시간에 맞춰 왔다 생각하며 침실 문을 열었을 때, 헤르세인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 아래로 떨어트릴 수밖에 없었다.

“어딜 갔다 오는 것이냐.”

“와, 왕비전하….”

“다시 한 번 물으마. 지금, 너는, 어디에서, 무얼, 하다 오는 것이냐 물었다.”

너무 안일했던 것일까. 언제나 머릿속엔 방심하지 말라며 경각심이 상기를 시키곤 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왕비가 직접 자신이 비운 자리를 틈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 헤르세인과 달리, 왕비의 서늘한 푸른 눈동자는 헤르세인이 떨어트린 꽃다발을 봄으로서 이번엔 제대로 확신할 수 있었다. 하녀가 본 것은 사실이며, 헤르세인과 루드비카, 이 두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이가 아님을.

“사실대로 고하 거라. 내가 먼저 그 사실을 들추기 전에.”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 어느 때 보다 느릿한 걸음으로 헤르세인과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러나 왕비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자신을 쏘아보듯 응시하는 서늘한 눈빛에 헤르세인은 신음을 삼키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루드비카와의 관계를 말할 수 없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헤르세인에게서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오자 왕비의 눈썹은 굽은 산처럼 솟아올랐다. 혹시나 하며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무겁게 입술을 다문 헤르세인의 모습에 왕비는 제자리에 멈춰,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눈동자를 내리 깔아 차디찬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보며 얼음 같은 입술을 움직였다.

“모른다? 정녕 내 입으로 사실을 말해야 네가 숨기는 것을 토할 것이냐? 허면 묻자꾸나. 지금 네가 떨어트린 그 꽃다발, 어디에서 난 것이냐? 누가 준 것이야?”

“....”

이제는 입을 아예 다물기로 작정했는지 도무지 열 생각이 없는 헤르세인의 모습에 왕비는 직접 그 입을 통해 듣기를 포기했다. 꽃다발의 푸른 여린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진 것이 보였지만 그 꽃잎들처럼 제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과연 헤르세인은 알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헤르세인을 향한 분노일지도 몰랐다.

“어리석은 것. 기어이 네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구나. 기어이 내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있어. 헤르세인, 지금까지 네가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오늘 뿐만이 아닌, 오래 전부터 같이 이곳에 있었음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왕비전하!”

설마, 루드비카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을 줄이야. 헤르세인은 제 심장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왕비가 어떻게 루드비카의 존재까지 알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지금 모른 척 잡아뗀다 해도 왕비는 그것을 곱게 믿어줄 위인이 아니었다. 차라리, 자신이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루드비카까지 그 피해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벌이라면…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니 루드비카 그 사람과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헤르세인!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 감히 네 주제에 라인하르트 공자를 만나다니! 왕실은 물론이고 모든 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비웃을지 알고는 있느냐?!”

처음엔 그것이 두려워 루드비카가 내민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은 감내할 수 있으나, 그를 향한 손가락질과 그 상처를 어찌 두고만 보고 감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아버렸다. 루드비카와 함께라면 어쩌면 그 손가락질도 비난도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아닌, 자만심이었던 건지도 몰랐다. 자신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이 곁에 있어준다는 안도와 평안함. 끝내 그것은 자만심이란 제 목 끝을 겨누는 양날의 검이란 것을 모른 채.

“이 차가운 왕성에 들어와 저를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입니다. 온전히 제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이고! 제 핏줄이 천해도! 왕비전하에게 있어서 제 존재가 하찮고 치부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도! 그 사람에겐 저란 존재는 치부도 천한 것도 아닌 그저 사람과 사람… 한 사람으로 돌아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닥쳐라! 그리하여 네 존재가 특별히 느껴지더냐? 온 세상이 네 것 마냥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냐?! 천만에! 헤르세인, 너는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앞으로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

“....”

“처음엔 감내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 자신만만히 말하겠지. 하지만 과연 그 자신감이 얼마나 갈까? 왕비의 치부라 불리는 사생아 왕녀와 잘나기로 소문난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 너는 그들의 손가락질을 비난을, 비웃음을 온전히 감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설사, 감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 두 사람은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국왕폐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있지 않으시겠지. 사생아에 불과한 왕비의 딸이 그것도 폐하께서 가장 아끼고 아끼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둘째 공자를 감히 사생아 따위가 넘보았으니!!”

“!!”

루드비카와의 인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언제나 무언가가 불안했다. 남들에게 그와의 사이가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혹은 왕비에게 알려질까 하는 불안감? 애초에 그 두려움과 불안감은 루드비카를 받아들인 시점에서, 그를 마음에 품은 그 순간부터 감내해야할 부분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전혀 국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신에게 전혀 무관심한 국왕이기 때문이었을까? 아님, 자신이 국왕에게 무관심하기에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만약, 국왕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왕비가 헤르세인과의 거리를 거의 좁혀갔다. 그리고 혀를 차는 동시에 헤르세인을 지나쳐 이 침실에서 나가려 했지만, 왕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왕비가 나갈 수 없도록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잡은 건 헤르세인이었다. 그리고 이토록 무겁게 두 무릎을 꿇은 헤르세인은 간절히 왕비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간청했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곁에 오래는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느냐? 우습구나, 그깟 하잘 것 없는 사랑이란 것 때문에 오만방자하던 네가 그것도 가장 증오할 터인, 내게 무릎까지 꿇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제가 태어난 것을 유일하게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도! 왕비전하도 모두가 제 존재를 부정함에도! 유일하게 저를 보듬어 준 사람이 그 사람 뿐 이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꿈에서 깨 거라. 그는 네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너와는 근본이 다른 공자이며, 네 짝이 될 사람도 아니다. 다시 말해주랴? 너와는 처음부터 인연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사내이다. 그는!”

찢어질 정도로 제 목숨마냥 부여잡고 있는 그 손길을 거부하듯 왕비는 천천히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자신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왕비의 드레스 자락이 헤르세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녀의 두 손에는 그 어떤 것도 잡혀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차디찬 바닥만 지탱하듯 손을 뻗고 있는 것이 고작일 뿐. 왕비가 완전히 침실에서 나갔음에도 헤르세인은 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왕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굴욕감보다 더 이상, 루드비카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날 것임을 생각하면 도무지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없었다.

“…루카, 루카….”

눈물은 바닷물이 되어 바닥을 하염없이 적셔갔다. 그 끝이 없는 소나기처럼 헤르세인은 하루 종일, 울고 또 울며 밤새도록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슬럼가에서 살던 때 이후로 이토록 밤을 새 본 기억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특히나 눈물과 함께 밤을 지새운 기억이 있었던가? 퉁퉁 부어버린 눈을 하며 헤르세인은 탁자위로 덩그러니 놓아진 푸른 꽃다발과 그가 준 귀걸이에서 초점을 잃은 멍한 눈으로 상념에 잠겨 있었다.

밤새도록 몇 번이고 생각했던가. 루드비카와의 이 인연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그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시간이 이토록 짧으면서도 금방 다가올 것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을 뿐.

헤르세인은 힘없는 손을 들어 작은 케이스에 담긴 귀걸이 한 짝을 손바닥 위로 들어올렸다. 여전히 눈이 부시고 그를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루비 귀걸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을까? 정작 자신은 이 귀걸이를 낄 수 없다는 것을. 매일 같이 제대로 자 볼 수 없는 짧은 꿈의 시간과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떠올리는 지옥 같던 악몽. 그리고 그 악몽은 다시 지독한 트라우마의 잔상이 되어 혹시라도 귀에 노예가격표가 찍힌 귀찌를 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매번 거울 통해 확인하는 자신을 볼 때면 얼마나 허무하던가.

뚫리지 않은 귓불을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던 헤르세인은 이내 숨을 들이키고서 귀걸이의 가장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 부분을 귓불 쪽에 서서히 가져다 댔다. 그리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있는 힘껏 귓불에 찔러 넣으려 했지만, 그 뾰족한 바늘이 상처 없는 귓불을 채 뚫기도 전에 헤르세인은 귀걸이를 도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어… 그가 준 소중한 것임에도 왜 나는 이것조차 제대로 껴보질 못하는 거야? 왜? 왜....”

그저 귓불에 찌르고 걸기만 하면 그 뿐인 것을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손까지 덜덜 떨리며 식은땀이 흐르는 걸까. 루드비카에게만은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준 선물을 자신이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것마저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 귀걸이가 그저 누구의 귀에도 걸리지 않을 장식으로만 생각하면 그저 씁쓸할 따름이었다.

귀걸이를 다시 케이스 안에 고이 넣어두며 헤르세인은 이내 상자를 닫아버렸다. 굳게 닫혀버린 이 상자처럼 헤르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침실의 문을 보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그가 나타나지 않기를. 이대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아주기를. 만약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 앞은 곧 끝날지도 모를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헤르세인은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히 바라고 바랐다. 제발 루드비카가 이곳을 찾아오지 말아주기를 빌며.

간만에 기분 좋게 잠이 든 루드비카는 평소보다도 이른 아침의 시간에 일어나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오늘은 유독 머릿결이 좋아 보이는 덕분인지 괜히 묶고 싶은 마음에 루드비카는 노란빛의 리본 끈을 하여금 포니테일로 묶어 조금 단정한 차림으로 준비를 완전히 끝마칠 수 있었다. 일찍 일어난 덕분에 집사인 헨드릭에게 조금 이른 식사를 부탁한 덕분에 준비를 전부 마친 루드비카는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저 혼자일거라 생각한 것과는 달리, 웬일인지 벌써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후작의 모습에 몸을 살짝 굳히고 말았다.

“네가 이런 시간에 일어나다니. 별일이구나.”

“언제… 오셨습니까. 편지 한통 없으시기에 저는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트고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만.”

얼굴은 웃고 있음에도 입꼬리에서 느껴는 경련은 어쩔 수 없는지 루드비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던 두터운 서류더미를 식당에서조차 훑고 있는 후작은 제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거기에 서있을 것이냐? 어서 자리에 앉거라. 내가 반갑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식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정확히 루드비카의 심정을 꼬집어내는 후작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제자리에 멈춰있던 발걸음을 다시금 움직여야 했다. 대충 후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의자를 끌어 자리에 앉은 루드비카는 하녀가 가져다주는 찬물을 들이킬 생각도 없이, 오로지 시선은 눈앞에 있는 빈 접시에만 두기로 작정하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서류를 훑고 있음에도 루드비카를 흘긋 주시하던 후작은 완전히 서류더미를 내려놓고서 한마디 거들었다.

“어떤 심경의 변화이더냐. 이젠 그 여우같은 가면은 내게 완전히 벗기로 작정한 것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말을 다르게 해야겠구나. 아직도 하찮은 가문의 그 여식과 만나는 것이냐?”

“제가, 후작각하께 그것을 대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레이스 공녀 이후로 루드비카와는 완전히 틀어진지 오래였다. 아니, 틀어질 것도 없이 처음엔 그저 루드비카의 일방적인 반항이라 생각했지만 후작은 그 생각을 달리해야했다. 아직도 말투나 대답, 그리고 표정을 보고 있자니 여전히 이름 모를 여식과 만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혹시나 하며, 자기가 먼저 관두지 않을까 싶어 내버려 두었건만,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으니 후작은 살짝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느덧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이동식 트레이를 끌고서 식탁위로 하나 둘씩 올라오는 아침 식사거리에 후작은 잠시 머리 아픈 생각을 접기로 했다.

“그래, 식사시간까지 괜한 말싸움은 하고 싶지 않구나. 들거라. 아침만은 너나 나나 조용히 먹자꾸나.”

후작의 말을 끝으로 식당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적이 감도는 고요한 아침의 식시시간이 되었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치는 소리가 전부일 정도로 루드비카도, 후작도 두 사람 사이엔 그 어떤 말도 주고받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식사시간이 끝나고 혹시라도 체하기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루드비카는 먼저 자리를 뜨기 위해 한발자국 움직이자, 두발걸음 채 되기 전에 후작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이른 아침부터 그리 차려 입고 어딜 가는 것이냐.”

루드비카는 살짝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고개를 원점으로 돌렸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 그것을 후작에게 알려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하나 관심조차 두지 않던 각하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계속 그 관심 접어 두십시오. 저는 각하의 관심 따위 바라지 않으니.”

숨 막힐 것 같은 식당에서 빠져나와 루드비카는 헨드릭에게 미리 대기시켜두라 이른, 마차를 타고서 저택을 빠져나왔다. 이른 아침부터 후작의 얼굴을 봐서인지 식사시간임에도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생각보다 일찍 별장으로 돌아온 후작의 모습을 보니, 더욱 루드비카는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숭숭하던 마음도 마차가 익숙한 꽃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꽃 가게의 주인은 이제 루드비카를 단골손님으로 생각했는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루드비카가 꽃을 고르길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동안 고민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꽃 가게의 주인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오늘 새롭게 들여온 꽃을 소개하며 루드비카에게 한 송이 내밀었다.

“혹시 이 꽃은 어떠세요? 보랏빛색의 꽃잎이 참으로 예쁘죠? 가을에만 피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 꽃의 이름은 뭔가요?”

“공작초라고 해요. 꽃말은 ‘항상 좋은 기분’ 또는 ‘안부’를 나타내는 꽃말을 가졌죠. 선물을 하기엔 제격이죠?”

“공작초라. 그럼 오늘은 이 꽃으로 부탁드리죠.”

금방 잘 포장된 공작초의 꽃다발을 계산하고서 루드비카는 꽃다발과 함께 몸을 마차에 싣고 얼마가지 않아 광장 인근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차를 돌려보내고서 이제는 익숙한 걸음으로 인근의 깊은 숲에 들어가 왕성의 비밀통로가 이어진 비밀의 집에 도착한 루드비카는 다시 한참을 걸어 헤르세인이 있는 레인 궁에 완전히 도착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벽을 짚어 비밀 통로의 문을 연 다음, 눈을 따갑게 하는 햇볕으로 잠시 눈을 찌푸렸지만 금방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통로의 문이 완벽히 닫히는 것을 확인하며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이 있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어느덧 침실의 코앞까지 도착한 루드비카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두드렸다.

똑똑똑.

지금쯤이면 들렸어야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평소보다 궁전에 도착한 시간이 조금 빠르긴 했지만, 루드비카는 그녀가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당연하게도 그녀가 일어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번을 두드림에도 안쪽에서 들리지 않은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다. 웬만하면 제멋대로 그녀의 침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아 루드비카는 처음으로 그녀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침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길 선택했다.

문고리를 잡고 문 열기까지 몇 분조차 걸리지 않은 상당히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두 눈앞에 멀찍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헤르세인을 불렀다.

“헤세, 저 왔어요. 그보다 몇 번을 두드렸는데 대답해주지 않은 건가요? 혹시 숨바꼭질이 하고 싶은 거라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차라리 그냥 돌아가지 그랬어.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지… 왜 당신은….”

분명, 문 앞의 거리와 그녀가 있는 거리까지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그것이 멀게 느껴지면서 헤르세인의 울먹이는 얼굴에 루드비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헤세, 대체 왜 그런 얼굴을… 설마 무슨 일이 있는....”

“라인하르트 공자. 설마 했지만, 이토록 당당하게 드나들고 있을 줄이야. 이렇게 몰래 대낮부터 왕녀의 침실에 드나드는 것을 그대의 아비인 라인하르트 후작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겐가?”

“왕비전하….”

“헤르세인, 그리고 라인하르트 공자. 내 눈에 이 사실을 들킨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야!”

노기에 가득 찬 왕비의 시선이 이토록 시릴 수가 없었다. 루드비카는 재빨리 헤르세인에게 고개를 틀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러내리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언젠간 들이닥칠 그 불안한 미래가 바로 눈앞에 현실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라인하르트 공자, 그대가 말해보게. 무엇이 부족하여 헤르세인 왕녀와 어울리는 건가? 혹시 헤르세인 왕녀가 그대에게 접근하던가? 그대를 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하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라인하르트 후작의 자제인 그대가 어찌 보잘 것 없는 사생아 왕녀와 연인 놀음 따윌 하는 겐가?!”

루드비카는 왕비를 좋게 보지도,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편도 아니었다. 그저 빈센트 왕자와 헤르세인의 생모이자 국왕이 가장 총애하는 왕비로만 보았을 뿐. 그러나 제 아무리 못난 딸임에도 저렇게 상처가 될 말을 그것도 딸 앞에서 직접적으로 뱉어낸다는 것이 루드비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왕성에서 떠도는 왕비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 처음엔 그저 그런 과장된 헛소문이 아닐까 싶었지만, 막상 왕비와 헤르세인의 관계를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왕비가 얼마나 그녀를 딸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또 그녀는 얼마나 상처를 받으며 나 홀로 이 왕성에서 쓸쓸이 버터야 하는지. 루드비카는 그것이 가슴 아팠다.

“놀음 따위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왕녀전하를 놀음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저는 처음에도 현재도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 마음은 오직 헤르세인 왕녀전하에게 향해 있고, 설령 왕비전하의 말처럼 홀렸을지라도 저는 오히려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정할 생각이 없다?”

“예, 제가 첫눈에 먼저 반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반한 것이 꼭 나쁜 것입니까?”

어쩌면 왕비의 말이 맞는 건지도 몰랐다. 헤르세인이란 여인에게 홀려,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빠져버렸으니까. 하지만, 왕비는 그 말이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지 미간을 구기며 입술을 짓이겼다.

“건방지기 짝이 없군, 라인하르트 공자. 지금 그대의 이런 행동과 말, 라인하르트 후작은 전부 알고 있는 건가?”

“그건....”

“모를 테지. 아니, 말을 할 수 없는 거겠지. 그 어떤 귀족이 라인하르트 후작에 대해 모르는 이가 있던가? 왕실의 지나가는 하녀조차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권력과 모든 재력을 갖춘, 그리고 가장 명예를 중시하는 이가 바로 라인하르트 후작일 터인데. 그런 후작에게 그것도 그의 둘째 아들이란 자가 어찌 미치지 않고서야 근본도 모를 사생아 왕녀와 어울린다고, 연인 놀음을 하고 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루드비카는 왕비의 그 어떤 말에도 끝내 반박할 수 없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용기를 떠나 후작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도 아닌, 바로 갈가리 찢겨질지도 모를 상처만 남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목구멍에서부터 입술까지 몇 번이고 맴돌았던가. 마음속은 이미 수십 번이고 후작에게 외쳤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한 사람이라고. 오직 헤르세인 그녀 뿐 이라고. 그러니 혼인 따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감히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을 입에 담는 순간, 원치 않는 이별이 당장 눈앞으로 찾아올 테니까. 자신 때문에 원치 않은 고통과 상처를 그녀가 전부 받을지도 모르니까.

여리고 여린, 자신의 하나 뿐인 연인. 안 그래도 이미 상처가 많은 그녀인데 여기서 더 어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루드비카는 할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 그녀가 상처받는 것은 원치 않았고 차라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했지, 그 거대한 고통을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다.

“왕비전하의 말씀처럼 저는 후작각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당히 대답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건 헤르세인 왕녀전하께 가는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기에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것입니다. 왕비전하께선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그저 치부인 사생아라 여기실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고귀한 피와 천한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눈엔 모두가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저 역시 헤르세인 왕녀전하는 그저 사생아도, 왕녀전하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연인이자 제 몫을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잘못된 것입니까?”

“라인하르트 공자! 그대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드는 겐가?!”

“저는 사랑에 천함과 귀함, 그것을 가로 막는 신분 따윈 중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이내 굳은 결심으로 왕비의 앞에 허리를 숙여 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올곧은 시선으로 왕비의 시린 눈을 마주하며 헤르세인과의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왕비전하께서 그럼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신다면, 저는 제일먼저 왕비전하께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와 헤르세인 왕녀전하의 사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왕비는 지금 어떤 눈으로 루드비카를 봐야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어떤 귀족의 공자들조차 이런 식으로 왕족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고작 사랑 때문에, 그깟 사랑이 뭐라고 한 여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허락을 구하고 무릎을 꿇는단 말인가. 왕비는 루드비카를 향해 있던 고개를 살짝 틀어 근처에 있던 헤르세인의 모습을 슬쩍 곁눈질을 했다.

마찬가지로, 헤르세인 역시 상당히 놀랐는지 크게 떠진 눈을 하며 루드비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이 보였지만, 왕비는 신음을 삼키며 파르르 떨리는 눈을 감아야 했다. 왜 이토록 벌어지면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나 설령 자신이 허락한다 해도 왕실은 물론이고 모든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작은 스캔들 하나만으로 크게 소란을 떠는 것이 누구이던가. 바로, 귀족들이 아니던가? 산 넘어 산이라고, 국왕까지 만약 허락한다 해도 후작은 이 사태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었다.

라인하르트 후작이 어떤 이던가. 오죽하면 자신보다 얼음 같은 피를 가진 철혈의 후작이라 불리는 그가 아니던가. 특히나 요즘 들어 후작 쪽과 국왕 사이에 자주 혼담이야기가 오고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아마도 그 혼담의 주인공은 후작의 후계자인, 첫째 공자와 왕후의 딸인 케이사 왕녀일터. 만에 하나 그 혼담이 진짜로 성사된다면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은 더더욱 가까이해서도, 이루어질 수조차 없는 인연이었다.

왕비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눈을 똑바로 뜨며, 루드비카를 향해 매정히 대답했다.

“인정…? 무엇을 인정해 달라는 말인가? 라인하르트 공자. 나는 그대에 관한 소문은 물론이고, 그대에 관해 나돌아 다니는 무수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네. 사교계나 무도회에서 만난 아리따운 공녀란 공녀들은 모두 한 번씩 그대의 손에 거쳐 갔다는 이야기를 그대는 알고 있나? 또한, 그대의 형제이자 후작의 후계자인 첫째 공자는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최연소 기사로 발탁되어 그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그대가 하염없이 여인을 끼고 놀 동안, 그대의 형인 첫째 공자는 차근차근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지며 힘을 모았을 터.”

“....”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대는 말로는 인정해달라면서 정작 인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네. 증명할 것도, 권력도, 재력도 그 어느 것 조차 없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라인하르트 후작의 이름만 거창한 둘째 공자일 뿐이란 이 말이네! 그런데도 인정을 해 달라? 공자는 내가 이토록 우스운가?!”

단 한번이라도 부정하고 싶은데, 루드비카는 그 한번조차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왕비의 말처럼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그 무엇을 믿고 당당히 인정해 달라 대답할 수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신의 형, 클로드. 후계자로 태어나 후작이란 자리를 물려받고자 지금까지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던가.

그에 비해 자신은 어떠하던가? 후작의 감춰진 사생아기에 자신은 라인하르트 가문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차남이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빼곤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설사, 가지고 싶어도 자신의 위치와 혹시라도 저를 경계할 클로드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스스로 그토록 좋아하던 검까지 놓아버렸지 않았던가.

그 모든 것을 전부 놓아버렸지만, 차남이란 위치이기에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걸까?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작한다 해도 많이 늦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까지 포기할 순 없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갖춰야만 했다. 당당히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떳떳이, 그 어디에도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그녀의 곁에 있기 위해선 증명할 것이 루드비카에겐 절실히 필요했다.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증명? 증명을 하겠다고 했는가?”

“예, 그러니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왕비전하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건가? 라인하르트 공자.”

증명. 그것은 여태까지 손가락을 유연히 움직이던 피아노 연주가 아닌,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피아노 대신 검을 잡는 것. 검 대신 피아노를 선택한 시간이 얼마이던가. 12년. 스스로 검을 놓아버린 10살의 과거와 인정을 받고자 증명을 하기 위해 다시 검을 잡아야하는 현재의 시간. 루드비카는 두 무릎을 꿇고 있던 한 쪽 무릎을 세워 자신이 뱉어낸 말을 지키고자 맹세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왕비를 향해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앞으로 석 달 뒤, 왕실에서 새로운 기사를 뽑는 기사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은 라인하르트 공자… 그대는 기사가 되겠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대의 형인 첫째 공자와 달리, 그대는 검을 다루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네. 그리고 후작이 그대에게 몇 번이고 기사 시험을 권유했음에도 그대가 계속 거절했음을 잘 알고 있고. 아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런 그대가 그것도 석 달 만에 검술을 배워 기사가 된다?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왕비가 영 못 믿겠다는 얼굴로 되묻자,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진지한 눈빛으로 왕비를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자, 제가 왕비전하께 증명할 길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게 석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가 된다면 저와 헤르세인 왕녀전하의 사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왕비전하께 보일 제 최선의 증명입니다.”

“....”

이토록 무모한 이는 없었다. 석 달 안에 부족한 검술 수련하는 것도 모자라, 기사가 되겠다고 하다니. 터무니없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루드비카의 눈빛이나 말투 그 진지한 자세를 보고 있자면, 거짓이 아닌 정말로 그 증명을 이뤄낼 것 같은 느낌에 한참이나 말을 아끼던 왕비는 끝내 받아들였다.

“그 마음이 부디 변심하지 않기를 빌도록 하지. 만에 하나 정말로 정식 기사가 된다면 그때 나를 다시 찾아오게. 단, 기사가 되지 못할 시에 그대는 당장 헤르세인과 이별해야 할 것이야.”

“꼭, 왕비전하를 찾아뵙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라인하르트 공자, 그대는 오늘부로 기사 시험을 치루기 전까지 이 궁전에 발을 들이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모르는 사이 이 궁전에 발을 들일 시에 나는 그 즉시, 라인하르트 후작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네. 그래도 하겠는가?”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석 달 뒤의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네. 바깥에 있는 하녀들은 들어 오거라!!”

왕비의 외침에 침실 바깥에서 꽁꽁 숨어 대기하고 있던 하녀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왕비는 허리를 조아리고 있는 하녀들을 향해 오늘부터 이 궁전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명령했다.

“너희 하녀들은 오늘부터 이 궁전의 담당이 되어 철저히 헤르세인 왕녀를 감시하도록 해라. 또한, 오늘의 일을 반드시 내가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상,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왕비전하.”

혹시라도 다른 이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 즉시 목숨을 취하겠다는 왕비의 싸늘한 목소리에 하녀들은 허리를 굽히며 그 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다. 이윽고 왕비와 하녀들이 완전히 침실에서 떠나고 헤르세인과 루드비카,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을 때, 제일먼저 입을 연건 헤르세인이었다.

“왜… 왜 그랬어… 무릎까지 꿇고 고작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다시금 눈가가 붉어지며 금세 눈물 한 방울 흘러내릴 만큼 헤르세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흐리기 전에 혹시라도 그 여린 뺨을 적실까 염려된 루드비카가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내주며 잔잔히 미소를 그렸다.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거지만, 떳떳해지고 싶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헤세의 곁이 어울리는, 가치 있는 그런 떳떳한 사람이. 처음엔 왕비전하의 말 하나하나가 무섭고 떨리고 아프기도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요. 전부 맞는 말이었으니까… 저는 왕비전하의 말처럼 증명해야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그저 피아노를 치는 게 고작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워요 헤세.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증명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헤세가 위험할 때 곁에서 지켜줄 수 있는, 언제나 뒤에서 헤세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사가 낫지 않나요? 피아노 밖에 칠 줄 모르고 얼굴만 자신만만히 믿고 있는 방랑한 남자보다는 말이죠.”

“루카....”

헤르세인이 다른 눈가에 혹시 모를 눈물을 떨어트리기 전에 루드비카는 그녀를 제 품에 꽉 끌어안았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앞으로 석 달 동안 품에 안지 못할 가녀린 그녀의 몸과 마음껏 들이키지 못할 풋풋한 채취. 루드비카는 그 얇은 허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두 팔을 단단히 감싸 안아 가장 애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 깜짝 할 사이, 석 달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가겠죠? 아니, 당장이라도 내일이 그 석 달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아쉽지 않을 텐데. 더더욱 떨어지고 싶지 않을 텐데…. 헤세… 제가 없을 동안 밥 잘 먹고, 어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해요. 알았죠? 저 없다고 한눈도 팔지 말고요. 그리고… 기다려 줄 거죠? 아니, 기다려줘야 해요. 나에겐 당신뿐이듯, 당신에게도 나뿐이니까.”

“…응, 기다릴게. 어디에도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기다릴 거야.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한눈팔지 못하도록 빨리 내 곁으로 와야 해. 다시 와서 내 곁에 있어 지금처럼 있어줘. 루카.”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석 달의 시간. 처음으로 헤르세인과 루드비카는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하지 못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시 동안 떨어져야만 하는, 어쩌면 두 사람에겐 길고도 긴 석 달의 시간일지도 몰랐다.

단단한 평지위로 만연한 가을 색을 입은 풀잎들. 그 단단한 평지 위로 수많은 석판과 이름이 새겨진 묘비들이 반듯하게 줄을 지어, 생전 숨을 쉬며 살았던 생명들이 이곳에서 잠들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인적조차 없는 묘지의 공터. 자칫 괴담에서나 나올법한 유령이 혹시라도 돌아다닐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 누군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묘비들을 지나쳐 어느덧 익숙한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찾게 된 발소리의 주인은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미소조차 없는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과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시선. 그 호박색의 눈동자에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가득 뒤섞여있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눈 한번 깜빡일 사이도 없이 발소리의 주인은 그저 묘비에 새겨진 이름만을 쭉 응시했다.

-로자르나 벨 하이트 마르세유. 이곳에 평온히 잠들다-

“...어머니.”

묘비가 새워진 곳.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 이곳은 루드비카의 생모이자 이른 나이에 눈을 감게 된 그녀, 로자르나의 무덤이었다. 몇 년 만에 찾아오는 무덤이었던가. 루드비카는 처연하고도 미안함을 그린 표정을 담아내고서 무릎을 굽혀 코트 속에 고이 두었던 손수건을 꺼내었다. 그리고 손수건을 들어 묘비를 정갈히 닦아냈다. 몇 번이고 루드비카의 손에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닦여지자, 사람의 손을 탄 묘비는 깨끗하게 빛을 내며 로자르나의 이름을 비추었다.

그 새겨진 이름을 한참동안이나 다시 지켜보던 루드비카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둔 새빨간 장미꽃다발을 묘비 위로 올려두며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찾지 않아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죄송해요.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건가요?”

루드비카는 그녀가 잠든 묘비를 향해 조심스레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연히 없었다. 죽은 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법.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루드비카는 땅속에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다. 그동안 찾지 않은 아들이 많이 미운지, 혹은 가득 심술을 부리며 삐치지 않았는지. 그 작은 환청이라도 들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바람소리와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주변의 소리에 루드비카는 쓰게 웃으며 괜스레 꽃다발의 리본 끈을 만지작거렸다.

“혹시 빈손으로 오면 어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미꽃을 가져왔어요. 있잖아요,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께 찾아온 건…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제 얘기 들어주실 거죠?”

그때, 사라락 소리를 내며 루드비카의 주변으로 작은 바람이 스쳐갔다. 바람이 스쳐지나감과 동시에 루드비카가 놓아둔 장미꽃잎을 바람이 건드렸는지, 장미꽃잎이 팔랑거리며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로자르나가 긍정어린 대답을 하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옅은 미소를 그리며 손끝에 만지작거리던 리본 끈을 조심스럽게 놓아주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어머니께 물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장이 요동치고,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조차 모를 만큼 그 사람 밖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워낙 어릴 때의 일이라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의 어린 저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언젠간… 제가 성인이 되고나면 어머니처럼 사랑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아주 어린 과거의 자신은 사랑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사랑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린 루드비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이자 말이었다. 하지만 로자르나의 말처럼 성인이 되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가볍지도 않은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도 가장 애틋하며 지워낼 수 없는 감정인지. 그 감정을 느끼고서야 루드비카는 한때 후작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감정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이토록 가슴 아픈 감정인지.

“제겐 있을 수 없는 감정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처럼 한순간은 아닐지라도, 저 역시 한 여인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오직 그녀 밖에 보이지 않고, 그녀가 아니면 심장이 그 누구에게도 떨리지 않으며, 그녀의 곁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저를 향한 그녀의 눈이 다른 여인들과 달랐기에 저를 향한 그녀의 행동이, 다른 여인들과 달랐기에 호기심이 일어나고 유독 눈에 닿았다. 하지만 그녀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그녀의 상처들과 서툰 표현. 그리고 진심.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나 싶으면 그녀가 스스로 멀리할수록 루드비카의 눈엔 그녀의 여린 모습들이 하나 둘씩 보였다. 또, 곁에 서서 지켜주고 싶으며 힘이 된다면 그 곁에서 평생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평생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단 하나의 인연일지도 몰랐다. 설령, 하늘에서 매듭지어준 붉은 실의 인연이 아닐지라도 제 스스로 그 실을 만들어 그녀의 손가락에 붉은 실을 꿰고 싶을 만큼 루드비카는 이제 그녀가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지독한 사랑에 빠진 건지도 몰라요. 너무 깊이 빠져서 그녀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이제 제 세상은 그녀가 제 세상이고 저의 중심이에요.”

그녀를 제 손으로 놓아주기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녀와의 함께한 시간이 루드비카에겐 지울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추억이자 과거, 그리고 현재였다. 이젠 놓아줄 수 없는 자신의 연인. 루드비카는 나직이 그 이름을 로자르나에게 고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 헤르세인. 어떤가요? 어머니. 어머니가 듣기에도 사랑스러운 이름이지 않나요? 하지만 제 연인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헤르세인이 아닌, ‘헤세’라고 늘 불러주죠. 헤세 역시, 어머니가 저를 불러주던 그 애칭인 ‘루카’로 불러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가렛을 통해 제게 남기신 귀걸이… 처음엔 제가 계속 하고 다닐까 생각도 했지만,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어머니의 귀걸이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제 연인인, 헤세이고요.”

루드비카는 서서히 굽히고 있던 허리와 무릎을 일으켜 세워 시선만 묘비에 고정시킨 채, 한참 동안 침묵을 고수했다. 그 오랜 침묵 끝에 루드비카는 서서히 다물려진 입술을 열어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 후작각하의 감시아래란 변명아래 이 불효자가 이렇게 찾아온 건 어머니의 앞에 맹세하기 위해서 입니다.”

언제나 로자르나 앞에 아이처럼 보이던 과거의 말투가 아닌, 루드비카는 그 말투를 버림으로서 딱딱하고도 번듯한 귀족의 말투로 돌아가 이제 그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완전히 떠나가고자 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해주신 피아노를 놓으려 합니다. 피아노 대신 검을 잡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루드비카가 아닌, 제 연인만큼은 반드시 제 손으로 지킬 기사가 되고자 합니다. 한때는…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마르세유 남작가의 작위를 그대로 이어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 작위보다 제겐 라인하르트 란 가문의 성이 지금의 제게 가장 필요합니다. 평생을 라인하르트 란 이름에 속박되어 살고 싶지 않았지만, 헤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라인하르트 가문의 성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부디 제가 어머니의 가문을 잇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시길… 저는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장 행복했고, 어머니란 한 사람이 저의 하나 뿐인 어머니였음이 가장 자랑스러웠고, 가장 존경했으며 가장 사랑했음을....”

10살 이후의 어머니에 관한 기억은 더 이상 없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다는 추억만으로도 루드비카에겐 충분했다. 10살이든, 9살이든, 그때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장 행복했으며, 그것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을, 보물의 기억이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기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사가 돼서 설령, 헤세의 연인이 될 수 없다 해도 그녀만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만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사가 되겠다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의 다짐. 이것은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결의이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루드비카의 맹세이기도 했다.

그 맹세를 끝으로 루드비카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고자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움직여 뒤를 돌았다. 뒤를 돌자 루드비카는 놀란 얼굴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차분한 얼굴을 하며 눈앞에 있는 여인의 이름을 익숙히 불렀다.

“…마가렛.”

“이제 떠나시는 군요. 루드비카 도련님….”

“그동안, 나대신 내 어머니의 곁에 계속 남아줘서 고마워. 마가렛에게 나는 큰 빚을 진거나 다름없어.”

“빚이라니요. 당연한 일을 한 것 뿐 인걸요? 제 주인은 언제까지나 로자르나 아가씨, 단 한 분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가씨의 핏줄이신 도련님을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것을요.”

어렸을 때보았던 마가렛의 모습과 지금의 마가렛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어리바리하던 전속하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전속하녀로서의 일이 끝났음에도 끝까지 로자르나의 곁에 머물러 그 자리를 지키는 충직하고도 지난 세월을 견뎌낸 전속하녀의 모습이었다.

“아직까지 마르세유의 재산은 마가렛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후작각하께선 그것을 나에게 넘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도련님.”

“어쩌면 그 재산은 나에게 오는 것보다 마가렛이 온전히 가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 마가렛. 마르세유 가문의 재산과 상속권은 전부 마가렛에게 양도하겠어. 아니, 양도하기 보단 내가 포기한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지. 재산과 상속권에 관해선 내가 서류를 따로 보낼 테니, 이제부터 마르세유 가문의 재산은 온전히 마가렛의 것이야.”

“도, 도련님!! 어째서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제게―!”

갑작스러운 청천벽력의 목소리에 마가렛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크게 저었지만, 루드비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염두하고 생각한 결정이기에 그 결정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곁에 있어준 보상이라 생각해도 좋아.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실 거고. 오히려 받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

“하, 하지만 도련님!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루드비카는 더 이상,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은 마르세유 가문의 재산에 큰 욕심이 없음을 덧 붙였다.

“아니. 별개의 문제를 떠나, 난 앞으로 계속 라인하르트 란 이름에 얽매여 평생 못 벗어 날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라인하르트 란 가문 아래에 충분히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지. 오히려 그 재산은 마가렛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마가렛. 나와 어머니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해.”

이토록 어마어마한 선물이 과연 있을까? 마가렛은 분명하게 계속 거절을 하고 싶었으나, 생각을 돌리지 않겠다는 루드비카의 단호한 표정에 마가렛은 결국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루드비카가, 제 주인 아가씨의 하나 뿐인 핏줄이 저토록 강경한 모습을 보이니, 받아야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아무리 거절한다 해도 도련님께선 생각을 돌리시지 않겠지요. 알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마가렛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 이름으로 전부는 주지는 말아주세요. 사람의 일이란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저는 제 양심껏 작게 받겠으나, 나머지 재산은 도련님의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세요. 그리고 제가 감히 도련님의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도련님. 제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선을 넘지 말라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마가렛.”

완전히 마르세유 가문의 재산을 마가렛에게 넘길 생각이었지만, 그 양심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마가렛은 완전히 재산을 받기를 거부하자, 루드비카는 그 고집에 뒤로 한발자국 물러나야 했다.

“도련님, 기사가 된다 하셨지요? 부디 몸조심하시고, 어디 다치셔도 안 됩니다. 최대한 검은 조심히 다루셔야 하고요. 그래야, 눈을 감으신 로자르나 아가씨께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편히 마음을 놓으실 테니까요.”

루드비카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서 한발, 또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제게 허리를 반듯이 숙인 마가렛을 완전히 지나치기 전에 제자리에 멈춰선 루드비카는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마가렛에게 다시 한 번 부탁했다. 저가 없을 어머니의 곁을 부디 그녀가 대신 지켜주기를 바라며.

“마가렛.”

“예, 도련님.”

“염치없는 부탁임을 알고 있지만, 가끔씩 내 소식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에게 알려줘. 매일은 아니어도 좋아. 하지만, 어머니가 쓸쓸해지지 않을 만큼 마가렛이 있어주길 바라…. 마가렛은 내 어머니의 전속 하녀이기 이전에 내 어머니의 자매와도 같은… 그리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마르세유 가의 사람이니까.”

가족. 그 어떤 귀족이 감히 미천한 신분인 하녀에게 가족이라 대답해줄 수 있을까. 마가렛은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숙인 그 자세 그대로, 작은 주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가렛은 숨기고 있는 눈시울을 참아내며 로자르나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아가씨, 보고 계신가요? 루드비카 도련님이 벌써 이렇게 어엿한 사내가 되셨어요. 그러니 아가씨, 안심하시고 하늘에서 부디 편히 지켜봐주세요. 도련님의 모습을….’

윌리스 왕태자의 호위일은 전부 끝났음에도 원래의 일이 기사인 만큼 클로드는 왕성에서의 늦은 업무를 마치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와 간단히 갈아입을 옷을 챙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홀몸으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저택의 입구에 다다르기도 전에 뒷마당에서 들리는 기합소리에 클로드는 말에서 내려 가장 빠른 걸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뒷마당까지의 거리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그 기합소리는 당연하게도 한때 검을 잡고 철혈의 후작이란 칭호가 따라 붙기 전, 철혈의 기사라 불리었던 아버지의 수련일거라 클로드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뒷마당에 도착해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클로드는 자신의 두 눈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검이라곤 전혀 연관도, 들어본 적도 없을 루드비카가 선생을 붙이고 이른 아침부터 수련을 하고 있는 모습에 클로드는 그 모습이 실감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금 두 눈앞에 수련하고 있는 이가 루드비카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그렇게 기사가 되라 강요했음에도 매번 한귀로 듣고 들은 척, 만 척하던 루드비카였거늘 대체 무슨 심사가 뒤틀려 검을 잡는단 말인가? 클로드는 당장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가 루드비카를 가르치는 선생에겐 대충 목례를 하고서 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루드비카.”

“형님 오셨습니까?”

제대로 된 수련을 하고 있는지 거친 숨을 뱉어내는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클로드는 미간을 좁혔다.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반듯하게 묶은 머리와 손가락은 물론, 귓불에 조차 그 흔한 장신구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 화려하던 옷은 어디에다 두었는지 활동하기 편한 훈련복을 입은 루드비카의 모습이 이토록 적응하기가 어려웠던가? 클로드는 설마 루드비카가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루드비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무슨 꿍꿍이냐.”

“돌아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꿍꿍이라니. 무슨 말이 그러십니까, 형님?”

“그렇지 않고서야 네 놈이 쉽게 검을 순순히 잡을 놈이더냐? 왜, 이번엔 아버지께서 대단한 가문의 여식과 이어준다니 혹시라도 말을 돌릴까싶어 이리 행동하는 것이냐?”

제 아무리 검을 들면 뭐할까. 워낙 과거의 전적이 화려한 탓인지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검을 들었음에도 도통 믿지 못하는 클로드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꽤나 건방지나 생각한 클로드가 눈썹을 치켜세우자, 루드비카는 바닥에 대충 던져져있던 물통을 들어 갈증 나던 목을 축인 다음, 입가를 닦아내고서 클로드를 향해 빙긋 웃었다.

“제가 검을 잡는 것이 그렇게나 이상해 보입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검이라곤 털끝만큼 관심 없던 네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검을 잡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어찌됐든 무슨 생각인거냐? 정말로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

“그럴 리가요.”

“그럼 대체 왜?”

끈질길 정도로 자신에게 달라붙는 클로드의 시선이 오늘따라 루드비카는 달갑지 않았다. 대충, 클로드를 만나면 이런 반응은 올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루드비카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꺼려졌다. 애초에 헤르세인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이름 모를 가문도 저급한 연인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클로드의 반응을 보자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클로드가 기사인 것은 물론, 왕성에서 아직까지 현역으로 쌩쌩히 검을 휘두르는 제1기사단 소속의 최연소 기사임을 생각하면 언젠간 알게 될 사실이었다. 루드비카는 잡고 있던 목검을 물끄러미 보며 앞으로 석 달 뒤, 왕성에서 치룰 기사 시험을 볼 것임을 털어놓았다.

“석 달 뒤… 왕성에서 열리는 기사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뭐?”

“후작각하께서도 형님께서도 그토록 원하시던 기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잠깐, 기사라고? 네가? 아니, 뭐라고?”

전혀 예상지 못한 대답이여서 일까? 클로드는 몇 번이고 루드비카를 의심어린 눈빛으로 보며 되묻고, 또 되물었다. 그러나 루드비카의 입에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여전히 똑같이 나오는 대답에 클로드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에 잠겨야 했다. 방랑하기 그지없던, 오직 여인과 사교계, 그리고 피아노만 끼고 살던 그 루드비카가 그것을 전부 버리고 검을 잡는 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기에 검을 잡는 것이라 생각한 클로드는 다시금 루드비카를 응시하며 메마른 입을 뗐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

“네가 검을 잡는 이유. 그 이유가 있기에 네가 화려한 것들을 마다하고 땀 냄새와 먼지더미에 뒤덮인 훈련복을 입은 거겠지. 내 말이 틀리냐?”

“그 이유를 제가 형님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언뜻 듣기엔 도발어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클로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웃음기를 싹 뺀 차분한 얼굴을 하며, 그 이유를 함구하겠다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잠시 미간을 좁히다가 이내 루드비카의 손에 들려있던 목검을 빼앗았다.

“그래, 그 이유를 굳이 내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어찌됐든 네가 검을 잡고 기사가 된다면야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테고. 하지만, 네가 과연 석 달 뒤에 열릴 기사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루드비카에게서 빼앗은 목검을 들어 바람소리를 가를 것도 없이, 눈 깜짝 할 사이 그 가는 목에 클로드는 목검을 겨누었다. 그 한순간의 행동에 루드비카는 눈을 몇 번 깜박였지만, 클로드만큼이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클로드에게 목검을 빼앗긴 허전한 빈손을 들어 제 목에 겨눈 목검의 끝을 옆으로 툭 치며 지금의 자신은 모든 것이 진지하고 진심임을 강조했다.

“기사 시험엔 목검이 아닌, 진검으로 시험을 치룬 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장난이 아닌 것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우습게 볼 생각도 자만심에 빠져 설렁설렁 볼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생각하시기에 석 달이란 시간이 무척 짧아 보이실 겁니다. 그것도 검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초보가 석 달 안에 기사 시험을 보고 기사가 된 다, 당당하게 말하니 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네 말은 마치 그 시험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구나.”

“그런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군요. 저는 그 불가능에 도전할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기사가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석 달의 시간. 오랜 기간 동안 기사가 되고자 검을 잡고 게을리 수련을 하지 않은 예비 기사들이 수 년 간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검을 익히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고작 석 달의 시간을 가지고 기사가 되겠다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루드비카가 자발적으로 기사가 된다는 것에 클로드는 말릴 생각이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기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천재가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안 그래도 어렸을 적부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클로드조차 모를 루드비카였다.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석 달 안에 당당히 기사가 되겠다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그 의지는 좋게 생각하나, 설령 기사가 못 될 지어도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을 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루드비카의 나이는 스물 둘. 젊은 나이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검을 잡기엔 조금은 늦은 나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검을 잡겠다는 그 모습이 나름 기특해 보여, 클로드는 힘없이 손에 들려있는 목검의 끝 부분을 다시금 들어 올려 루드비카의 어깨와 허리, 그리고 무릎을 툭툭 짚어주며 자세 교정을 바르게 할 것을 작게나마 조언해주었다.

“어깨엔 쓸데없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허리는 정자세로 바르게 세워. 허리가 굽혀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허리에 긴장감을 세워서라도 반듯하게 해야 힘이 균형이 골고루 들어가는 법. 또, 무릎은 너무 많이 굽히지도 약하게 굽히지도 마. 자칫 자세를 잘못 익혔다간 네 무릎이 남아나지 않게 될 테니까.”

그 작은 조언을 끝으로 클로드가 목검을 루드비카에게 던지자, 제법 잡는 감각은 있는지 루드비카가 가뿐히 목검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잡은 목검을 바로하고서, 다시 훈련 자세를 취한 루드비카의 모습에 클로드는 이만 조용히 자리를 뜨고자 뒤로 한발 물러설 때였다.

“조언, 감사 합니다. 형님.”

“....”

대체 자신은 무슨 생각으로 루드비카에게 조언 따위를 해준 걸까? 하지만 조언이라 해봤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자잘한 충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저 자세를 올바르게 알려준 것이 전부 일 뿐. 매번 왕성의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기사들에게 흔히 하는 말과도 같았다. 어느새 검술 선생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는지 목검을 잡고서 위 아래로 기초 단계를 수련하는 루드비카의 모습이 클로드의 눈에 비쳤다. 클로드는 더 이상 루드비카를 방해하지 않고자 조용히 기사의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루드비카가 훈련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클로드가 향한 곳은 자신의 침실이 아닌, 후작이 있을 집무실이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집사 헨드릭이 바로 문을 열어주자, 클로드가 안쪽으로 조용히 들어갔을 땐, 무슨 일인지 평소 서류를 보던 모습이 아닌 창가에 서서 뒷짐을 지고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지켜보는 뒷모습이 루드비카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라 확신한 클로드는 정자세로 서류더미들이 쌓여있는 책상과 두 걸음 정도 떨어진 제자리에 멈춰 서, 후작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방금 루드비카를 보고 오는 길입니다.”

“알고 있다. 계속 여기서 너희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말이냐.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냐?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냐? 아님, 그 속의 이유를 묻는 것이냐.”

전부, 라고 말한다면 과연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 말이 바로 목구멍 근처까지 올라왔지만, 클로드는 이내 불가능 쪽으로 물음을 돌려버렸다. 여전히 뒷짐을 지고 루드비카의 훈련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해 알 수 없으나, 그 뒷모습에서 작게 느껴지는 혼란이 언뜻 보이는 것 같아, 클로드는 대답하기 쉬운 쪽을 선택했다.

“저는 솔직히, 루드비카가 석 달 뒤 있을, 기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석 달 뒤에 있을 기사 시험을 합격할 정도라면 누구든 검을 들고 기사가 되고자 하겠지요.”

“그래, 보통의 사람이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특히나 검을 오랫동안 잡은 사람과 검을 잡은 지, 한 달 채 안된 사람과 비교조차 불가능 한, 일 일터. 하지만 소위 말하는 ‘천재’라면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은… 루드비카가 그 ‘천재’란 말씀이십니까?”

얼핏 클로드의 목소리에 못 믿겠다는 작은 의심이 날카로운 날을 드러내자, 조용히 등을 지고 있던 후작이 완전히 몸을 돌려 클로드를 응시했다.

루드비카와는 대조되는 자신을 쏙 빼닮은 머리색과 눈동자, 그리고 성격이나 행동할 것 없이 그야말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장자, 클로드가 후작의 잿빛 눈에 가득 담겼다. 라인하르트 가문의 특유 기사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았는지, 어린 시절부터 검의 소질에 두각을 나타낸 클로드는 결국 13살 나이에 최연소 기사란 호칭을 받으며 그 작은 몸으로 성인 기사들과 똑같이 수련을 하고, 제 실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그리고 제1기사단에 들어가 가장 어린 나이에 임무란 임무는 모두 완벽히 수행한 클로드 국왕조차 감탄하며 그 어느 기사들조차 받기 힘들다는 명예 훈장까지 받은, 그야말로 기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 피가, 클로드뿐만이 아닌 루드비카에게까지 영향이 미쳤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후작은 갑작스레 기사가 되겠다, 선언한 루드비카의 며칠 전의 모습을 떠올렸다.

"후작각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한 말이 무엇이기에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은 것이냐."

"앞으로 석 달 뒤에 왕성에서 열릴 기사 시험을 치룰 생각입니다."

"잠깐, 뭐라고 했느냐? 지금 네가 기사가 되겠다 말한 것이냐?"

"예, 기사 되려 합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그 자리가 지금 제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묻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기사가 된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속을 썩이던, 자신의 아픈 손가락이 다름없던 루드비카가 대뜸 기사가 되겠다는 말이 후작은 믿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진지한 눈빛이나 표정을 보건데 전혀, 평소와 다른 것은 물론 웃음기 섞이지 않은 진지한 모습에 후작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그 다음날까지 후작의 작은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저 허울 된 말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루드비카의 앞으로 가장 검술 수련을 독하게 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검술 선생을 붙여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수련이 시작되고 일주일쯤이 지나고 나서야 후작은 그 의심을 버려야만 했다. 루드비카가 검술을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과 날이 갈수록 검을 잡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후작은 직접 두 눈으로 봤음에도 믿겨지지 않았다.

보통 검을 완전히 잡을 줄 모르는 초보가 목검을 들기까지 적어도 두 달이란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다. 처음부터 검을 잡는 것이 아닌, 기초단련으로 몸을 만들고 체력을 키워야하며 그 몸이 완전히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목검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루드비카가 목검을 잡기까지 일주일. 처음 기초단련을 할 때는 체력이 되지 않아, 루드비카조차 굉장히 버거워하는 힘든 얼굴이었다. 그러나 5일쯤이 돼서야 몸이 익숙해지고 체력이 단기간에 올라갔는지 루드비카는 가볍게 기초단련을 끝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목검을 잡은 루드비카의 모습은 더더욱 놀라웠다.

처음에는 목검을 잡는 감각을 익히는가 싶더니, 두 시간 정도 지나고서야 익숙하듯이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후작은 다른 의심을 품어야 했다. 루드비카의 검을 잡는 모습이나 휘두르는 모습을 보건데 절대로 처음 잡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 의심이 어느덧 후작은 자신도 모르던 루드비카의 과거를 쫓아 정보꾼들을 고용해 루드비카가 마르세유 남작가에 있던 시기의 행적들을 조사했다. 그 행적들이 후작의 손에 들어올수록 후작은 의심을 지우기보단, 놀라운 행적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미 루드비카는 마르세유 남작가에 있던 7살의 시절, 그때부터 검술의 두각을 보여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과 라인하르트 가에 오기 전의 10살 때, 이미 검을 제 몸처럼 다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어릴 때부터 루드비카를 가르치고, 마르세유 가에 있던 사용인들은 루드비카가 남다른 아이임을 알고 있던 것이었다. 소위 말하는 ‘천재’ 그것도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천재중의 천재. 그러나 후작은 이해되지 않는 점이었다. 그렇게 무궁무진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째서 라인하르트 가에 왔을 땐, 그 실력을 감춰버리고 검도 잡지 못한 아이마냥 피아노에만 매달렸던 것인지.

거기까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루드비카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면 후작은 그 생각을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루드비카가 검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후작에겐 이보다 더 흡족할 일은 없었다.

“클로드.”

“예, 아버지.”

“아무래도 루드비카는 그 ‘천재’일 것이 분명할거다.”

“어찌, 그리 장담하십니까?”

어째서 그토록 장담할 수 있냐는 후작의 당당함에 클로드가 작게 미간을 좁히자, 후작은 자리에 앉아 펜을 잡고서 유려하게 휘갈겼다.

“어찌 장담 하냐고? 클로드 네가 이 저택에 돌아 온지 며칠이더냐.”

“일주일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 루드비카가 저 목검을 잡기까지의 시간이다. 현직 기사인 너조차 목검을 잡기까지 얼마나 걸렸더냐. 한 달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가 더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만으론....”

그것만으론 석 달 뒤의 기사 시험의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후작은 그날이 어서 다가오길 고대하는지, 평소보다 조금은 빠른 손짓으로 펜을 휘갈기며 어느덧 입가에는 작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아무래도, 루드비카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구나. 분명 그럴 것이야.”

가을의 색이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과 눈으로 뒤덮인 하얀 겨울의 세상이 찾아왔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한 달이 금세 흘렀고, 그 한 달 사이에 루드비카는 목검을 손에서 한 시라도 떼어놓지 않았다.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언제나 루드비카의 곁에는 손잡이 부분이 허름할 정도로 때가 탄 목검이 함께했고, 이제는 피아노 대신 목검을 들지 않으면 손이 허전할 정도로 루드비카는 목검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했다.

간단한 아침 수련이 끝나고 점심시간의 달콤한 휴식을 완전히 맛보기 전에 루드비카는 스스로 그 휴식을 버리면서까지 검술 수련에 매진했다. 차디찬 겨울의 날씨여서인지 혹독하게 수련을 한 덕분에 땀에 젖은 훈련복 위로 하얀 김들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것은 이젠 흔한 일이었다. 얼어붙은 하얀 입김을 토해내며 목검을 집중적으로 휘두르는 수련만 하기를 수 천 번.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것을 끝으로 루드비카의 수련을 돕던 그의 스승인 피에트로가 손뼉을 치며 훈련의 끝을 알렸다.

“더 이상 너무 무리하는 것도 몸에 좋지는 않으니, 수련은 여기까지 하겠네.”

“그럼, 대련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진 체력이 남아도는지 루드비카가 여유롭게 대련을 제안하자, 피에트로는 어색히 웃으며 루드비카와의 첫 대련을 떠올렸다. 처음 루드비카와 대련을 할 때만 해도 피에트로는 숙련으로 다져진 뛰어난 검술로 루드비카를 손쉽게 제압하며 승기를 챙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그 승기를 챙겼는지 잊어버릴 만큼, 현재 피에트로는 루드비카와의 대련에서 거의 연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 달 전. 처음 루드비카를 가르쳤을 땐, 석 달 안에 기사 시험을 치루겠다는 루드비카가 얼마나 우스웠던가. 제 아무리 5년 동안 검술을 갈고닦은 일반인이라 해도 기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5년도 아닌, 고작 석 달을 배운 그가 기사 시험에 합격한다? 말이 되지 않았다. 피에트로 역시 대충 이번 기회가 아닌 다음 기회에 있을 미래의 시험을 생각하며 루드비카를 가르쳤지만, 그 생각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다. 처음과 달리, 빠른 속도로 그것도 무서운 속도를 내며 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루드비카를 볼 때면 피에트로는 과연 자신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님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를 가르치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루드비카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으며, 후작의 말처럼 그야말로 검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천재’나 다름없었다. 그런 천재를 바로 눈앞에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경탄할 일이던가. 후작의 부탁에 엄청난 스파르타식으로 루드비카를 벌써 한 달 동안 가르쳤지만, 피에트로는 더 이상 루드비카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다. 고작 가르쳐봐야 약간의 자세교정과 체계적인 하루의 수련일과를 짜주는 것 뿐. 피에트로는 어느새 어깨를 가볍게 풀고 있는 루드비카를 보니 이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더 이상의 연패는 하고 싶지 않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대련의 상대를 찾는 편이 어떤가? 자네의 실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선 그 편이 더욱 빠를 걸세. 이젠 내가 자네에게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으니.”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도 스승님께 배워야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배움이 길고 짧은 것은 상관이 없네. 그저 배우는 자가 얼마나 그 배움을 깨우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루드비카에겐 그 배움이 부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배움을 가르치는 피에트로의 입장으로선 정말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 이미 루드비카의 몸은 검을 잡기 위한 몸으로서 단단히 다져졌고, 앞으로 여기서 몸을 더 키울 것인지, 아님 가볍게 단련을 하여 유지를 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특히나 검술에 관해선 더더욱 피에트로가 해줄 말은 없었다.

사브레 왕국. 그리고 국왕을 향한 충성을 바치며 기사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받친 지 십 수 년. 하필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피에트로는 그대로 조금은 빨리 기사로서의 은퇴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은퇴 시기는 빨랐다 해도, 지금은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몸을 회복했으며 전성기 때는 아니더라도 실력은 죽지 않은 덕분에 고위 귀족 가문의 자제들의 검술 스승이 되거나, 혹은 일반 서민들의 단기간 교사가 되어 여전히 검을 놓고 있지 않았다.

만약 은퇴를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왕성에 남아 기사로 남아있었다면 왕성의 고유 검술만을 익힌 채, 아무것도 못하는 기사로서 끝내야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은퇴를 서두른 덕분에 피에트로는 다양한 검사들을 만나 그들만의 독특한 검술을 익히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지금의 자리가 있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고, 그것을 익혔기에 감히 누구에게도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검술들을 루드비카에게 피에트로는 모든 것을 전수했다.

보통의 고위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언어 다음으로 배우는 것이 검술이었다. 여자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 말 타는 법이나 자수 놓는 것이 당연지사라면, 사내아이는 모름지기 자신의 몸 하나 쯤은 거뜬히 지켜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의 검술을 가진 자들을 귀족들은 아들의 스승으로 비싼 거금을 줘서라도 고용하려했다.

하지만 돈을 받고 자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호신용 검술과 그것으로 파생된 왕실의 검술. 호신용 검술은 어느 정도 몸을 보호하는데 있어, 수련이 많이 힘들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여주기 식의 겉치레가 있는 왕실 검술을 하나 쯤 익혀야만 했다. 그것을 굳이 왜 익히는지는 귀족들 사이에선 오랜 관례나 다름없었다.

호신용 검술과 달리, 귀족들이 하나정도 배우는 왕실 검술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선 겉치레 분인 검술이긴 하나, 제대로 심도 있게 배운다면 그것은 현재 기사들이 배우는 왕실의 검술이자 가장 힘이 드는 검술이기도 했다. 날렵하고, 몸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극대화 하는 것이 오랜 왕실의 검술. 그러나 세상에는 검을 잡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듯, 다양한 검사들만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검술들이 존재했다.

피에트로는 은퇴 후, 1년간은 요양과 다리의 치료를 받으며 검을 잡진 못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한 동안은 다양한 검술을 가진 검사들과 만나, 쉼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눈으로 검사들의 검술들을 마음껏 구경하며 생각으로 익히고 또 익혔다. 길고도 길었던 요양과 치료가 끝난 다음, 다리의 상태를 생각해서라도 피에트로는 무리 할 것 없이, 그동안 머릿속에 각인 시켜둔 기억들과 각종 검술 교본들을 모아 새로운 기술들을 터득하거나 만들기도 했다. 그 시술들을 모조리 섭렵하여 피에트로는 귀족들의 제안을 받고 그들의 아들들을 제자로 두어 가르침을 시작했지만, 그 새로운 검술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할 때면 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피에트로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그저, 몸을 지키거나 귀족으로 갖춰야할 덕목중 하나라 생각하는 그들의 숙제 같은 것이기에 웬만해선 진지하게 검을 잡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제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 지루한 검술 수업이 끝나고 놀고 싶어 하거나, 혹은 앞날은 이미 깔려있는 가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검술을 익히는 것을 필요치 않다 여기는 제자들을 여럿 보아야만 했다. 결국, 고위 귀족의 자제들을 통해 이런 기술들은 전혀 필요성이 없음을 깨달은 피에트로는 안정적인 수입만을 얻고 자제들을 가르치는 검술 선생으로서 쭉 명맥을 이어가야 했다.

그렇게 쭉, 고위 귀족가의 자제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도 모를 회의감이 들 무렵, 그런 피에트로를 찾은 건 다름 아닌 라인하르트 후작이었다.

"자네가 내 둘째 아들을 가르쳐줬으면 하네. 그것도 아주 독하게. 그래 줄 수 있겠는가?"

기사의 가문 중, 가장 혈통이 길고 오랜 기간 동안 왕실에서의 입지가 거대한 후작임을 피에트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스승조차 필요치 않을 그 위대한 기사 가문에서 저를 찾는 다는 것이, 그것도 둘째 아들을 가르치라는 후작의 부탁에 피에트로는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아닌, 후작에겐 이미 최연소 기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수재인 첫째 공자가 있지 않던가. 그럼 첫째 공자에게 맡기면 될 일을 왜 자신에게 맡기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고용 받은 입장으로선 피에트로는 충실히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소문으로 들은 것과는 달리, 처음 루드비카를 봤을 때 피에트로는 이렇게 여인처럼 아름답고 고상한 사내가 존재하나 싶었다. 검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검을 들 힘조차 없어 보이는 화려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에 괜스레 피에트로는 이런 일을 자신에게 맡긴 후작이 밉기까지 했다. 도대체 저 가녀린 팔에 검을 들 힘이 어디 있다고 둘째 아들에게 검을 가르치란 말인가? 거기다, 피에트로는 고위 귀족가의 자제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긴 했으나 전부 어린 소년들이었기에 다 큰 성인 어른을 가르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돈을 받은 입장으로서 다 큰 성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로 눈앞의 이 아름다운 공자가 자신의 수련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문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단번에 깨부수듯 피에트로는 놀라는 것을 넘어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이 아닌, 열을 알았으며 족히 두, 세 달은 걸릴 줄 알았던 목검을 잡기까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도달했다. 눈앞의 천재를 보는 것도 신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그 천재란 것이 얼마나 지금 익히는 검술 따윈 가벼운 익힘인지 보여주듯 루드비카는 여러 번 피에트로를 놀라게 만들었다. 결국, 그 천재성이 피에트로의 깊게 가라앉은 가르침의 욕구를 자극하여 피에트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첫 번째 이후로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던 다양한 검술의 기술들을 루드비카에게 가르침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을 더 뛰어넘을 정도로 루드비카는 완벽하게 제 기술처럼 그것들을 모조리 흡수했다.

분명 눈앞에서 보고도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든 루드비카를 보았을 때, 피에트로의 심정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검술 능력 면에서 가히 경이로운 능력을 보일지라도, 기사가 되어 그것이 더욱 일반 기사들 앞에 부각된다면 시기와 질투를 얻게 될 것이 자명했다. 특히나 기사들에게 있어서, 검술의 실력은 긍지이자 명예와도 같은 것. 그것을 몇 년도 아닌, 단기간에 이룬 루드비카의 모습을 그 누가 좋게 볼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피에트로는 더 이상 생각하길 그만두었다. 제 아무리 천재라 불린다 해도 정신적인 면에서 강인하지 않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거기까지의 그릇일 뿐. 그것을 전부 감내하고 감당하는 건, 오로지 루드비카의 몫일 뿐, 피에트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비록 한 달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네의 스승이 되어 자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검술들을 전수한 것만으로도 난 무척 기쁘다네. 분명 자네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크게 될 사람이 되겠지. 하지만, 제 실력만 믿고 방심은 하지 말게. 한순간의 방심이 자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고개를 숙인 루드비카를 완전히 지나치기 전에, 피에트로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 루드비카의 어깨를 두세 번 정도 톡톡 두드려주며 한 달 동안이지만 조금이나마 정든 수련장을 떠나버렸다. 피에트로가 떠나고 잠깐의 휴식 차, 옷을 갈아입고자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미리 하녀에게 부탁한 덕분에 곧바로 욕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루드비카는 땀과 눈에 젖은 훈련복을 완전히 벗어내고서 수련으로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는 멍 자국이 가득한 맨 몸을 드러내며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 속으로 몸을 담갔다.

지나치게 수련에만 몰두한 탓인지, 물에 젖은 손바닥을 들어다 봤을 땐 성한 곳 하나 없는 손바닥이 그대로 루드비카의 눈에 비쳤다. 손가락 마디마다 물집이 터진 것은 물론이고 점차 터진 상처자국이 굳은살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부드럽던 손바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자신의 증명의 가치를 보이고자 목검을 놓을 수 없는 험한 손이나 다름없었다.

“헤세….”

그녀의 얼굴을 못 본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흘렀다. 처음엔 그녀의 얼굴을 못 볼지라도 기사가 되겠다는 집념하나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다. 하루, 하루를 보지 못할 때마다 약에 중독된 사람마냥 그녀가 그립고, 보고프며 당장이라도 검을 내던지고 왕성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함에도 루드비카는 인내해야만 했다. 아라네아 왕비와의 약속. 그리고 헤르세인에게 더욱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증명의 걸음. 루드비카에겐 헤르세인의 곁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증명이 가장 필요했다.

촤르륵―

잡을 수 있어도 잡을 수 없는 물과 같은 것. 지금 루드비카에겐 헤르세인은 물과 같았다. 분명 제 손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증명을 보이지 않고선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자신의 연인. 앞으로 두 달. 그 증명을 보이기까지 루드비카에게 주어진 두 달의 시간. 반드시 기사 시험에 통과하는 것만이 그녀의 잡을 수 있는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꼭 되고야 말겠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체감 상 욕조에 앉아있던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덧 차게 식어버린 물의 온도를 느끼며 루드비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기들을 꼼꼼히 닦을 사이도 없이, 금방 욕실에서 나온 루드비카는 어느새 하녀가 미리 문 앞에 준비해둔 새 훈련복으로 갈아입고서 아까보다 몸의 온기를 좀 더 보호하고자 두텁게 갈아입었다. 수건으로 대충 말린 머리는 그대로 내버려두고서 목검을 들고 침실 바깥으로 나가려던 루드비카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틀어 침대 한켠에 있는 작은 서랍장에 시선이 가고 말았다.

여전히 목검을 든 채로 이동경로를 잠시 바꿔, 금방 서랍장이 있는 곳으로 도착한 루드비카는 첫 번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루드비카의 손짓으로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자, 서랍 안에는 직사각형의 작은 상자가 고스란히 놓여있었다. 잠시 목검을 내려두고서 상자를 들어 올린 루드비카는 뚜껑을 열어 안의 내용물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헤세....”

헤르세인, 그녀가 제게 준 특별하고도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첫 생일 선물이자 너무도 아까워 함부로 낄 수 없는 귀한 귀걸이. 마음 같아선 매번 끼고 그녀에게 자랑하듯 보여주고 싶었으나, 루드비카는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으로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서랍을 열어, 헤르세인 준 귀걸이를 소중히 보곤 했다. 하지만, 벌써 한 달 째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일까? 루드비카는 그녀의 흔적이 절실히 필요했다. 지금 손에 들려있는 이 귀걸이를 끼게 된다면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어도 그녀의 흔적이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것 같아,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이 선물해준 귀걸이를 끼기로 마음먹었다.

귀걸이 한 짝을 거는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을까하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최대한 주의해서 끼자는 마음으로 루드비카는 나머지 한 짝까지 완벽히 낄 수 있었다. 제대로 귀에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근처에 있던 거울을 들여다보며 루드비카는 자신의 움직임에 잘게 흔들리는 옅은 보랏빛의 자수정 귀걸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투명하고도 그 속에 깃든 보랏빛은 루드비카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귀걸이를 살짝 쓸어내리던 루드비카는 그리움을 지워낼 수 없던 눈빛을 간신히 가라앉히며,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향해 그리고 왕성에 어찌 지내고 있을지 모를 헤르세인을 향해 결의를 다졌다.

“헤세. 꼭, 기사가 되어 당신의 곁으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하루라는 시간이 이토록 백년처럼 길게 느껴진 적이 있던가? 루드비카의 얼굴을 본 것이 바로 엊그제처럼 여겨졌지만, 정작 시간은 어느덧 두 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루드비카와 잠시 동안의 이별을 하기 전, 그때만 해도 푸른 잎과 갈색 잎이 조화를 이루던 가을의 계절이었지만 어느새, 헤르세인이 보고 있는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인 차가운 겨울의 계절로 뒤바뀌어 있었다.

루드비카가 증명을 보이고자 기사가 되기 위해 수련에 들어가 있을 동안, 헤르세인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모든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인형마냥 얌전히 있기를 바라는지 왕비는 감시하는 하녀들을 시켜 헤르세인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헤르세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자신의 궁전에 틀어박혀 이제는 거의 질리도록 읽다시피 한 책을 다시 읽는 것이 전부. 그리고 열려져 있는 창밖의 풍경 너머를 바라보며 루드비카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이젠 헤르세인의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누님, 혹시 라인하르트 공자가 보고 싶으신 겁니까?”

루드비카와의 잠시 동안의 이별을 하고서, 헤르세인의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다. 언제나 자신의 눈치를 보던 빈센트가 왕비의 명을 받고나서부터 헤르세인의 궁전에 일주일의 두 번씩은 꼭 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루드비카 덕분에 빈센트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얼음 같은 장벽은 사라졌기에 불편한 것은 더 이상 없었지만, 여전히 어색한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두 달이 넘도록 빈센트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서 인지, 헤르세인은 빈센트의 순수한 물음에 이제 막 넘기려던 종잇장을 넘기려던 행동을 멈칫했다.

“보고… 싶냐고?”

“네.”

“왜 그런 걸 묻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그야....”

빈센트가 눈을 몇 번 깜박이며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내 생각을 정리했는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빈센트는 대답했다.

“그야, 누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많이, 아주 많이 공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도 이렇게 책을 읽고 계시지만, 라인하르트 공자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름 평소처럼 무뚝뚝하고도 차분한 얼굴로 빈센트를 대한다 생각했는데, 어린 아이의 시선에는 무엇이든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이 보이는 혜안을 가진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정곡을 어찌 찌를 수 있을까. 헤르세인은 손끝에 미동조차 않던 종잇장을 마저 움직이며 다음 장을 넘기는 동시에 옅은 미소를 그려냈다. 그 미소는 부정할 수 없다는 긍정의 대답이었다.

“응. 그립고 보고 싶어. 지금 이 순간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누님.”

루드비카가 아닌 사람에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빈센트와의 그 얼음 같던 장벽이 루드비카의 덕분으로 무너져서 일까? 그것도 아님, 자신을 오로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쪽의 형제인 빈센트여서 일까. 빈센트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는지 헤르세인은 그 눈을 마주치지 않음에도 어쩐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누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감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렴.”

“누님에게 라인하르트 공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냐고?”

“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대답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루드비카. 그는 자신에게 있어 어떤 존재이던가. 헤르세인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글씨에 멍하니 시선을 둔 채, 빈센트가 말한 그 의미를 생각했다. 이제는 그가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그의 얼굴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얼마나 애가 타던가. 또, 누군가 그의 곁에 수줍게 볼을 붉히며 함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심장이 찢기듯 아프며 화가 났다. 이토록 자신의 질투란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은 루드비카가 유일할 것이었다. 그이기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그이기에 이토록 인내하며 그리움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니까.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예, 예?!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만약 너에게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아마 나와 비슷한 답변이 나올지도 몰라.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너무도 길게 느껴지며, 그 사람이 없는 옆 자리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것… 내게 있어, 그 사람은… 루드비카는 그런 존재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까?”

빈센트의 입에서 설마 ‘사랑’이란 단어가 언급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진지한 자세로 자신을 응시하는 그 푸른 눈동자에 헤르세인은 완전히 책을 덮어 그 푸른 눈동자와 마주했다. 자신의 눈동자보다 하늘처럼 맑고, 왕비의 눈동자를 더욱 빼다 박은 빈센트의 푸르고 맑은 눈동자. 언젠간 그 푸르고 순수하기만 하던 눈동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왕비도 아닌, 빈센트가 순수하게 마음을 품은 여인이 담겨질 것을 생각하니 그 날이 어쩌면 머지않을지도 몰랐다.

“알고 있니? ‘사랑’이란 단어엔 마음을 충족시키고 충만하게 만드는 감정 뿐 만이 아닌,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도 하며, 내 가슴이 아닌 것처럼 심장을 찢기게 하는 그런 아픔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사람마다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일지, 눈물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만약 네게 그런 사람이 생기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지 몰라.”

“왜 아마도 인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그러하니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느끼는 슬픔, 질투, 기쁨, 행복 이 모든 것이 전부 루드비카가 아니었다면 내게 가치조차 없는 감정이었다는 걸.”

빈센트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인지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을 하며 고개를 기울였지만, 헤르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나이를 먹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게 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날이 올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빈센트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길 한 시간이 훌쩍 지날 쯤, 오늘은 빠질 수 없는 검술 수련으로 인해 빈센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하며 헤르세인이 있는 침실에서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그리고 다시 홀로 남게 된 헤르세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팔목에 시선을 떨어트렸다.

이제는 떨어트릴 수도, 거의 한 몸과도 같은 가죽 끈 팔찌가 헤르세인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루드비카를 생각할 때면 그것은 마치 습관처럼 헤르세인은 팔목에 걸려있는 팔찌에 시선을 주곤 했다. 그리고 팔찌를 볼 때면 눈앞에 당장 그가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곁에 있는 것 같아 헤르세인은 더더욱 팔찌를 몸에서 떼어낼 수 없었다.

“…루카.”

천천히 눈을 감아, 그의 얼굴을 그려내듯 헤르세인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팔찌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루드비카의 눈매와 눈썹, 그리고 날렵한 콧대와 코끝, 도자기처럼 부드럽던 그의 뺨과 언제나 저에게 웃어주던 입꼬리를 하나씩, 또 하나씩 엄지손가락으로 그려내며 이 그리움을 달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함이 느껴진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한켠에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하얀 종이와 하얀 봉투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펜을 가지고 다시 테이블에 돌아온 헤르세인은 잉크가 묻은 펜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종이 위로 이제는 눈을 감고도 쓸 수 있는 루드비카의 이름을 제일먼저 시작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루카에게….

당신을 못 본지, 벌써 두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나는 또, 이렇게 당신에게 전해지지 못할 편지를 쓰고 있지. 루카…. 당신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나 역시 잘 지내고 있지만, 이토록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본 적이 있었던가? 이제 한 달이란 시간을 앞에 두었음에도,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남들에겐 하루라는 시간이 터무니 부족하고 짧은 시간임에도 나는 왜 이토록 길게만 느껴지는 걸까? 그만큼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이겠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곤 해. 혹시 나를 만나지 않은 두 달의 시간동안, 당신은 점차 나를 잊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서로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덜할지도 모를 텐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믿고 있듯이, 당신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믿고 있겠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밀어내려 해도 오히려 다가오는 사람이니까.

수련은 어때? 많이 힘들지는 않아? 당신이 검을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이상하게 그 모습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어여쁘게 각인 되서 일까? 그래도…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다치는 건 더욱 싫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잠이 들기 전, 밤하늘을 보며 기도를 하곤 해. 당신이 무리하지 않도록, 또, 다치지 않도록 바라며….

루카… 당신의 얼굴을 단 한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참아야겠지. 당신이 왕비전하에게 증명하기 위해선 나는 기다려야겠지. 당신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 내 곁에 오길 바란다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

그래도 나는 기다릴게.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내 곁은 오직 당신 뿐 이니까.

나의 단 하나 뿐인 연인. 나는 이곳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의 연인 헤세가.』

헤르세인은 다 적은 종이를 반으로 두 번 접어 말끔한 하얀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완전한 봉합을 위해, 근처에 있던 붉은 양초위로 촛불을 붙여 촛농이 흐를 때까지 잠깐 기다리다가, 촛농이 한 방울 흐를 때쯤 붉은 양초를 기울여 편지 봉투위로 녹아내리는 촛농을 떨어트렸다. 완전히 편지봉투가 봉합될 정도로 금방 굳은 촛농의 모습에 헤르세인은 편지봉투를 들고서 자리를 옮겼다.

책상의 가장 맨 아래에 있던 서랍을 열자, 그곳에는 작은 함이 오랫동안 놓여있었으며 헤르세인은 그 함을 들고서 책상 안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열쇠를 꺼내어 함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열 수 있었다. 자물쇠가 열리면서 완전히 함의 뚜껑까지 열려지자, 함의 안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편지봉투가 쌓여있었다.

루드비카를 만나지 못한 그리움으로 시작 된 편지가 어느덧 20개가 넘어갔지만, 헤르세인은 이 편지들을 단 한 번도 루드비카에게 전해 줄 수 없었다. 그와의 사이가 아직 비밀리에 붙여졌기 때문에 정식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설사 보낸다 하더라도 왕비가 이를 알아채고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염두 해 두었는지 감시 하녀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부탁하면 감시 하녀는 무조건 책의 내용을 검사하곤 했다.

때문에 헤르세인은 이 편지들을 루드비카에게 전해지지 못함을 알기에 어느새 부턴가 그를 그리워하는 일기장 형식으로 편지를 쓰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다. 이번에조차 이 편지가 작은 함속에 보관될 것을 생각하니, 헤르세인은 씁쓸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함의 뚜껑을 닫아 완전히 자물쇠로 걸어 잠가 버렸다.

그 누구도 열수 없는 비밀의 상자이자,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허락된 유일한 사람은 자신과 루드비카 뿐. 이 상자가 온전히 루드비카의 손에 전해질 날을 기다리며 헤르세인은 작은 함을 보며 작게 입술을 떼었다.

“루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이 이 작은 비밀 상자에 가득 담겨 있어. 그러니 당신이 상자를 열기까지 난 기다릴 거야. 설사, 그 시간이 더 길어진다 해도… 나는 그만큼 계속 편지를 남길 거니까.”

손끝으로 헤엄치듯 함을 쓸어내리던 헤르세인은 이내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함을 내려두며 그 누가 열지 못하도록 굳게 서랍을 밀어 넣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의 시간. 당장 그 시간이 눈앞에 오지 않아도 좋으니, 헤르세인의 바람은 오직 하나였다. 그가 다치지 않기를. 자신 때문에 시간의 촉박으로 무리하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용하기만 한, 아라네아 왕비의 궁전과 달리 카타리아 왕후의 궁전은 가장 화려한 만큼 요란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카타리아 왕후는 한 가지의 속앓이를 앓고 있어야만 했다. 그녀가 속을 앓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그녀의 딸인 케시아 왕녀 때문이었다. 수확제 이후로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마냥 한 달 가까이 멍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몸이 비쩍 마를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에 왕후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쨍그랑―!

혹시나 해서 딸의 궁전을 찾아왔건만, 침실 안쪽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왕후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하녀들에게 눈짓을 했다.

“열거라.”

하녀들이 혹시라도 왕후의 신경을 더욱 자극하지 않고서 재빨리 문을 열자, 침실 바깥에서 보던 광경과 안쪽의 광경이 얼마나 다른지 왕후는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이 사실이 받아지지 않았다. 벌써 이 광경을 몇 달 동안 지켜보았던가. 왕후는 오늘 완전히 이 상황을 종결시키고자 매서운 발걸음으로 케시아를 향했다.

“어리석은 것! 대체 언제까지 이 어미의 속을 썩을 것이냐! 케시아! 벌써 너의 이런 행동이 몇 달이나 넘어갔는지 아느냐?! 네가 대답을 해야 이 어미가 무엇이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이 아니더냐!!”

매섭게 내지르는 왕후의 목소리와 달리, 케시아는 이미 반 시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왕후가 무슨 말을 하든 케시아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명처럼 환청처럼 루드비카가 제게 했던 이별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을 뿐.

“케시아! 케시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지금까지 내 나름 것 너의 이 모습을 폐하께 숨기려고 이 어미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 하지만 이제 이것도 한계이다! 더 이상 너의 반 폐인 같은 모습을 폐하께 숨길수가 없단 말이다!!”

“어머니....”

“그래 케시아. 제발 이 어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렴. 어서!”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던 딸이었다. 그 누구에게 내놔도 한 점 부끄럽지 않는 자신의 딸이자 왕실의 정통의 피가 흐르는 고귀한 왕녀 케시아. 하지만 그토록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딸이 이 모양이라니. 왕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딸의 모습을 되돌려야할 의무가 있었다. 안 그래도 국왕의 입에서 서서히 케시아의 혼담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가고 있는 시기인지라 더욱 케시아를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래, 어서 말해 보거라. 이 어미가 여기 있지 않느냐. 혹,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 보거라. 이 어미가 뭐든 다 들어주마.”

“…뭐든지… 말인가요?”

그때, 시체마냥 생기 없던 케시아의 눈이 서서히 빛이 오르자, 그 눈빛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한 왕후는 지금이 아니면 케시아가 원래대로 돌아올 방법은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다. 눈에 생기가 돌아온 시점에서 확실히 붙잡아두지 않으면 안 되기에 왕후는 크게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케시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널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까. 그러니 이러지 말고 어서 말해 보거라. 응?”

“무엇이든… 내 손에....”

유일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이자, 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손에 닿지 않는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검은 유혹이 케시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를 손에 넣으라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손에 넣어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라고. 거기다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겠다는 제 어머니의 말이 있지 않던가. 이것은 기회이자 두 번 다시없을 최후의 기회. 케시아의 힘없고 빼빼 마른 손에 이부자락이 찢겨질 정도 강한 악력이 들어갔다. 어디서 그 힘이 솟아오르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덧 생기가 완전히 돌아온 케시아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은 고백을 거절당한 가련하고도 지워낼 수 없는 상처를 품은 여인의 것이 아닌, 독기와 집착, 탐욕이 깃든 녹음이 검게 물든 지독한 검은 욕망의 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온갖 검은 마음이 뒤섞인 매서운 눈빛에 케시아를 곁에서 바라보던 왕후는 순간 피부가 오소소 소름 돋는 꺼림직 한 느낌을 지워낼 수 없었으나, 왕후로서 아무것도 못 본 척 태연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눈을 빛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쁠 일이던가. 왕후는 케시아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며 더욱 케시아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새로운 드레스를 원하는 것이냐? 아님, 제국에서 손꼽히는 최고급의 디저트? 그것도 아님 최고의 보석이 달린 목걸이? 무엇이든 이 어미가 들어 줄 테니 말만 해 보거라. 네가 말을 해줘야 이 어미가 들어줄 것이 아니더냐.”

“…어머니.”

“그래 케시아.”

“간절히… 아주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손에 넣으려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제 손으로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주변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고 마리라. 설사 어머니가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케시아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 꼭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그럼 반드시 들어주세요.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머니를 원망 할 것입니다.”

“…케시…아?”

“루드비카…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를 제게 주세요.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가져야겠습니다. 루드비카, 그 사람을 제게 주세요! 아니! 제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까요! 절대로! 반드시!!”

함박눈이 내리는 오늘의 날. 벌서 발목까지 하얀 눈이 쌓이고 있음에도 루드비카는 검을 휘두르는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는 목검대신 살짝만 베여도 피가 솟아오르는 날이 바짝 선 진검을 잡고서 상대인 클로드를 향해 휘둘렀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오랜 실력으로 루드비카의 살벌한 검 날을 요리조리 피한 클로드는 마지막 반격을 가하듯 크게 팔을 휘둘렀지만, 루드비카는 가뿐히 그 반격을 피하며 다시 공격권을 손에 쥐었다.

“설마 여기서 끝내 시려는 건 아니겠죠?”

“흥, 요즘 너의 검을 맞대고 있자면 드는 생각이 뭔지 아느냐? 네 실력만을 믿고 자만심이 가득한 검 날을 휘두른다는 것이지!”

“그것은 형님이 아닐까요? 저보다 오랫동안 검을 잡으신 분이니 오히려 그 자만심은 형님의 검 끝에 보입니다만!”

캉, 캉 소리를 내며 머리와 어깨에 눈이 쌓이고 있음에도 두 사람은 검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서로를 견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온 몸의 긴장을 바짝 세운 루드비카는 다시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검 끝을 겨누며 클로드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마찬가지로 클로드 역시 진심을 다해 검 끝을 세우며 루드비카의 움직임을 경계하고자 살짝 옆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하필 눈 더미 속에 가려진 작은 돌멩이가 있었는지 클로드의 움직임이 살짝 중심이 풀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틈을 절대로 놓칠 리가 없는 루드비카가 가장 빠른 몸짓으로 검을 휘두르며 클로드의 검을 쳐내고 제 형의 목 끝을 겨누었다. 이로서, 루드비카의 승리였다.

“제가 이겼습니다. 형님.”

“그래, 네가 이겼다. 루드비카. 하지만 이제 나를 5번 정도 이긴 것을 가지곤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은 제가 운 좋게 이겼다는 말입니까?”

“내 말이 그렇게 들렸다면, 그리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인정하마. 네 실력이 왕성에 있는 일반 기사들의 실력보다 월등히 뛰어넘었다는 걸. 그래도 자만하지 말아라. 한순간의 방심은 금방 네 실력을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

루드비카가 클로드의 목에 겨눈 검 끝을 치워내자, 그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클로드는 어깨에 작게 쌓인 눈을 털어내며 근처에 떨어진 진검을 주워들었다. 잠시 검을 손에서 놓았을 뿐인데 날씨가 얼음마냥 차가운 탓인지, 검의 손잡이는 벌써 손이 시릴 만큼 얼어붙어 있었다. 클로드는 서둘러 진검을 검 집에 집어넣고서 아직까지 검을 들고 있는 루드비카를 향해 오늘 대련이 끝났음을 알렸다.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자. 대련은 오늘만으로 충분하니. 시험이 곧 다가옴은 알고 있지만, 괜히 무리하여 커디션을 최악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검을 넣고 들어가자. 루드비카.”

“…알겠습니다. 형님께서 그리 말하시니 이 아우는 형님의 말을 따라야지요.”

그저 손목을 가볍게 움직였을 뿐인데, 루드비카는 말끔하면서도 손쉬운 동작으로 검을 검 집에 빠르게 집어넣었다. 이미 클로드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앞서 걷고 있는 것이 보였고, 루드비카는 클로드의 뒤를 따라 따뜻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공기가 사르르 녹아내리듯 저택안의 따뜻한 공기가 루드비카의 얼음장 같던 몸을 서서히 데우기 시작했다. 따뜻한 곳을 들어와서 인지 몸이 편안해진 느낌을 받은 루드비카는 오늘은 좀 더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고자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당에 도착하자, 루드비카의 시선에 제일먼저 보인 것은 바로 후작의 모습이었다. 식사가 아닌 간단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여기서 티타임을 갖는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다시 뒤를 돌아 식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눈치를 챘는지 신문을 한참동안이나 보고 있던 후작은 루드비카를 불러 세웠다.

“어딜 가느냐. 식사를 할 거면 와서 앉거라. 나도 오래 앉아있을 생각은 없으니.”

“…오늘은 출근하지 않으신 겁니까?”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너는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 같구나.”

루드비카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후작에게 고스란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답을 한다면 후작의 그 기회를 잡아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루드비카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다.

“수련은 잘 되어가고 있느냐?”

“예, 형님 덕분에 수련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래도 클로드에게 이번 기회를 삼아 이것저것 배워두는 편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클로드는 일반 기사들조차 감히 들어가기 힘들다는 제1기사단의 오랜 명성을 쌓은 명실상부 최고의 기사이니. 너도 이대로만 잘 된다면 제1기사단에 들어가는 것도 머지않을 것 같구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유리잔을 들어 올리던 루드비카는 다시 잔을 내려놓으며 한층 차분해진 서늘한 눈으로 후작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그 말씀은 개인적인 바람이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심이 편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1기사단에 들어갈 생각은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실력을 두고, 제1기사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너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썩히겠다 이 말인 것이야?”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기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제1기사단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괜한 기대감은 버려주십시오.”

후작은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 멀찍이 떨어져 저를 응시하고 있는 루드비카의 눈과 마주쳤다.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러나 그 눈동자는 후작이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 예전이라면 웃고 있음에도 그 생각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러면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 눈이었다면, 지금의 눈은 얼음의 벽처럼 함부로 건들 수도 넘어설 수도 그 너머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조차 모를 얼음 같은 눈이었다.

그래도 예전의 눈매보단 기사로서 뒤바뀌어 가는 매서운 눈매가 후작은 마음에 들었지만 제1기사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루드비카의 말을 생각하자면 다시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직 생각을 바꿀 시간은 충분히 있는 법이니, 후작은 더 이상 입씨름을 벌이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당을 떠나기 전, 루드비카에게 시험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단단히 당부했다.

“시험의 날짜가 머지않았으니 단단히 준비 하거라. 특히나 검을 다루는 것에 있어 상처엔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람의 생각은 지금의 너처럼 바뀔 수 있는 법이니, 네가 기사가 된다면 그 이야긴 그때 가서 다시 해보자꾸나. 그럼, 맛있게 식사 하거라. 루드비카.”

“....”

후작이 완전히 식당을 떠날 때까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던 루드비카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목이 타듯 유리잔에 담긴 물을 찾았다. 한 모금 정도 크게 마셔내니 그 갈증은 단숨에 사라졌지만, 유리잔을 잡고 있는 루드비카의 손에는 작게 힘이 들어갔다. 후작의 말처럼 이제 시험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두 달의 반하고도 남은 절반의 짧은 시간. 이제 헤르세인을 만날 수 있을 시간이 머지않았다. 그때까지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실력으로 루드비카는 입증하고 증명해내야 했다. 그래야 그녀의 곁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루드비카는 어서 그날이 오길, 헤르세인을 만날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도했다. 그리고 무사히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간은 눈 깜짝 할 사이, 왕성에서 주관하는 기사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왕성에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기사 시험을 치루기 위해 검술실력으로 난다 긴다 하는 예비 시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틈에 루드비카 역시 만반의 준비로 일찍 도착해, 대기번호를 받고서 시험 시작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있었다.

기사가 되기 위한 앞으로의 한걸음이자 시작의 단계이기도 한, 기사 시험. 기사 시험은 언뜻 간단할 수도 있으나, 막상 실전에 돌입하면 만만하게 여길 시험이 아니었다. 1대1의 대련. 그리고 그 대련을 통해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검술 실력을 지닌 자들이 뽑히는 시험의 자리, 애매한 실력을 가지곤 시험조차 통과 될 수 없는 시험이나 다름없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험까지 5분! 대기번호를 받은 시험자들은 대기번호에 적힌 앞자리 숫자에 맞춰 자리를 찾아가 대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험까지 앞으로 5분―”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확성 도구를 써, 안내하는 목소리가 연무장을 크게 울렸다. 현재 루드비카가 받은 대기번호는 325번의 4조. 일찍 왔음에도 대기번호를 주는 순서는 임의인지 루드비카는 대기번호가 적힌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서 4조란 팻말이 적힌 대기 줄을 찾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5분이 지나고, 안내 소리처럼 본격적인 기사 시험이 시작되는지 연무장에 들어오지 못한 지각생들을 완전히 잘라내며 연무장은 어느새 대련을 준비하는 살벌한 장소로 변해있었다. 경계는 물론이고 긴장한 얼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서 어서 대련의 시작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자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었다.

모두가 자리를 찾아가 시험자들의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혀질 때쯤, 이제 최종적으로 시작을 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는지, 단상위로 오른 안내자가 확성 도구를 가까이하며 시험에 관한 룰을 설명하기 전 공정하게 승부를 가려줄 심판관들을 소개했다.

“그럼, 제일먼저 여러분들의 대련을 심판할 심판관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심판할 심판관들은 제1기사단에서 뽑힌 6명의 기사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살필 눈이 될 것입니다. 심판관들의 앞에서 그 어떤 반칙도 허용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대련 중 의도적인 부상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곧바로 실격처리가 될 것이니 단단히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짜고 치는 승부조작 역시 실격처리는 물론, 다음 기사 시험에서도 그 당사자들은 제재될 대상자가 될 테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루드비카는 정확히 단상 위에 서있는 5명의 기사들을 주시했다. 제1기사단을 상징하는 백색의 제복과 한쪽 어깨를 감싼 붉은 망토. 기사가 된 자라면 모두가 입고 싶어 하는 명예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복뿐만이 아닌, 그들의 허리춤에는 제1기사단의 기사만이 하사받는다는 레이피어가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벌써부터 제1기사단의 멋들어진 모습에 아직 시험을 치루지 않은 시험자들의 눈은 동경과 선망으로 6명을 보고 있었지만, 루드비카는 그 6명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을 차분한 눈으로 응시했다.

“클로드 형님.”

설마, 6명의 심판관들 중 클로드까지 껴 있을 줄은 루드비카조차 생각지 못했다. 물론, 바로 오늘 저택에 나오면서까지 클로드와 마주했던 루드비카는 특별한 말은 듣지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클로드의 모습을 다시 보니, 그 느낌은 사뭇 달랐다. 얼핏 클로드와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루드비카가 먼저 그 시선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지금은 클로드를 생각할 것이 아닌, 앞으로의 시험이 루드비카에겐 가장 중요했다.

“다음으로 시험에 관한 합격 선출 방법과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맨 앞에 세워져있는 푯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험을 치룰 시험자들은 총 600명. 그리고 각 대기번호의 앞자리를 따라 6개의 대기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분이 현재 서있는 자리는 총 100명씩 각 조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각 조의 100명을 대상으로 50명을 뽑을 것이며, 1차 합격된 50명은 2차 시험으로 올라가, 다른 조와의 개인 대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즉, 1조와 2조의 개인 대련으로 거기서 절반으로 줄여진 35명을 뽑을 것이며, 3조와 4조는 30명, 그리고 5조와 6조는 35명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총 100명을 선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룰은 간단합니다. 제한 시간 5분 안에 상대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 그 제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최종 100인의 합격자에 드시길 기원하며 기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루드비카의 대기번호는 325번. 그리고 대기조는 4조. 4조 안에 있는 100명과의 각 대결에서 1차 합격의 최종 50명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다. 1차 최종 50명 안에 드는 것은 쉬운 일일수도 있지만, 문제는 루드비카의 현재 대기조에 있었다. 1조, 2조, 5조, 6조와 달리, 3조와 4조는 거의 죽음의 조나 다름없었다. 1차 시험은 똑같을지 몰라도 2차 시험은 다른 조들과 다르게 합격의 인원수가 좀 더 적은 숫자이기에 그야말로 가장 치열한 조이자, 죽음의 조나 다름없었다.

분명 합격 인원이 적은 4조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1차 시험에 합격한 후의 걱정거리. 지금은 50명 안에 드는 것이 목표이기에 루드비카는 최대한 심호흡을 하며, 다시 안내 확성에 따라 대련이 시작될 대련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600명을 수용하고도 남아도는 연무장이나, 1대1대련의 시험이기에 시험자들의 대련장은 거의 붙어있는 셈이나 다름없었다. 거의 근처에서 들리는 합격의 통지와 불합격의 통지가 감정 없는 심판관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동안,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얼굴은 그야말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은 325번과 361번. 두 사람은 서둘러 대련장 위로.”

4조 내의 무작위 선정의 호명이 나오자, 325번의 브로치를 달고 있는 루드비카가 대련장 위로 올라섰다. 루드비카의 상대는 361번의 브로치를 달고 있는 체격이 단단한 상대자였고, 1차 시험은 5분 안에 상대를 제압하는 목검의 승부였다. 하지만, 상대는 루드비카의 외모나 체격을 보고는 우습게 생각했는지 대련 시작 전,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시작했다.

“어이,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형씨. 그 가녀린 팔로 목검이나 제대로 휘두를 수나 있긴 한 거야?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기 전에 기권하는 게 어때? 아니면 대련이 끝나고 내가 놀아나 줄까?”

이제는 도발을 넘어 상대방은 음흉한 눈빛으로 루드비카를 훑고 있었다. 만약, 기사 시험이 아닌 일반적인 사교계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도전적으로 그 말을 받아쳤을지도 모르나, 루드비카는 괜히 입을 움직이는 것보단 침묵하는 쪽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도움이 된 다, 판단하여 최대한 흥분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되려 루드비카의 침묵이 더 아니꼬웠는지 대련 상대는 비꼬아진 입 꼬리를 올리며 루드비카를 향해 목검의 끝을 겨누었다.

“하! 말도 안 하시겠다? 좋아. 어디 그 기고만장한 반반한 얼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보자고.”

루드비카와 루드비카의 상대가 준비된 것을 보았는지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심판관이 손을 들어 올려 대련 시작의 신호를 알렸다.

“제한 시간은 5분. 그럼, 시작!!”

정확히 1초조차 지나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매서운 눈을 하며 심판관은 회중시계를 들고 있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시계초침 소리와 동시에 먼저 움직인 361번이 루드비카를 향해 자신만만히 목검을 휘둘렀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는 법! 이봐 기생오라비 형씨! 아쉽겠지만 승리는 내 것이야!!”

361번은 특유의 큰 체격을 밀어붙일 생각인지 목검을 크게 휘두르는 것을 내세워 루드비카의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체격이 큰 것과는 별개로 초반부터 무턱대고 검을 휘두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던가. 아무리 제한시간이 터무니없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상대를 판별하는 기 싸움과 경계심이 있어야 했다. 루드비카는 크게 피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 옆으로 움직여 상대방의 목검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다.

바람을 가르는 부웅 거리는 소리가 바로 귓가의 근처까지 들렸지만, 무턱대고 목검만 휘두른 탓에 상대방은 그야말로 허공에 검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너무도 여유롭게 피해버린 루드비카의 모습에 머리끝까지 차오른 굴욕감을 느낀 361번이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몸을 홱 돌리곤 루드비카를 향해 소리쳤다.

“얌체같이 피하기나 하다니! 정면 승부가 무서우니 얍삽한 몸으로 피하는 거냐!!”

왜 하필 상대가 저런 얼간이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상대를 정한 건 심판관의 무작위 선정. 웬만하면 조용히 승부를 가리고 싶었지만 상대가 저토록 시끄럽게 떠는 이상, 빠르게 결판을 내야했다. 루드비카는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 좋은 미소를 그리며 가볍게 들고 있던 목검을 단단히 쥐었다.

“그럼, 정면으로 승부해 드리죠. 두 말하지 않기 입니다?”

“하! 어디 그 가는 손목으로 목검이나 휘두를 수 있을지 증명이나 하고 말해!!”

여전히 도발을 일삼는 상대방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예의 좋게 짓고 있던 미소조차 이제 그만 관두어 버렸다. 저렇게 도발만 하고 떠는 상대방일수록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법. 사교계나 대련장 할 것 없이 여전히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어딜 가나 있는 법이었다.

루드비카는 다시금 자신의 앞으로 돌진하는 361번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은 전혀 살짝 피할 것도 없이, 루드비카는 목검을 잡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언제 발도를 할지 계산을 시작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듯 루드비카는 상대방의 모습을 최대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한 발, 또 한 발. 자신의 사이와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들고 있는 검이 높게 치솟아 올라 서서히 내려올수록 루드비카는 그럼에도 눈 한번 깜박임 없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쿵, 쿵, 쿵―!

상대방의 발이 완전히 유리한 위치까지 땅을 밟는 순간, 루드비카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자세를 낮추었다. 서로의 몸이 완전히 몸을 들이박기 일보직전 루드비카는 목검을 쥐고 있던 발도자세를 풀어 단 한 번에 검을 휘둘러 상대방의 검을 쳐냈다.

탕―!

“325번 합격.”

“....”

“그리고 361번 불합격.”

361번의 손에 들려있던 목검이 허공에서 맴돌기를 짧은 몇 초의 시간. 심판관의 불합격 통지와 함께 루드비카의 앞으로 허공에 있던 목검이 바닥을 뒹굴며 떨어졌다. 아주 잠시 동안, 4조 대련장 주변에 있던 시험자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루드비카는 들고 있던 목검을 바로 잡고서 몸을 돌렸다. 대련장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이제 막 발을 떼려던 찰나, 불합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목소리가 대련장위로 쩌렁 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나, 난 승복 못해! 내가 불합격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다시 승부해! 다시 승부하자고!!”

아무래도 루드비카가 이긴 것이 단순 운이라 생각했는지, 361번은 이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에 심판관은 골치 아픈 낌새를 눈치 챘는지 서둘러 361번을 중재하기 위해 나서려 했지만, 심판관이 말리기도 전에 361번은 어느새 루드비카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길 방해했다.

“내가 질 리가 없어! 너 같은 비리비리한 사내자식에게 내가 진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다시 승부해! 다시 승부하자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정면승부 해드리겠다고.”

“정면승부? 그걸 정면승부라 말할 수 있어?! 웃기지마! 분명, 꼼수를 썼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불합격일 리가 없어!!”

왜 하필 자신의 상대가 이런 사람인지 루드비카는 머리가 살짝 두통 오는 느낌이었다. 어느새 심판관도 싸늘한 눈을 하며 361번을 끌어내리기 위해 대련장 주변에 있던 병사들을 부르려했지만, 루드비카는 그런 심판관을 붙잡으며 정중히 요청했다.

“심판관님. 이번 대결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저토록 원하니, 361번과 다시 재대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아주 운이 나쁘면 재대결을 통해 질 수도 있을 대련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을 무효로 하여금 다시 재대결을 한다는 건 이미 합격을 받은 루드비카에겐 큰 손해나 다름없었다. 그야말로 불합격자에겐 유리한 대련.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361번은 음산히 웃고 있었지만 루드비카는 누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오직 이 상황의 결정을 정할 심판관의 목소리만 기다릴 따름이었다.

재대결. 언뜻 보면 이미 대련에서 이긴 합격자에겐 다시 불리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재대결이란 자체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어긋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재대결을 요구하는 시험자들은 없었다. 특히나 시험을 합격한 이들 중에서는. 이유는 간단했다. 재대결을 통해 다시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심판관은 루드비카를 향해 정말로 재대결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했다.

“정말로 재대결을 하겠는가? 만약 재대결을 통해 자네가 진다면 더 이상 시험은 끝이네. 불합격이 될 수도 있음에도, 그래도 재대결을 원하는가?”

“예, 원합니다. 재대결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루드비카의 의지에 심판관은 이내 재대결을 승낙했다. 심판관의 승낙이 끝나자, 가장 이 순간을 기다린 건 361번 이었다.

“반드시 후회시켜 주마! 네놈의 합격이 그저 운으로 따냈음을 내가 다시 한 번 증명해보이겠어!”

“그럼 저는 운이 아님을 보여드리죠.”

처음보다 루드비카는 날이 선 목소리로 361번을 주시했다. 그러나 361번은 루드비카의 시선이 어떻든 재대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바를 이뤘는지 가장 비열해 보일 정도로 입 꼬리를 올리며 루드비카를 깔아 내리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다시 재대결을 시작할 테니, 두 사람 모두 제자리로.”

재대결을 알리는 심판관의 목소리에 루드비카와 361번은 대련장의 한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로 일곱 걸음 정도 벌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은 목검을 겨누며 대련의 시작을 알릴 심판관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5초 뒤. 대련은 다시 시작 됐다.

“재대결 시작!”

시작과 함께 이 대련을 단숨에 끝낼 작정인지 361번 상대는 루드비카를 향해 빠른 속도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슬아슬하게 목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합격이 운이 아님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루드비카 역시 제자리를 벗어나 상대를 향해 뛰어갔다.

캉―!

일곱 걸음 채 벌어지지 않은 짧은 거리에 두 사람의 목검은 금방 부딪쳤으나, 루드비카는 목검을 궤도를 바꾸면서 살짝 몸을 기울어 상대방의 억누르는 목검의 힘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재빠른 속도로 다른 손을 이용해 목검을 쥔 루드비카는 정확히 상대의 뒤통수를 향해 목검의 끝을 겨누었다.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제 실력이 운이 아님을. 그러니 승복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크윽.”

두 번째 대결임에도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분함과 그럼에도 받아들여야 하는 패배에 결국 상대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첫 번째 대련보다 더 싱겁게 끝난 재대결에 주변에서 두 사람의 대련을 주시하던 다른 시험자들은 루드비카의 검술 실력에 대한 감탄을 뱉어냈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겪을 대련 때문인지, 잠깐의 소란스러움은 금방 끝나고 말았다.

큰 어려움 없이, 어찌 보면 싱겁게 끝난 1차 시험임에도 루드비카는 합격했다는 것만이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두 세 시간 정도 1차 시험이 완전히 끝났을 쯤, 1차 시험 합격자의 최종발표와 함께 루드비카는 최종 50인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합격된 모두가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이어진 2차 시험에 참가하게 된 루드비카는 예상대로 가장 치열하다 할 수 있는 3조와 4조의 개인 대련에 가장 집중을 해야 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를 게 없지만, 아무래도 합격 인원수가 적은 3조와 4조이다 보니, 가장 치열한 대련이 될지도 몰랐다. 본격적으로 다시 대련이 시작되면서 루드비카는 1차 시험 때처럼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합격!”

“불합격!”

여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모습은 그저 대련장 바깥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그들의 대련 모습이 피를 들끓게 하는 열정이 아닌, 과연 저 대련장에 서서, 자신이 떨어질지 아님 시험에 합격할지 모를 불안과 긴장감에 모두가 한 마음처럼 주먹을 그러쥘 수밖에 없었다.

“다음 차례. 4조의 325번. 그리고 3조의 277번. 두 사람은 서둘러 대련장 위로.”

드디어 루드비카의 차례가 다가왔다. 심판관이 호명한 번호대로 루드비카는 자리에 일어나 최대한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며 고작 몇 걸음 채 안 갔을 뿐임에도 어느덧 대련장 한 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루드비카의 상대는 3조의 277번. 처음 상대한 361번과 달리, 이번 상대는 루드비카와 체격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차분한 얼굴을 하며 루드비카를 주시하고 있었다.

“대련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름이나 알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2차 시험은 최종 시험이 될 테니 상대의 이름정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제 이름은 그리너입니다.”

그리너 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내가 자신을 소개하자, 루드비카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짧게 소개했다.

“루드비카 입니다.”

“좋습니다. 루드비카 씨. 서로 후회 없이 전력을 다해 시험을 치르도록 합시다.”

1차 시험과는 다른 분위기의 상대여서 인지, 루드비카는 목검을 잡는 손에 힘을 가했다. 그리너의 말처럼 마지막 시험이자, 기사가 될 수 있는 최종적인 2차 시험. 절대로 여기서 떨어질 수 없는 대련이었다.

“제한 시간은 5분. 그럼 시작!”

심판관의 시작 소리가 다른 대련장의 목검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하지만 시작이 됐음에도 루드비카도, 그리너도 두 사람 모두 섣불리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눈 한번 깜박임 없이 서로만을 주시하길 1분. 아까운 1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작음 움직임조차 완전히 간파하고자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기 싸움을 시작했다.

째깍, 째깍, 째깍―

오직 심판관만이 들을 수 있는 회중시계의 시계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덧 긴 바늘이 2분을 향해 다가갈 쯤, 서로에 대한 파악이 끝났는지 먼저 몸을 움직인 건 그리너였다.

루드비카 보다는 느린 속도이지만,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내며 그리너는 루드비카를 향해 달려가 몸을 숙여 재빠른 동작으로 목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리너의 동작 하나하나 눈을 떼지 않은 루드비카 역시 빠른 행동으로 그리너가 휘두른 목검을 피해 이번엔 루드비카가 반격에 나섰다.

캉―! 캉―!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 루드비카는 최대한 냉정히 목검을 휘둘렀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을 지녔는지 그리너의 목검에 몇 번이고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다.

“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실력이 대단하시군요. 제 검을 맞받아 칠 줄이야.”

“그쪽도 만만치 않은 실력입니다. 오히려 상대하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서로의 검술에 대해 아주 짧은 소감을 나누며 두 목검은 다시 한 번 부딪쳤다. 하지만 목검만 부딪칠수록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없음을 알리고자 심판관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향해 외쳤다.

“앞으로 1분!”

더 이상 결판을 내지 않으면 무승부로 서로가 불합격을 받을지도 모를 촉박한 시간이 되고 말았다. 루드비카는 그리너와 맞대고 있던 목검을 떼어 거리를 충분히 벌린 후, 호흡을 가다듬고서 그리너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공격임을 예고했다.

“이번 공격이 마지막입니다.”

“저 역시, 이번 공격으로 끝내겠습니다. 루드비카 씨.”

서로의 목소리가 맞물리는 동시에 끝나자, 루드비카와 그리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크게 휘두르는 그리너의 목검과 좀 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속도를 낸 루드비카의 목검. 째깍, 째깍 울리는 회중시계의 초침이 거의 5초를 남겨두고 목검이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대련은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

“아쉽지만… 제가 졌습니다. 저의 패배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루드비카 씨.”

“하아… 하아….”

조금은 거칠어진 숨을 토해내며 루드비카는 그리너의 목 끝에 겨눈 목검을 거두었다. 솔직한 느낌을 말하자면 그리너의 검술은 클로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기초가 탄탄하고 반격하는 검술이 뛰어나다보니 오히려 그런 점이 루드비카는 그리너를 상대하기가 약간 껄끄러웠다. 아무리 목검을 휘두른다 한들, 상대가 계속 검을 맞받아치며 반격한다면 공격은커녕 체력소모만 헛되이 허비할 뿐이었다. 재빨리 공격을 한다 해도, 방어나 반격 쪽이 뛰어나다면 그것을 뚫기가 어려운 법.

하지만, 그리너 보다 더 상대하기가 껄끄럽던 클로드의 검술과 몇 번이나 부딪쳤던가? 그 공략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드비카는 그리너와의 대련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만약 대련의 제한시간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그 시간만큼 마음이 여유로워져 더 헤맸을지도 몰랐다. 다행이 시간이 촉박한 만큼 마음을 냉정하게 시야를 더 넓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승리를 잡게 됐지만, 루드비카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상대방과 검을 제대로 부딪친 건 오랜만이기 때문이었다.

“4조의 325번 합격!”

“합격….”

아슬아슬한 5초의 시간을 남겨두고 루드비카는 심판관의 합격을 울리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2차 시험의 30인에 들게 된 것이었다. 어느덧 해가 저무는 노을이 루드비카의 시선에 잡혔다. 분명 1차 시험 때 만 하더라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른 시간이었건만, 눈 깜짝 할 사이 시험에만 집중한 탓인지 바깥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음을 이제야 눈치 챌 수 있었다.

루드비카 뿐만이 아닌, 치열하던 다른 합격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2차 시험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리고 완전히 2차 시험이 끝나고 연무장에 모인 이들은 최종 100명에 들어가게 된 합격자들 뿐 이었다. 그 100명중에 루드비카 역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합격자들을 축하하는 심판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두 축하하네! 2차 시험까지 짧은 시간 안에 제 실력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최종 100명 안에 든 그대들의 실력에 박수를 보내겠네! 이제 앞으로 그대들은 왕실의 귀한 기사가 될 것이며, 그 힘을 부디 사브레 왕국을 위해! 왕실을 위해! 국왕폐하를 위해! 그대들의 피와 땀이 왕국의 빛이 될 것임을 보여주길 바라겠네!”

정식 기사가 됐음을 인증하는 기사의 배치와 한 방울의 피와 이름이 서명된 증명서가 어느새 루드비카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제, 완전히 정말로 기사가 된 것이었다.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원하던, 증명을 하고자 하는 기사가.

루드비카는 당장이라도 손에 든 이것들을 제일먼저 헤르세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드디어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증명의 표시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을 아주 잠시 미뤄야만 했다. 정식 기사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기사로서 이름이 올라가는 건, 기사 임명식이 있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복을 갖춰 입고서 헤르세인을 찾아가야 했다. 물론, 깜짝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루드비카는 그보다 더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왕비를 찾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자, 그 벽을 넘지 않는 한 헤르세인의 곁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은 관문을 반드시 루드비카는 넘어야만 했다.

기사 임명식이 끝난, 하루 지난 다음의 날. 청렴하고도 더러움조차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순백의 제복이 거울 속에 비추고 있었다. 루드비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한참동안이나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 빠진 것이 아닌,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으면서도 영 어색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누가 기사의 제복을 입으리라 생각했을까? 하물며 제 자신조차 기사가 되리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늘, 그동안 기사가 되지 않기 위해 피해왔던 노력들이 제복을 입는 순간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렸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길만이 헤르세인을 향한 유일한 길이니까.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루드비카는 이 길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몸에 꼭 들어맞는 제복을 완전히 갖춰 입고서 루드비카는 마지막으로 붉은 망토를 어깨에 걸친 후, 왕실에서 하사한 기사의 상징인 레이피어까지 완벽히 갖추며 침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침실에 나오자 때마침 출근길이었는지 우연히 지나가던 클로드와 마주친 루드비카는 클로드를 향해 아침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출근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지. 제복을 그리 갖춰 입으니 평소보다 훨씬 낫구나.”

과연 칭찬인지 단순한 비꼼인지 의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 어느 쪽이 되었든 루드비카는 상관없었다. 기사가 되었다는 것만이 루드비카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아침 식사하러 갈 것이냐?”

“아니요, 바로 왕성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 그럼, 같이 출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어떠냐. 같이 출근할 생각은?”

설마, 클로드가 이런 제안을 하리라 루드비카는 생각지도 못했다. 물론 여태까지 자신은 기사가 아닌 놀고먹는 귀족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클로드는 오래전부터직업정신이 투철한 기사였다. 때문에 클로드와 같이 출근할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루드비카는 잠시 흠칫했지만, 어차피 서로 왕성으로 가는 방향이 똑같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욱이 지금당장 루드비카는 느긋하게 식사를 할 겨를 따윈 없었다.

“그럼 출발하시지요. 저는 형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클로드의 뒤를 따라, 루드비카는 저택의 뒤편에 있는 마구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구간에 도착하자 언제 대기시켜놓았는지, 마구간을 관리하는 하인이 두 필의 말을 준비시켜놓고 있었다. 한 마리는 루드비카도 익숙한 클로드의 말이자 튼실한 몸, 그리고 굉장히 클로드를 따르는 백마가 윤기 나는 자태로 푸드덕 거리고 있었으며, 또 한 마리는 굉장한 윤기를 자랑하는 흑 빛의 털이 인상적인 흑마가 루드비카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가 된 것을 기념하여 나와 아버지가 심열을 기울여 간신히 얻은 명마 중의 명마이다. 네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구나, 루드비카.”

“이제 막 기사가 되었을 뿐인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사이기 이전, 넌 라인하르트 가의 사람이다. 혈통 좋은 명마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명마 하나 정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시니컬하게 대답하곤 말 안장위로 가뿐히 올라탄 클로드는 고삐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 어서 흑마위로 루드비카가 올라타길 기다리자, 루드비카는 발걸이에 발을 끼어 클로드처럼 가뿐히 안장위로 올라탈 수 있었다. 마차와는 전혀 다른 높이와 탑승감. 아무래도 말의 등을 직접 타는 일이기 때문에 말의 흔들림이 자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승마실력을 다져놓은 루드비카는 고삐를 바르게 잡고서 클로드가 먼저 출발하기 전에 발걸이의 양 옆을 움직여 흑마의 옆구리를 쳐냈다.

“그럼, 저부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이랴!”

움직이라는 루드비카의 신호를 느꼈는지 흑마가 푸드득 소리를 내며, 서서히 네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끄럽게 먼저 앞장서는 루드비카의 모습에 말에 올라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클로드 역시, 고삐를 움직여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다.

왕성에 도착하자마자 루드비카는 기사들이 훈련할 훈련장이 아닌, 아라네아 왕비의 거처, 아비카 제2궁전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실례될지 모를,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루드비카는 다행이도 응접실에서 아라네아 왕비를 일찍 만날 수 있었다.

“정말로 기사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석 달이란 시간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거늘. 그것을 용케 해내다니. 내가 그대를 얕잡아 보고 있었군.”

“오늘부터 왕실의 소속된 루드비카 라 합니다. 아라네아 왕비전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

왕비는 서늘한 눈으로 귀족의 인사가 아닌, 기사식의 예법으로 인사를 올리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석 달 전만하더라도 과연 기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이가는 외모에다 검조차 들기도 벅차 보이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왕비는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다. 검보다는 꽃, 제복보다는 화려한 정장. 왕비가 생각하는 루드비카는 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한량한 귀족 그대로의 모습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는 그 한량하던 모습조차 어디로 가버렸는지 까마득할 정도로 전혀 다른 인물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화려한 정장대신 왕실을 수호하는 순백의 제복으로. 또, 꽃 대신 날카로운 검을 들었으며 치렁치렁하기 짝이 없던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사람의 인상을 단숨에 날카롭고 단정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기사의 모습.

정중히 시선을 내리깔아 허리까지 숙이고 있음에도 왕비는 그 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루드비카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다. 마치 또 다른 시험을 치루 듯 왕비가 침묵하길 십 여분. 왕비는 이내 루드비카의 인사를 받아들였다.

“자리에 앉게. 이른 아침부터 날 찾아온 것이라면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겠지. 그렇지 않은가?”

왕비는 이른 아침의 시간임에도 실례를 무릎 쓰고 이곳까지 찾아온 루드비카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기사가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또한 자신에게 완전한 인정을 받기 위해 찾아 온 것임을 어찌 모를 수 있을까? 그러나 왕비는 굳이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제 아무리 기사가 됐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비는 시녀가 따라주는 차를 여유롭게 음미했다.

“왕비전하.”

차를 두 모금 정도 마실 쯤, 결국 기다리기 지친 루드비카의 목소리가 차를 마시려던 왕비의 행동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왕비는 소리 없이 찻잔을 내려 손에 깍지를 끼곤 루드비카를 향해 대답했다.

“기사는 본디 인내가 우선이라 들었네만, 그대는 아직 그 인내심이 없는 것 같군. 그리도 내 인정을 받고 싶은 겐가?”

“예, 왕비전하의 인정을 받고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허나, 내 마음의 변덕으로 그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텐가? 그대로 헤르세인을 포기할 생각인가?”

왕비의 직접적인 질문에 루드비카는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차분한 얼굴로 돌아가 왕비의 말을 맞받아 쳤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게 증명을 보이고자 기사가 됐음에도 정작 내가 인정을 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그럼에도 포기를 하지 않겠다니. 너무 뻔뻔하다 생각하지 않는 건가? 라인하르트 공자.”

“뻔뻔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며, 설령 그분의 곁에 갈 수 없을지라도 제 충성은 오롯이 그분만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

언뜻 충성심을 넘은 과한 집념의 집착이 보였지만 왕비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이란 것에 깊이 빠져 눈앞에 닥칠 현실을 실감하지 못할 루드비카가 딱해 보일 정도였다. 왕비는 작게 한숨을 토해내며 루드비카의 눈과 똑바로 마주했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는 거지만, 나는 그대가 석 달 안에 증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쯤은 헤르세인을 향한 마음을 접을 거라 생각했네. 왜 인줄 아는가? 그대가 라인하르트 후작의 자제임을 떠나, 석 달 동안 헤르세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그 만나지 못한 시간을 통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거라 여겼지. 또한 석 달 안에 기사가 된 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하지만 그 모든 예상을 깨고 그대는 해냈지. 기사가 되었고 지금 내 앞에 기사가 되었다는 증명을 보이고 있지. 고작… 사생아에 불과한 아무것도 가진 것조차 없는 헤르세인의 곁에 있고자… 그 재능을 낭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엔 아까운 재능일지 몰라도 제겐 있어선 그분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이용 도구일 뿐입니다.”

이용도구라니. 자신의 재능을 고작 사랑 때문에 이용도구로 취급하는 이는 아마, 루드비카가 유일할지도 몰랐다. 어찌 보면 대단한 자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석 달 만에 기사가 된 것을 증명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재능을 썩힐 정도로 헤르세인을 향한 마음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그토록… 그대는 헤르세인의 곁에 있길 원하는가?”

“예, 왕비전하.”

“설령… 내가 허락한다 해도 그대의 주변이 인정하지 않을 거네. 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게지. 그럼에도 그대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자신이 있는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 저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군.”

이내 왕비는 기가 막힌 헛숨을 뱉어내며 어느새 다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올렸다. 찻잔의 온기는 아주 작게 남아 있었지만, 왕비에게 있어 그 온기는 있으나 마나한 차가운 찻물이나 다름없었다. 차를 들이킬 입맛이 싹 사라져버린 왕비는 이내 찻잔을 도로 내려놓고서 루드비카가 오늘보인 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좋네. 그대의 증명을 인정하고 헤르세인 왕녀의 곁에 있기를 허락하도록 하지. 허나, 그 뿐이네.”

“…그게 무슨….”

“사람은 마음은 갈대와도 같지. 지금이야 눈에 콩깍지가 씌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마음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법. 그 사랑이 과연 영원할거라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다 해도 그대의 주변이 가만두지 않겠지. 특히나 그대의 아비인 라인하르트 후작이라면 더욱. 결국 모든 것은 그대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음을 명심하게. 상처를 내는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전부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주변에서 비롯되는 일이란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라인하르트 경.”

끼이익하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루드비카의 시선은 오직 자리에 앉아 꿈쩍 않는 왕비의 뒷모습에 향해 있었다. 그러나 문으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더 이상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루드비카는 이내 몸을 돌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왕비를 통해 헤르세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기사로서의 인정은 받았으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다.

결국, 그녀의 곁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방법은 후작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후작이 방해를 할지라도 루드비카는 전혀 흔들릴 마음은 털끝조차 없었다. 지금은 당장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루드비카에겐 충분했다. 후작의 일은 차차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을 정리하기로 다짐하며 지금은 제일 중요한 헤르세인에게 어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헤세.”

생각을 정리하며 걷다보니, 어느덧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거처인 제6궁 레인 궁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매번 비밀통로를 통해 드나들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루드비카의 마음을 한층 더 들뜨게 만들었다. 또한 기사로서 처음으로 그것도 궁전 입구에서부터 차근차근 발을 내 딛을 때면 그녀가 있는 곳까지 점차 가까워지는 것 같아 심장소리가 바로 귓가에 들릴 정도로 루드비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지막 한 발을 내 딛는 것을 끝으로 루드비카는 완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 달 전부터 왕비의 명령아래에 헤르세인을 감시하고 있던 문앞을 지키는 하녀가 루드비카를 발견하고선 빠르게 고개를 숙이자, 루드비카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녀에게 물었다.

“왕녀전하께서는 일어나셨는가?”

“예? 아, 예! 헤르세인 왕녀전하께서는 이미 식사를 끝내시고 독서중이십니다.”

“그럼, 바로 알리게. 기사, 루드비카가 전하를 뵙고자 함을.”

"

사랑을 고백한 것보다, 이토록 더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을까?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손을 가만히 대고 있음에도 심장의 뛰는 소리와 그 두근거림이 헤르세인의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다. 한편의 자장가처럼 심장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기를 5분. 헤르세인은 감고 있던 눈꺼풀을 서서히 열어 정면을 똑바로 마주했다.

꿈벅꿈벅. 눈꺼풀을 반복하며 열고 닫기를 반복. 처음엔 너무 그리운 나머지 꿈속이나 환상이 아닐까 싶었지만, 심장의 두근거림도 아무리 눈꺼풀을 열고 닫아도 루드비카의 모습은 그대로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는 진짜 루드비카 본인임을.

“정말로… 당신인거야?”

“믿기지 않으신 겁니까?”

루드비카가 어색히 웃으며 눈꼬리를 예쁘게 휘었지만, 헤르세인은 여전히 루드비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석 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과 그의 전체적인 모습. 분명, 그토록 그립고 그리워하던 루드비카이지만 어쩐지 막상 입을 떼기가 어색했다. 아니, 그의 뒤바뀐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아 어색히 다가온 건지도 몰랐다.

석 달 전만해도 헤르세인이 알고 있던 루드비카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내였다. 꽃처럼 아름답고도 화려하며 보드라운 천보다 더 실크 같은 장밋빛의 머리칼을 가진 루드비카. 그러나 그 석 달 만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는지 헤르세인이 기억하고 있던 루드비카의 모습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보고만 있어도 딱딱해 보이는 백색의 제복과 단정하면서도 높게 묶은 그의 장밋빛 머리. 그리고 예전의 그의 얼굴은 아름다우면서도 여인 같은 가녀린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생긴 위험한 꽃을 연상시키는 얼굴이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옷과 머리스타일이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때론 옷이 사람을 달라보이게 만든다고 지금 루드비카의 모습이 그러했다.

“혹시… 석 달 만에 찾아왔다고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나름 헤르세인의 반가운 반응을 예상하고 찾아왔지만, 정작 그녀의 어색한 반응에 루드비카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동안, 그녀가 점차 자신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하지만 다행이도 루드비카의 그 불안감을 씻겨주듯 헤르세인의 단호한 고개 짓에 루드비카는 안심할 수 있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런 거 아니야. 단지….”

“…단지?”

“단지… 내가 알던 당신의 예전 모습이 안보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루드비카, 당신인 걸 알고 있지만 예전 분위기랑은 많이 다르니까.”

“그럼… 지금의 저는 싫으신 겁니까?”

서운함이 가득담긴 어투로 루드비카가 눈을 내리깔자, 헤르세인은 당황한 목소리로 서둘러 외쳤다.

“시, 싫어할 리가 없잖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그럼, 제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란 증명을.”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저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가. 매일같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에게 전할 수 없는 편지를 벌써 수 십 장이 넘어섰다. 그런데 증명을 하라니. 헤르세인은 루드비카를 쏘아보기 위해 눈을 치켜뜨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단호하면서도 어딘지 서운함이 가득한 애처로운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순식간에 마음이 약해진 헤르세인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천천히, 루드비카의 곁으로 다가갔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그리고 마지막 다섯 발자국.

완전히 루드비카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헤르세인은 오른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살짝 흐트러진 그의 옆머리를 곱게 넘겨주었다. 흐트러진 머리칼을 넘겨주면서 헤르세인의 손끝은 그의 귓바퀴, 귓불을 스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 상태로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던 헤르세인은 결심의 눈을 감고 그 상태로 두 뒤꿈치를 들어올렸다.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여 맞춘 입맞춤. 루드비카는 증명을 보이라고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헤르세인은 어떤 식으로 증명을 보여야할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증명과는 별개로 그동안의 그리움이 이토록 저돌적이게 되어버린 걸까? 막상 루드비카의 얼굴을 보니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의 숨결을 느끼고 그가 진짜 자신 앞에 실체함을 확인하고 싶었다.

촉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의 입술. 그리고 가까이 있음에도 코끝을 스치는 루드비카만의 달콤한 채취.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에게 입을 맞추던 입술을 떼어 떨리는 미소를 그렸다.

“정말로… 당신이야. 정말로 루카 당신──.”

그러나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손에 다시 붙잡히고 말았다. 강렬하게 부딪치는 열기가 가득한 입술이 헤르세인을 집어삼킬 정도로 강하게 눌렀다. 자석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루드비카의 입술이 이젠 헤르세인의 숨결까지 앗아가려하자 점점, 숨을 쉬기 벅차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가슴을 새게 두드린 끝에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하아, 하아….”

“이렇게 대담한 증명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말이지요.”

“그, 그럼, 증명 된 거지?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란 걸.”

“예, 그래서 기쁩니다. 헤세가 아직도 저를 잊지 않았음을.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비록 다리에 힘은 이미 풀렸으나, 헤르세인은 루드비카의 품에 안겨 다리에 힘이 없음에도 버텨낼 수 있었다. 그의 품이 그리웠었다.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의 품을. 한동안 서로 주고받는 말없이 헤르세인과 루드비카는 서로의 온기를 가득 느꼈다. 그리워하던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낼 때까지 누가 먼저 놓지도, 오히려 더 끌어안아 품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서로의 채취를 듬뿍 맡으며 루드비카의 품에 오랫동안 안겨있던 헤르세인은 살짝 고개를 들어 루드비카를 향해 질문 했다.

“저기, 루카.”

“네, 헤세.”

“혹시 말투를 바꾼 거야?”

“말투라 하시면?”

“나만 느끼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의 말투가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웠다면 지금의 말투는 왠지 딱딱하게 들려서….”

“아아, 말투 말씀이군요.”

루드비카는 품에서 단단히 놓지 않던 헤르세인을 풀어주며 살포시 미소를 그렸다. 그녀의 말처럼 루드비카 스스로도 말투가 예전과 다름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원해서 바꾼 말투이기도 했지만, 비록 딱딱하게 들릴지라도 자신이 기사임을 잊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자각 장치였다.

“예전의 제 말투가 그립나요?”

은근히 예전의 말투로 부드럽게 변한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반가움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루드비카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예전의 말투는 쓰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아주 가끔씩은 쓸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기사된 자로서 계속 이 말투로 쓰게 될 겁니다.”

“왜?”

“제가 기사임을 잊지 말라는 자각과도 같은 자물쇠 장치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기사로서 영원히 있기 위해.”

“…루카.”

루드비카는 한 발자국 사이를 벌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레이피어를 검 집이 꽂혀 있는 그대로 두 손에 들어올렸다. 갑자기 검을 들고 거리를 살짝 벌린 루드비카의 행동에 의아하던 헤르세인은 곧바로 이어진 루드비카의 목소리에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다.

“헤세를 찾아오기 전, 아라네아 왕비전하를 뵈었습니다. 무사히 기사가 되었으니 기사의 증명을 왕비전하께 인정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럼… 왕비전하께선 당신의 증명을 인정해 주신거야?”

불안함이 담겨있는 헤르세인의 목소리에 루드비카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왕비전하께서 인정해주셨습니다. 제가 헤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셨지요. 하지만, 곁에 있는 것만 허락해 주셨을 뿐, 더 깊이는 안 된다 하시더군요. 저의 가문과 후작각하가 있는 한.”

“....”

어쩌면 왕비보다, 국왕보다 더 단단한 높은 장벽은 루드비카의 가문과 라인하르트 가문의 주인인 후작일지도 몰랐다. 소문으로조차 철혈의 후작이라는 이름과 가문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피도 눈물조차 없다는 라인하르트 후작. 그러나 루드비카는 그 장벽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부딪치고 나아가려 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 있기 위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고 하지요. 기사가 되기 전까진 그저 헤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헤세의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닌, 당신의 연인으로. 당신의 기사로. 당신의 한남자로.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당신에게 귀속될 반려로.”

“…반려?”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그 미래를 그려본 적조차 없는 루드비카와의 더 머나먼 미래. 여느 평범한 가정집처럼 그의 아내가 되고, 그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가족을 꾸려 사랑을 키우는 것. 분명, 루드비카와 함께라면 행복이 가득한 미래임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자신에게 오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도 충분히 그의 옆에 있는 것조차 무리한 욕심임은 알고 있었다. 언젠간 왕실의 모두가 루드비카와의 관계와 알려지게 된다면 이 인연도 끝이 날지도 모를 아슬아슬 관계임에도.

떳떳하고 싶어도 떳떳해질 수 없는, 불안하고도 아슬 하기 짝이 없는 줄타기와도 같은 인연의 거리. 헤르세인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의 완전한 연인이 되고 싶다고. 당신의 완전한 연인이, 당신의 완전한 한 여자로, 당신에게 귀속될 영원한 반려가 되고 싶음을. 하지만 그 생각을 이미 읽기라도 했는지 루드비카는 씁쓸히 웃고는 잠시 동안 손에 들고 있던 레이피어 검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 헤르세인도 루드비카도 서로 고요한 정적 속에 입술만 다물고 있었다.

그때, 한참 동안 정적 속에 입을 다물고 있던 루드비카는 결의에 찬 엄숙한 자세로 한쪽 무릎을 꿇어, 검 집에서 레이피어를 뽑아 들었다. 그리고 헤르세인의 앞에 날카로운 레이피어가 받쳐있는 두 손을 들어올렸다.

“…루카?”

“비록 당신에게 완전히 귀속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당신의 곁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당시만의 기사로서 제 목숨을 다할 생각입니다.”

“....”

“헤세. 아니 헤르세인 왕녀전하. 이 보잘 것 없는 저의 목숨과, 제 일생을 왕녀전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전하의 곁에 저를 귀속시켜 주십시오. 전하의 하나 뿐인 검이 되고, 전하의 하나 뿐인 방패가 되어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몫의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제 검을 받아주십시오. 이 검은 오직 나의 주인 헤르세인…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런 장식도조차 없는, 단순한 레이피어에 불과한 검을 보며 헤르세인은 검 가까이 두 손 끝을 움직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과 두 손위로 무겁게 느껴지는 검의 무게감. 아니, 단순히 검의 무게가 아닌 루드비카의 결의와 신념이 깃든 무게일지도 몰랐다.

완전히 두 손에 레이피어가 들린 순간, 헤르세인은 저를 향한 루드비카의 눈을 마주하며 기사의 맹세를 받아들였다.

“나, 헤르세인… 드 아벨린 미르세니안은 루드비카 반 체르윈 라인하르트를 나의 검으로서 귀속되었음을 선언하며, 오늘부터 나는 그대의 올바른 주인이 될 것임을 이 검에 맹세한다.”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헤르세인은 어느새 부턴가 계속 이곳에만 있는 루드비카를 보며 끝내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말았다. 자신은 어디에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책을 보는 일이 전부라지만, 루드비카는 달랐다. 그는 엄연히 왕실의 기사였고, 해야 할 일도 당연히 많았을 터. 그럼에도 꿋꿋이 문 앞에서 하나의 석상처럼 꼼짝 않고 있는 모습에 헤르세인의 신경은 온통 루드비카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의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눈꼬리를 휘게 웃고는 아무걱정 없는 표정으로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맡은 소임인양 당당히 대답했다.

“왕녀전하의 곁을 지키는 것이 기사의 일입니다. 혹, 불편하시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정작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것이 아니건만, 너무도 당당하게 이곳에 있겠다는 대답을 들으니 막상 헤르세인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헤르세인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루드비카의 눈을 부딪쳐 고개를 저었다. 그 행동은 옳지 않았음을.

“날 위해서 기사가 되어준 건 좋아. 너무도 기뻐. 그래도 계속 이렇게 석상마냥 있기 위해 기사가 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게 맹세를 했어도, 루카 당신은 아직 정식으론 내 호위기사가 아니니까.”

“제가 싫으신 겁니까?”

“…루드비카.”

“농담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한가히 있을 때가 아니란 것쯤은.”

“그럼 왜….”

대체 왜냐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째서 고집을 피우냐는 헤르세인의 얼굴에 루드비카는 잔잔히 웃으며 나지막이 입술을 열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헤르세인 때문이라고. 그녀가 이곳에 있으니 떠나갈 수 없다는 아이 같은 어리광을 부리며.

“왕녀전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요. 비록 정식 호위기사는 아닐지라도 제 발걸음은 제 마음은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전하의 곁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 저의 떠날 수 없는 마음이.”

저렇게 대답하는 루드비카를 보면 헤르세인은 더 이상 반박할 말들이 생각나지 않았다. 괜히 자신만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같아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치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글씨를 읽고는 퉁명스럽게 입을 떼었다.

“그보다, 왕녀전하라라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왕녀전하라 부르는 건데?”

“싫으십니까?”

“응, 싫어.”

은근히 떠보는 것 같은 장난스러운 말투가 들렸음에도 헤르세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루드비카만큼은 자신을 왕녀로서 불러주질 않길 바랐다. 그 마음은 전과도 똑같았다. 타인들은 왕녀전하로 부르는 것이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잔뜩 비꼬는 식으로 부르는 것을 알기에 헤르세인은 그것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순 있지만, 루드비카만큼은 그렇게 불러주길 원치 않았다.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과 왠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왕녀전하라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루드비카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루드비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제 아무리 누구의 시선조차 없는 둘 뿐인 장소에 있음에도 기사가 된 이상, 정해진 호칭을 부르는 것이 예의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복을 갖춰 입은 기사가 된 이상, 저는 왕녀전하의 애칭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몸입니다. 간절히 원하셔도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사로서의 예의이자 왕녀전하를 향한 저의 존중입니다.”

“내가 정말 싫다고 해도?”

“예, 왕녀전하.”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잔뜩 아쉬움이 담긴 표정을 지으며 책의 종잇장만 꾸깃꾸깃 만지자,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쭉 지켜보았던 루드비카는 갑자기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더니 잘 묶어져있는 머리를 괜스레 만지작거리며 헤르세인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흠흠. 왕녀전하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단단히 고정시키던 머리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잠시 봐주셨으면 하는데….”

아마, 기사 중에 유일이 왕녀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이는 루드비카가 유일할 지도 몰랐다. 물론, 자신의 처지가 대단한 왕녀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이름뿐인 사생아 왕녀에 불과했지만, 설령 루드비카가 부르지 않을지라도 언제든지 그의 곁에 갈 것이었다.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 루드비카의 곁에 도착한 헤르세인은 여전히 묶어있는 머리를 만지고 있는 루드비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디 한번 머리끈 상태를 보기 위해 몸을 살짝 틀어 그의 뒤로 이동하려하자, 무슨 생각인지 루드비카가 재빨리 몸을 움직여 순식간에 헤르세인의 뒤로 멈춰 섰다.

“…루카?”

대체 왜 뒤로 갔냐는 얼굴로 헤르세인은 몸을 돌리려 했지만, 몸을 전부 돌리기도 전에 뒤에서 껴안는 단단한 팔이 헤르세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귓가에 바짝 붙여진 그의 입술은 헤르세인의 전신을 오싹하게 만들만큼 낮으면서도 달콤한 숨결이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귓가를 간질였다.

“비록 기사된 몸으로서 그 애칭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헤세’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서운한 표정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주인, 헤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큼 엄청 서운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헤르세인은 저도 모르게 뜨끔하며 어깨를 움찔 이고 말았다. 뒤에서 껴안은 작은 몸이 아주 작게 움찔한 것을 느꼈는지 루드비카는 픽 웃으며 살짝 고개를 더 내려 헤르세인의 오른 뺨에 입을 살짝 맞추었다.

“!!”

전혀 예상치 못한 루드비카의 입맞춤. 헤르세인은 화들짝 놀라 급히 고개를 틀었지만, 이미 몸을 전부 뒤돌아섰을 땐, 그의 단단한 팔은 어느새 풀어지고 두 발자국 떨어진 거리를 벌리며 헤르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왕녀전하께서 제 일을 계속 신경써주고 계시니, 이제 저는 제 일을 하고자 물러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끼이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루드비카의 뒷모습이 유독 눈이 쫓아갔다. 그가 떠나가는 아쉬움 때문에? 아니면 한 번도 뒤돌지 않고 담담히 걸어가는 조금은 매정해 보여서? 헤르세인은 문득 이것은 아쉬움 속에 스며든 쓸쓸함과 욕심이 아닐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었다. 그가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곁에 남자주길 바라는 그런 복잡한 마음.

“…루드비카.”

말의 꼬리처럼 찰랑거리며 움직이던 그의 붉고 긴 머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 시야를 차단한 굳게 닫힌 문만이 덩그러니 있을 뿐.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쫓던 정신을 이미 차렸을 땐, 이곳은 헤르세인 혼자였다. 언제까지나.

일반적으로 기사에게는 본디 계급이 없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기사들에게 역할분담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기사들의 계급이 생겨났다. 가장 일반적인 기사이자 가장 많은 기사의 수를 자랑하는 "평기사"와 왕족을 호위하는, 또는 국왕의 명을 받고 특정 귀족을 호위하는 "호위기사" 그리고 모든 평기사들이 가장 동경하고 이상으로 꿈꾸는 국왕의 기사이자 친위대로 불리는 "제1기사단"

루드비카는 "평기사"란 직책을 가진 일반 기사이기 때문에 당연, 평기사들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평기사들의 주 건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아직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인 비어있는 시간. 그런데 무슨 일인지 훈련장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하던 기사들의 모습은 웬일인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살짝 의아함을 품으며 훈련장을 지나 완전히 건물로 들어선 루드비카는 휴식실의 문 앞에 전부 모여 있는 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어이! 라인하르트 경! 대체 어디 있다 오는 거야! 한참이나 찾았다고!!”

이때를 기다렸는지 수 십 개의 모두의 시선이 루드비카를 향했다. 갑작스러운 모두의 집중적인 시선에 살짝 불쾌해진 루드비카는 미간을 좁혔지만, 기사들 중에서도 그나마 루드비카에게 호의적이던 한 기사가 서둘러 루드비카의 근처로 다가가 이 상황을 설명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왜 전부 저를 보고 있는 건지….”

“당연히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지! 케이사 왕녀전하께서 자네를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케시아 왕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다. 굳게 닫힌 휴식실 문 너머 왕녀의 모습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루드비카는 오히려 케시아 왕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기운이 싸늘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케시아 왕녀의 고백을 거절한지 벌써 몇 달이 흘렀던가. 그날 이후로 왕녀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루드비카는 왕녀가 완전히 마음을 포기했다 생각하며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케시아 왕녀가 다시 자신을 찾는다니?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왕족이 그것도 한낱 기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다. 루드비카는 부담스러운 기사들의 시선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며, 일단 노크를 하고서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케이사 왕녀전하.”

“라인하르트 공자!”

전속시녀 한명만을 대동한 채, 쭉 자리를 지키고 있던 케시아가 반가움을 듬뿍 담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루드비카를 반겼다. 하지만 그녀의 반가움과는 상반된 차분히 가라앉은 표정으로 웃음기 하나 없이 케시아에게 인사를 올린 루드비카는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곧바로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다.

“저를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아뢰옵기 송구하나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유…?”

고개를 숙인채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는 매정한 이의 모습. 그럼에도 케시아는 루드비카가 미칠 듯이 좋았고, 오직 이 두 눈엔 루드비카만이 전부였다. 케시아는 혹시라도 자신을 잠깐이라도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욕심이 가득한 욕망의 눈을 뒤섞어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붉은 입술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당황스러워할 그의 모습을 보고자 케시아는 그동안 숨겨놓았던 뱀의 이빨을 드러냈다.

“라인하르트 공자, 내가 그대를 찾은 이유는 오직 하나. 그대를 나의 호위기사로 임명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내가 공자… 아니, 라인하르트 경에게 묻지요. 라인하르트 경, 부디 나의 호위기사가 되어주겠습니까?”

왕국의 기사된다는 것은 왕국과 국왕에 대한 충성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또한 기사가 됨으로서 한 사람의 일생을 온전히 내어주겠다는 일종의 종신서약. 기사로서의 완전한 일생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건 오직 국왕에게만 가능했다. 그야말로 국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 검이 되고 또는 방패가 되어 일생의 무기가 되는 자들. 하지만 그 틀을 깨버린 자가 나타남으로서 왕성에 대혼란을 가지고 와버렸다.

뺨을 강하게 내리꽂는 손바닥의 힘과 그 강한 힘에 빨갛게 부어올라 상처만이 남은 뺨. 각기 엇갈린 시선이 집무실의 정적을 한층 더 싸늘하게 가라앉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던 후작은 이번엔 작정을 하고 다시 손바닥을 내려쳐 루드비카의 뺨에 더욱 아린 상처를 남겼다.

“못난 놈, 어리석은 놈, 한심한 놈! 그래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 거라. 네 변명에 따라 오늘 네 처분을 결정 할 테니.”

변명? 잘못한 것이 없기에 변명할 것도, 거짓을 고할 것도 루드비카에겐 전혀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 그럼에도 죽일 듯이 자신을 노려보는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냉소와 실소를 동시에 터트리며 돌아간 뺨을 돌려 터진 입가를 대충 닦아냈다. 하얀 제복의 소매 위로 덕분에 붉은 핏물이 배어났지만 그것을 일일이 신경 쓸 만큼 현재 상황은 루드비카에겐 달갑지 않았다.

“무슨 변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명이란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제 신변을 보호하고자 뱉는 보호방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후작각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에 변명을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네 입으로 죄가 없다 이러는 것이냐? 아니, 루드비카 네 놈은 크나큰 죄를 저질렀어. 어찌 눈앞에 저지른 죄가 있음에도 모를 수 있는지 네가 이상할 정도다.”

“....”

“케시아 왕녀가 어떤 인물이더냐. 왕후와 국왕의 적통핏줄이, 국왕이 왕태자보다 더 총애하고 감싸 도는 것이 바로 케시아 왕녀이다. 헌데 케시아 왕녀의 호위 기사를 감히 거절하다니. 그것도 다름 아닌 네가!”

후작은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주먹을 강하게 쥐었지만, 루드비카에겐 관심 밖의 일이었다. 오히려 후작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서 루드비카는 당당히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후작에게 설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하게 얽혀가고 있음이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에 거절한 것 뿐 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를 닮았기에 이리도 당당히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후작은 끝내 신음을 삼키며 갑작스레 당기는 뒷골과 현기증으로 얼굴을 구기고 말았다. 제 아무리 건강을 위해 체력훈련으로 검을 휘두른다 해도, 육체의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더욱이 루드비카가 기사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요 몇 달간 얼마나 기뻤던가. 그러나 그 기쁨을 루드비카가 다시 한 번 스스로 집어던지고 말았다. 자신에게 크나큰 고통까지 선사하며.

“네 자리가 아니기에 거절한 것이 아닌, 네가 있고 싶은 곳이 따로 있기에 거절한 것이겠지. 내말이 틀리더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를 망아지마냥 키웠구나. 고작 사생아 왕녀 따위에게 기사의 충성을 맹세하다니. 국왕에게조차 올리지 않은 기사의 맹세를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조차 없는 이름뿐인 왕녀에게 너의 고귀한 명예를 줄만큼! 네가 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전부 사생아 왕녀 때문이라니! 대체 어디까지 내가 너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어떻게 후작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당장 루드비카가 참을 수 없는 건 헤르세인을 향한 후작의 비난어린 말이었다.

“그분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제2왕녀 이십니다! 사생아 왕녀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닥쳐라! 루드비카!!”

지팡이로 버티고 있던 후작은 거의 바닥을 뚫을 정도로 내리치며 어떡해서든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했다. 하지만 이젠 작정하고 반기를 드는 루드비카의 반항과 사생아 왕녀를 두둔하는 제 아들의 모습에 후작은 이토록 모욕적일 수가 없었다.

“이제야 모든 네 행동의 의문들이 풀리는구나. 기사가 된 것도 그토록 혼인을 하기 거부한 것도 전부 헤르세인 왕녀 때문이었어. 신분이 낮은 이라 하여 그래도 언젠간 네 놈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 인연을 끊어낼 거라 생각했건만,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내 오산이었어.”

“그분을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건들지 말라? 루드비카, 넌 어지간히 이 아비가 우습게 보이는구나. 언제까지 네 어린아이 같은 장단에 내가 맞춰 줄 거라 생각하느냐?!”

“후작각하!!”

“난 널 헤르세인 왕녀에게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야. 아니, 널 보내는 것이 아닌 헤르세인 왕녀 쪽에서 스스로 너와의 인연을 끊어내게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후작의 이런 모습도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케시아 왕녀와의 만남으로 그 날은 한순간에 찾아와 버렸고, 이젠 그 예상을 넘어 후작은 헤르세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싸늘한 눈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은 어려운 존재. 루드비카에겐 후작의 존재는 그러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아닌, 가고 싶지 않은, 떠나간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더욱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 아버지. 어느새 코트를 주워 입고 집무실을 떠나려는 후작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재빨리 후작의 앞을 가로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분에게 가시는 거면 못 가십니다. 죽어도 각하를 그분께 보내지 않을 겁니다.”

“비키 거라.”

“싫습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내가 겁에 질려 못 갈 것 같으냐? 어리석은 것. 헨드릭! 어서 들어오도록!”

루드비카를 강하게 노려보던 후작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집사를 크게 불러들였다. 문이 열리고 헨드릭이 살짝 고개를 숙여 집무실 근처에 대기하고 있자, 후작은 여전히 루드비카를 주시하며 명령을 내렸다.

“헨드릭, 자네가 가서 집안의 병사란 병사들은 모조리 데려오게.”

“…예?”

어째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헨드릭은 잠시 고개를 기울였지만, 후작은 두 번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헨드릭은 눈치껏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헨드릭이 병사들을 불러오고자 나가있기를 5분. 헨드릭의 뒤를 따라 라인하르트 가를 지키는 수 십 명의 병사들이 우르르 밖에서 대기하고 있자, 후작은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 루드비카를 보며 이번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루드비카가 집안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라. 루드비카가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제압해도 좋다. 아니, 숨이 붙을 정도만큼의 강제제압을 나 라인하르트 가주가 명하니, 절대로 루드비카를 이 저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후작각하!!”

후작의 집무실 안으로 수 십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쳐 루드비카를 막아섰다. 그리고 그 틈을 타, 후작이 빠르게 집무실을 빠져나가자 어서 뒤를 쫓고자 루드비카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이 이상 가실 수 없습니다. 루드비카 도련님.”

“…비켜.”

“저희는 후작각하의 명을 받은 몸. 이 이상 나아가신다면 후작각하의 명을 따라 루드비카 도련님을 강제로 제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칠 기세를 보이며 병사들이 무기를 들어 올리자, 루드비카는 비소를 터트리곤 허리춤에 걸려있던 레이피어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면 정말로 죽이겠다는 눈빛을 하며 루드비카는 싸늘히 경고를 내렸다.

“내 앞길을 막는 자 역시, 내 손으로 베어버리겠다. 그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당장 비키는 게 좋을 거다.”

첫 경고이자, 마지막 경고. 그러나 병사들 모두 미동조차 없이 루드비카의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각오를 잘 알아들은 루드비카는 재빠르게 눈을 굴려 아주 작은 빈틈을 발견하곤 빠르게 몸을 움직여 검 집채로 병사들을 타격해 손쉽게 집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발자국 채 나아가지도 못한 채, 루드비카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 막은 또 다른 관문을 노려봐야 했다.

“루드비카. 어딜 가는 거지?”

“비키십시오, 형님.”

“건방지구나. 안 그래도 네가 이러지 않을까 싶어 빨리 온 것이 정답이었어. 아버지께서 내게 단단히 부탁하셨다. 절대로 너를 저택 바깥으로 내보지 말라고. 그러니, 나는 널 절대로 내보낼 생각이 없다. 루드비카. 설령, 네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스르릉 소리를 내며 클로드가 검을 뽑아들어 루드비카를 향해 겨누었다. 그나마 제 목숨이 아까워 경계를 덜한 병사들과는 달리, 클로드는 정말로 루드비카를 못 지나가게 하고자 살짝만 베여도 피가 흐를 진검을 빼어들었다.

결국, 클로드 이기지 못하는 이상,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은 루드비카는 오랫동안 검 집에 넣어두었던 레이피어를 빼내어 마찬가지로 클로드를 향해 겨누었다. 형제와 진검 승부. 이미, 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자 루드비카는 클로드와 많은 대련을 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로, 죽을 각오로 클로드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설령,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위스턴 국왕은 현재 자신의 앞에서 가엾이 눈물을 흘리는 케시아를 보며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같은 왕성에 살고 있음에도 요 몇 달까지 딸의 얼굴을 보기가 지방에 있는 귀족들보다 더 보기가 힘든 것이 어찌 말이 되던가. 분명, 무슨 이유가 있기에 케시아가 궁전에 틀어박혀 황후의 속을 썩이고 있음을 국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단지, 깊은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얼굴로 요 며칠간 케시아는 국왕에게 갖은 애교와 왕녀로서의 위엄을 보이며 국왕의 자잘할 일을 도왔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에 분노를 다스리며 입을 열었다.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케시아. 어서 그 눈물을 그치라는데도!!”

“으흑흑! 아버지! 아니… 폐하!! 저는 더 이상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저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 아비의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단 말이냐! 명령이다! 어서 그 눈물을 그치 거라 케시아!!”

소리 내어 꺼이꺼이 울던 케시아가 서서히 울음소리를 그치며 차츰 진정이 되는지 어깨를 들썩이자, 딸이 진정되길 계속 기다리던 위스턴 국왕은 그럼에도 여전히 눈물을 흘러내리는 딸의 모습이 못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저 가녀린 몸에 쏟아낼 눈물이 어디 있다고 저토록 슬피 우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웠다. 그리고 딸을 저렇게 울린 그 놈을 향한 분노는 국왕을 직접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그리 울린 그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감히 일국의 왕녀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하! 기가 막힐 노릇이고!!”

“폐하….”

쾅 소리를 내며 으드득하고 옥좌를 부서질 듯 붙잡는 국왕의 모습이 보였지만, 케시아에겐 저그 모습이 어떠하든 중요치 않았다. 최대한의 마음을 흔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가엽고 딱한 눈물의 연기로 국왕의 마음을 흔들어 갖고 싶은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그녀의 집착만이 케시아의 모든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당신이 잘 못 한 거야. 날 이렇게 만들고 끝내 아버지를 이용하게끔 만든, 루드비카… 당신의 탓이야.’

잊지 못해서, 그럼에도 그를 향한 마음이 지워지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가기에 케시아는 루드비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기사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얌전히 기다렸고, 그때 동안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코르셋이 허리를 졸라매어 숨을 앗아갈 정도로 케시아는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또 가꾸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그를 위해 가꾸고, 그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를 위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음에도 끝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다.

"말씀은 감사하나 저는 왕녀전하의 호위 기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제 막 기사가 된 몸입니다."

"어, 어울리지 않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그러지 말고 라인하르트 경, 부디 나의 호위기사가 되어주세요. 나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내 고백을 거절한 경이 미웠으나, 그럼에도 내 마음은 아직 경에게 향해 있단 말입니다. 오래 곁에 있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호위기사가──."

"송구하오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왕녀전하를 여인으로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왕녀전하께서 저를 이성으로서 호위기사로 두시길 원하신다면 더더욱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 자신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그의 입에선 케시아가 그토록 원하는 단 한 마디를 들을 수 없었다. 실낱같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는 사람. 그럼에도 그 미련이 케시아를 더욱 집착하게 더더욱 끈질기게 만들었다.

"왜… 대체 왜! 내가 이토록 경을 원하는데! 이토록 내 마음을 경에게 전부 보여주는데 왜!! 나는 경의 곁에 조차 갈 수 없는 건가요?! 대체 왜!!"

"제가 가장 지키고 싶은 분의 상처를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몸과 영혼은 전부 그분의 것이며 설령 제 빈껍데기조차 그 여지를 저는 남겨두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사람. 몸과 영혼을 전부 바칠 정도로 여지조차 남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 그 순간, 케시아의 이성은 뚝 끊어지고 말았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이가 누구인지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불길한 느낌이 케시아를 예상하게 만들었다.

"경이 그토록 지키고 싶은 사람이… 혹, 내 여동생 헤르세인 인가요? 헤르세인 왕녀… 맞나요?"

만약, ‘예’라고 대답을 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분명, 어이없는 웃음과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케시아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예’라고 대답을 한 루드비카의 모습이 아닌, 답은 이미 ‘예’임에도 그것을 굳이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루드비카의 모습 때문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바보마냥 그를 기다리고 있을 동안, 이미 두 사람은 아무도 몰래 기사의 맹세를 끝낸 것이었다. 처음 봤을 땐 그저 우습게 생각하고 반쯤 머릿속에 잊고 있던 헤르세인. 왕비의 사생아이자 아무의 관심도, 하물며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생아 따위인 헤르세인. 분명, 자신보다 우월한 것도 가진 것조차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뭐가 그리 잘났기에 하필, 루드비카를 빼앗아 간 걸까.

왜 하필 루드비카를 제 멋대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용서하지 않아… 날 이렇게 모욕감을 준 헤르세인과 루드비카… 두 사람을 내 손으로 무너트리고 말겠어!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반드시!!’

케시아는 가련히 눈물을 닦아내며 마음을 고쳐먹은 얼굴로 자세를 바꿔, 국왕을 향해 한 번도 굽히지 않던 무릎을 굽혀 허리를 바짝 숙였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릎을 굽히기는커녕 허리조차 바짝 낮추지 않던 케시아가 갑자기 바닥을 기듯이 엎드리는 모습에 국왕은 눈을 크게 뜨고 당장 딸의 행동을 멈추고자 했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일국의 왕녀가 바닥에 머리를 붙이고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케시아!!”

“부디, 이 딸을 가엽게 여기신다면 폐하… 아니 아버지! 라인하르트 둘째 공자를 저의 호위기사로 임명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저의 기사로 꼭 삼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다면 저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그렇게 닦았음에도 바닥이 흥건해질 만큼 뚝뚝 눈물을 흘리며 땅에 이마를 박는 케시아의 모습에 위스턴 국왕은 차마 볼 수 없어, 이마를 감싸며 눈을 감아야 했다.

저택의 병사들을 동원해 루드비카를 막아놨지만, 그래 봤자 어느 정도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집안의 병사들일 뿐. 루드비카는 분명 병사들을 가뿐히 제압하고 저택을 빠져나올 것이 분명했다. 다행이도 클로드가 있어 시간을 끌 수 있다지만, 한정적인 짧은 시간임을 알기에 후작은 서둘러 왕성에 도착해 위스턴 국왕을 알현해야만했다.

심기 불편한 기색이 만연한 위스턴 국왕의 표정이 전부 드러난 이 정적 속에 후작은 찻잔에 따라진 차 한 모금조차 입을 대지 않은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송구합니다, 폐하. 제 못난 아들 녀석으로 인해 케시아 왕녀전하께 무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짐은 나름대로 다른 가문의 자식들보다 내 누구보다 아끼는 후작의 자식이기에 더 높게 평가했거늘, 설마 이런 식으로 날 실망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네.”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뿐인가? 이제 막 기사가 된 평기사 따위가 감히, 내게 충성의 맹세도 없이 제멋대로 헤르세인 왕녀에게 기사의 맹세를 하다니!”

“그것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무릎위에 있던 후작의 두 손은 이미 새하얗게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국왕에게 자식의 욕을 받은 건 처음이나, 그 속에서 은근히 저를 비웃는 국왕의 작은 의도. 그것을 간파해낸 후작은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 겉보기엔 국왕을 충직하게 섬기는 신하와 그런 신하를 총애하는 국왕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신의 가문을 욕보이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설려 국왕일지라도 후작은 언제든 칼을 갈 준비가 되어있었다.

“헤르세인 왕녀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나의 딸 케시아 왕녀라네. 나의 하나뿐인 딸에게 그런 상처를 준 그대의 자식을 내가 가만둬야겠나?”

“폐하께선 어찌 하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설마 후작, 그대 자식의 선처를 나에게 맡기는 것인가?”

“그러 합니다. 제 자식의 잘못이고 응당 제가 해야 할 일이긴 하오나, 감히 일국의 왕녀에게 상처를 준 죄는 제가 감히 나설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루드비카의 일은 폐하께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오만한 눈빛으로 후작을 주시하고 있던 위스턴 국왕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기회를 잘만 이용한다면 라인하르트 가문을 권력의 한 축이자, 다음 대를 이을 왕태자의 큰 힘을 실어주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하려면 위스턴 국왕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제 눈엔 어여쁘게 보이는 케시아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케시아도 라인하르트 가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가?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내기만 한다면 줄곧 생각해왔던 라인하르트 가의 장자와 제1왕녀의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었다. 국왕은 살며시 올라가려던 입 꼬리를 최대한 자제하며 근엄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날의 후작의 공로를 생각해, 엄중히 처벌은 내리지 않겠네. 허나, 케시아 왕녀의 호의를 무시하고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 그 호의를 나 국왕의 명으로 라인하르트 공자는 케시아 왕녀의 호위기사로 임명할 것을 명하니, 호위 기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케시아 왕녀와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기를 바랄 것을 명하겠네.”

“국왕폐하의 큰 하해와 같은 선처에 감읍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후작, 기왕 이렇게 된 거 자네의 후계자에 관해서 개인 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네만 어떠한가?”

결국, 그 구상까지 그림을 그려 이번 기회를 잡으려는 것인지 은근한 속내를 드러내는 국왕의 모습에 후작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바로 세웠다. 어차피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할 일. 그것을 조금 앞당긴 것이라 생각하며 후작은 본격적으로 국왕과의 혼인에 관한 의논을 시작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평상시는 입에도 대지 않던 달달한 쿠키에 손이 간 케시아는 바로 한입 물고는 그 달콤함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그려냈다. 쿠키란 것이 이토록 단맛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몸서리가 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음미하고 싶을 정도로 케시아는 이 상황이 굉장히 흡족했다.

“그래, 폐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

“예, 왕녀전하. 틀림없이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왕성에서 그녀가 듣지 못할 것은 없었다. 물론 평상시에는 정치적인 일들을 굳이 귀담아 들일 필요가 없기에 거금이란 뇌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람으로 매수할 하녀나 시녀들을 그렇게 필요치 않았으나, 이번만큼은 케시아에겐 절실히 필요했다. 전속시녀인 루네즈의 옆에 서서 자신이 들은 말을 본성의 시녀가 전부 고하자, 시녀의 발밑으로 묵직한 주머니가 툭 던져졌다.

“와, 왕녀전하 이건….”

“내게 정보를 준 답례인 사례금이란다. 어차피 국왕폐하께서 따로 시녀를 보내, 그 사실을 내게 전하시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 미리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폐하의 심기가 좋지 않으실 테니 각별히 네 입을 주의해야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무, 물론입니다. 꼭 함구하겠습니다.”

“그래, 되었으니 이만 가보 거라.”

본성의 시녀가 제 품에 사례금을 꽁꽁 숨기며 나가버리자, 근처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루네즈가 케시아의 곁으로 다가가 어느덧 비어진 찻잔에 찻물을 따라내며 누구보다 기쁜 미소를 지어냈다.

“드디어 그분이 전하의 호위기사가 된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닙니까? 경하 드립니다. 왕녀전하.”

“고맙구나, 루네즈.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구나. 폐하께서 그리 결정하긴 하셨지만, 아직 정식으로 고지가 내려진 것은 아니니 말이다.”

루네즈가 가득 담아낸 찻물을 보고서 케시아는 화려한 찻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들이켰다. 아까보다는 차의 온도가 내려갔는지 혀를 델 정도의 뜨거움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적당히 혀를 데우는 이 뜨거움도 썩 나쁘지는 않았다.

“왕성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들은 어찌 되고 있느냐?”

“왕녀전하의 말씀대로 입이 가벼운 시녀들에게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더니 순식간에 왕성 곳곳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거기다 소문들이 각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왕녀전하를 가엾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 역시 소문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없구나.”

단시간에 루드비카와의 일이 소문이 퍼진 건, 전부 케시아가 벌인 일이었다. 루드비카가 기사의 맹세를 헤르세인에게 한 것을 떠나,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조차 없는 헤르세인에게 푹 빠진 것이 케시아는 받아들일 수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속시녀인 루네즈를 이용해 왕성에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에 관한 소문을 퍼트렸다. 또한 자신에 관한 소문은 더더욱 동정받기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내 퍼트린 것은 덤이었다. 그리고 완벽히 맞아떨어진 사람들의 반응. 지나가는 시녀나 하녀, 그리고 병사나 기사들 할 것 없이 케시아를 가엾거나 또는 동정어린 눈으로 봤으며, 반대로 헤르세인에겐 불쾌감과 혐오가 뒤섞인 눈과 입으로 뒷 담화를 멈추지 않았다.

“이보다 더 완벽히 차려진 무대는 더 이상 없겠지. 이제… 루드비카, 그 사람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분명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다. 이제 국왕의 명을 받고 자신의 호위기사가 될 루드비카만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테지만 왜 이토록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지 케시아의 손은 어느새 정신없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왕녀전하?”

루네즈가 조심스레 불렀음에도 케시아는 온통 루드비카와 헤르세인의 관한 생각에 깊이 빠져있었다. 유일하게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루드비카.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생아 따위인 헤르세인이 유일하게 가진 루드비카란 존재. 어울리지도 않은 두 사람의 모습이 케시아의 머릿속을 혼돈으로 뒤섞어, 그 순간 케시아의 머릿속에서 아주 잊히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그때 분명 내 눈이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왕실 도서관에서 헤르세인과 루드비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날… 틀림없이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은 이미 진전되고 있던 거야.’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아무런 접전도 없을 두 사람이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연회. 그때는 왜 헤르세인이 루드비카를 모른 척 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모른 척을 한 이유가 있던 것이었다.

‘루드비카는 물론, 모든 귀족가의 자제들이 모습을 본 순간 느낀 거야. 특히나 그 사람의 곁에 저보다 훨씬 대단한 자들이 몰려있으니, 제 스스로가 하찮게 보였던 거야.’

사생아란 지워낼 수 없는 꼬리표와 타인과 비교할수록 점점 드러나는 격차. 그래서 헤르세인은 자신이 나타났을 때, 루드비카를 모른 척하며 멀리한 것이었다.

“가증스러운 것. 그렇게 제 주제를 알았으면 그대로 모른 척 했었어야지. 감히 사생아 따위가 내 것을 가져가? 가만두지 않아. 철저히 누가 우위이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제 분수를 알고, 제 처지가 어떤지 똑똑히 새겨주겠어.”

자칫 찻잔의 손잡이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악력으로 케시아는 잘게 손을 떨었다. 그녀의 손 떨림에 찻잔에 담겨있던 찻물이 아슬아슬 파도를 치며 경계를 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루네즈는 어서, 주인이 사랑하는 이가 하루라도 빨리 호위기사로 와주길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케시아가 무슨 일을 더 크게 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너를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

“사생아 따위가 감히 고귀한 명문가의 아들을 꾀어낸 악독한 계집이라 하더구나. 너는 천하의 악녀보다 못한 계집. 그리고 케시아 왕녀는 그 계집에게 기사를 빼앗긴 가엾은 왕녀.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자들은 없다. 이것이… 네가 그 사람을 끊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헤르세인.”

툭, 툭 하고 헤르세인의 손등위로 잠깐 스쳐지나갈 여우비가 아닌, 조용히 상처가 퍼져가는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굽혀진 두 무릎. 꼿꼿이 펴져 있는 허리. 그러나 흘러내리는 눈물만큼은 헤르세인조차 참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예.”

“모두가 네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데 멀쩡히 귀를 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예.”

“너로 인해, 네 욕심으로 인해, 라인하르트 공자가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연을 끊어내지 않은 것이냐?”

끝내 헤르세인은 눈을 감아버렸다. 이미 시야는 눈물로 얼룩져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해져 있었지만, 그 눈물을 더 이상 헤르세인은 감당해낼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무표정으로 바라보던 왕비는 작은 한숨을 뱉어내곤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을 말한다 해도 이미 벌어진 일. 이제 이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없던 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늦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그녀가 헤르세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격려? 위로? 설사 이제 와서 해준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던가. 처음부터 어미 노릇을 했다면 모를까, 그나마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생각을 정리할 시간과 자리를 비켜주는 것 뿐. 그것이 전부였다.

“널 위해서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네 스스로가 놓아야할 것이다. 헤르세인.”

새겨들으라는 충고를 끝으로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기괴한 소리. 그리고 혼자만이 남겨진 싸늘한 정적. 그 속에서 헤르세인은 힘없는 다리를 겨우 세워 어떡해서든 버티고 섰지만, 서있는 것이 고작일 만큼 온 몸은 멍투성인 것 마냥 모든 고통이 헤르세인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간신히 의자 등받이를 지지대로 삼아 버티고 서있기를 십 여분.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들만큼 호흡이 불안정이 떨리고 있을 때, 노크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헤르세인 왕녀전하. 라인하르트 후작님께서 만나 뵙길 청하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정하던 호흡이 정지된 것처럼 멈춰버린 헤르세인은 고장 난 인형마냥 삐그덕 거리는 고개를 틀어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문 쪽에 시선을 응시했다. 어째서, 왜 하필 이때, 가장 만나고 싶지 않던 사람이 이곳까지 왔는지 헤르세인은 처음으로 저 문을 열기가 무서웠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라인하르트 가의 가주인, 아슬란 반 클라인 라인하르트 라 합니다.”

절제된 동작으로 인사를 올린 후작의 모습이 보였다. 루드비카의 친부임에도 전혀 루드비카의 모습을 그려낼 수 없는 후작의 모습. 붉은 장미처럼 새빨간 머리가 인상적인 루드비카의 모습과 달리, 잿빛 머리와 잿빛의 눈동자가 마치 겨울 성을 지키고 있는 겨울의 제왕과도 같아 헤르세인은 선뜻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무례임을 알고 있지만 왕녀전하께 긴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일단 앉으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떨림이 말투에서까지 전해졌으나 헤르세인은 침착히 후작을 자리에 안내했다. 후작이 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어쩐지 그의 존재만으로 그나마 서늘했던 주변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한기가 느껴지고 싸늘함이 느껴져 헤르세인은 아주 미세하게 오한을 떨어야 했다.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찻잔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빈 테이블 임에도 후작도 헤르세인도 서로 차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후작이 어떤 말을 할지 점점 불안한 헤르세인과 차분히 눈을 내리깔고 있는 표정 없는 후작의 모습.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품으며 오랫동안 실내에는 정적만이 가라앉고 있었다.

“이런 일로 헤르세인 왕녀전하를 뵐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없었다면 왕녀전하를 뵐 일도 없었겠지요.”

제일 먼저 정적을 깬 건 후작의 목소리였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테이블 만이 전부인 허전한 실내 덕분에 후작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울리면서 서늘함까지 느껴졌으나, 헤르세인은 후작의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를 대충 파악할 수 있었다. 이곳을 오길 원치 않은 것과 왜 하필 루드비카와 연관된 것이 자신이냐는 후작의 책망. 테이블 아래에 감춰져 있던 헤르세인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결국 두 손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옷깃을 꽉 쥐는 것이 전부이듯.

“많고 많은 귀족가의 자제들 중에 왜 하필 제 자식입니까. 왜 하필, 루드비카입니까?”

“....”

“루드비카를 흠모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녀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그 ‘사랑’이란 것을 하시는 겁니까?”

취조를 한다거나 협박 섞인 어투로 후작은 거칠게 묻지 않았다. 감정하나 묻어있지 않은 일정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느릿하면서도 정확하게 물었지만, 그 속에 강압적임이 들어있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랑해선… 안 되는 것입니까? 마음조차 품어선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인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갑갑한 왕성에서 자신의 마음을 유일하게 열어준 사람, 유일하게 열게 해준 사람이 루드비카였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된다면 자신은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후작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헤르세인을 흔들기엔 충분했다.

“그 ‘사랑’이란 것이 언제까지 가리라 생각하십니까? 설마, 평생을 가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왕녀전하께선 상당히 세상물정을 모르시군요. 저는 솔직히 루드비카가 왕녀전하를 온전히 마음에 품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

“루드비카는 제 형인 클로드보단 어느 정도 자유롭게 컸지만 라인하르트 가의 차남으로서 못 배우고 자란 녀석은 아닙니다. 귀족으로 배워야할 덕목과, 예절, 사교, 절제, 등등 특히나 높은 귀족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상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듯 그것을 통달하고 배우는 것이 귀족가의 자제들입니다. 헌데 그런 것들이 간혹 힘에 부쳐 가야할 길이 아닌, 옆길로 세고 말지요.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루드비카도 지금 잠시 길을 잃어 가야할 길을 헤매고 있는 것뿐입니다. 루드비카는 단지 길을 헤매어 잠시 마음이 이끌린 왕녀전하께 친절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썩 같이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전부 후작이 부정하고 그저 하고 싶은 말인걸 알면서도 수 십 개의 날붙이가 가슴을 난도질하듯 자꾸만 후벼 파며 생채기를 그렸다.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자꾸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고통. 헤르세인은 옷깃이 찢어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며 어떡해서든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파르르 떨리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는지, 후작의 무자비한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녀전하께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하지만 루드비카는 장차, 가문을 이을 장자인 클로드를 도울 라인하르트 가의 사람. 루드비카는 왕녀전하께선 루드비카를 품을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날개를 꺾지 말아주십시오.”

“....”

“후작으로서, 루드비카의 아비로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루드비카를 왕녀전하께서 먼저 놓아주십시오. 그 인연을 끊어내 주시고 더 이상 만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왕녀전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후작의 말이 끝난 순간, 무슨 일인지 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왕비의 명령아래 이곳에 있던 시녀들이 누군가를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힘을 이겨낼 수 없었는지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헤르세인의 눈을 크게 흔들었다.

“왕녀전하!”

“...루카.”

이토록 마음이 가장 안심되던 순간은 없을 것이다. 단지 루드비카의 얼굴을 보았을 뿐인데 불안에 떨리던 손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어디서 다쳤는지 그의 뺨에는 붉게 그어진 상처자국이 있었지만, 그 상처자국은 안중에도 없는지 어느새 헤르세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간 루드비카는 한쪽 무릎을 꿇어 잔뜩 걱정이 배인 목소리로 다정히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정말로 괜찮으신 거지요?”

“여긴 왜 온 거야… 오면 안 되잖아….”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전하의 눈에 눈물이 흘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늦었군요.”

헤르세인의 붉어진 눈가를 엄지손가락으로 어루만지던 루드비카는 굽히고 있던 무릎을 세워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겨 이내 보호하듯 숨겨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한해서 다정하던 눈빛은 순식간에 칼날 같은 얼음처럼 변해 후작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왕녀전하께 털끝하나 손대지 마시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너야 말로 무슨 짓이냐, 루드비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 멋대로 이곳을 들어오는 것이냐!”

“더 이상, 왕녀전하를 건들지 마십시오. 이건 경고입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깟 사랑에 눈이 멀어 이젠 아비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이냐?!”

후작까지 자리에서 덩달아 일어나 장식에 불과한 지팡이를 분노로 땅에 내리꽂았지만, 그 모습은 루드비카에겐 위협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로 후작의 목을 노릴 기세로 루드비카는 설사, 패륜아로 낙인찍힐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예, 눈이 멀어 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은 모두 칼을 겨눌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후작각하라 할지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패륜아란 낙인이 찍힐지라도! 왕녀전하를 건드는 그 누구든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꽉 잡는 루드비카의 힘이, 떨림이 헤르세인의 전신으로 느껴졌다. 루드비카의 목소리와 후작의 목소리가 서로 부딪쳐 번개처럼 내리쳤지만, 점점 헤르세인에겐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이명처럼 윙윙 울렸다.

‘그저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줬을 뿐인데, 그저 한 사람의 온기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나에겐 그것조차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는 구나… 난 작은 욕심조차 가질 자격도 없는 거였어.’

빛을 잃은 심연의 눈동자가 분노로 떨고 있는 루드비카의 손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의 손이 피가 안 통할만큼 파르르 떨며 상당히 악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헤르세인은 손목이 아리거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의 분노가 더 이상 터지질 않길 바라며, 진정해주길 바라며 헤르세인은 조심스럽게 루드비카의 손에 제 손을 겹쳤다.

따뜻이 감싸는 그녀의 겹쳐진 손에 루드비카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살짝 틀어 손위로 느껴지는 헤르세인의 온기를 느끼며 분노로 들끓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저 손을 감싸줬을 뿐임에도 그것이 위로가 되어 루드비카는 호흡을 바로하고 다시 후작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돌아가 주십시오. 후작각하. 더 이상 후작각하와 끝나지 않을 입씨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여기서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닌 네가 있어야할 저택에서 해야겠지. 왕녀전하. 저와 제 자식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가기 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부디 제가 왕녀전하께 드린 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팡이를 걸음삼아 후작은 매섭게 몸을 돌려 문이 있는 곳으로 성큼 걸어 나아갔다. 후작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언제 닫혀졌는지도 모를 문이 활짝 열려 후작을 기다렸지만, 완전히 입구에 발을 걸치기 전 후작은 제자리에 멈춰 루드비카를 향해 그리고 헤르세인이 듣기를 원하듯 국왕의 전언을 무심히 전했다.

“아, 깜박 잊을 뻔했구나. 국왕폐하께서 명을 내리셨다. 루드비카 너는 오늘부터 케시아 왕녀전하의 호위기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니, 감히 지엄하신 국왕폐하의 명을 어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더 이상 가문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라마. 아들아.”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것처럼 쿵, 소리를 내며 문은 완전히 닫혀졌다. 하지만 둘만이 남았음에도 그 누가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미 눈동자에서 빛을 잃어 엉망이나 다름없는 헤르세인. 그리고 나직이 입술을 깨물어 고개를 차마 들 수 없는 루드비카. 두 사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다.

“루카….”

“네, 왕녀전하.”

“내가 당신을 놓으면 이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는 거야?”

“!!”

“모두가… 나보고 전부 그렇게 말해. 나만 놓으면 된다고… 나만 놓으면 전부 해결된다고…. 내 어머니란 사람도, 당신의 아버지도… 이 왕성에 있는 모두....”

루드비카는 당장 뒤를 돌아 헤르세인을 살폈다. 뺨 위로 흐르는 가는 눈물줄기와 이제는 생기조차 없어 비쩍 매 마른 바다마냥 빛을 잃은 코발트빛의 눈동자. 점점 표정 없는 인형처럼 되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품에 끌어안았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이별 따윈 상상할 수 없다는 절박한 얼굴로 루드비카는 간절히 고개를 저었다.

“제발 그런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왕녀전하, 아니, 헤세가 저를 그렇게 놓아버리면 저는 이제 누굴 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까? 헤세마저 제 곁을 떠나면 저는─!”

“그럼 나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루드비카의 품에서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빠져나온 헤르세인은 가장 슬프게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쳐냈다. 이 가슴에서 벗어나지 않은 멍울을, 이 고통을 이렇게 새게 두드려 없애고 싶은데, 아무리 쳐내고 또 쳐내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고작 작은 욕심하나 냈다고… 그저 당신을 마음에 품었다고… 당신의 곁에 있는 것조차 나는 안 된다고 하잖아…. 난 그것조차 욕심을 내서도! 탐을 내서도! 가질 수조차 없다고 모두가 그러잖아!! 이젠 너무 힘들어… 너무 여기가 아파서 이대로 온전히 버텨낼 자신이 나는 더 이상 없단 말이야....”

털썩, 제자리에 주저앉아 헤르세인은 끝나지 않은 고통에 가슴을 움켜잡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목이 전부 갈라질 정도로 울부짖으며 자신을 감싸 안으려는 루드비카의 손을 몇 번이고 쳐냈지만, 결국 힘에 부친 헤르세인은 그 품에 다시 안길 수밖에 없었다.

“헤세, 당신과 나 이렇게 단 둘이… 아주 멀리… 도망칠까요? 아니, 우리… 도망쳐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머나먼 땅까지.”

그녀를 위해 기사가 됐지만, 정작 기사가 됐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은 고작해야 기사이기 이전, 그저 가문의 재산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차남이란 위치와 한계. 루드비카는 헤르세인을 품에서 놓지 않으며 굳은 결심을 했다. 도망치기로. 그녀와 단 둘이, 아주 멀리 떠나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평생을 그녀를 위해 살기로.

아라네아 왕비의 궁전에 소속된 시녀의 절반은 어느새 부턴가 헤르세인 왕녀가 거처하는 레인 궁에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들이 레인 궁에서 받은 임무는 오직 하나. 헤르세인 왕녀를 감시하는 것이 전부. 왕비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특별한 건 거의 없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헤르세인 왕녀를 찾아왔는지 보고할 것이며, 헤르세인 왕녀가 궁전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금 감시 하는 것, 또한 헤르세인 왕녀의 일거수일투를 철저히 감시해 보고하는 것이 레인 궁에 들어온 시녀들의 할 일이자 임무였다.

본래도 시녀란 일이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나 다름없지만, 레인 궁에 온 시녀들은 대부분 더 지루하면서도 철저히 통제된 궁전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했다. 그녀들 중 특히나 본래는 귀족 가 출신이나 아버지의 사채로 인해 몰락귀족이 되어버린 피오라는 벌써 1년차 시녀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생이 귀족이었던지라 당연히 아가씨로서 여태까지 대접을 받고 자라온 피오라는 제 스스로 무엇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더불어 아버지의 빚은 물론이고, 사채로 인해 충격을 받아 쓰러진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치료할 약. 또, 아직도 세상물정 모르는 남동생으로 인해 어쩌다보니 집안을 책임지게 된 건 피오라였으며 원치 않은 가장 노릇을 그녀가 해야만 했다.

그 원치 않은 가장 노릇을 한지도 벌써 1년. 제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 빚으로 인한 사채 빚을 틈틈이 갚고 나면 제대로 만질 수 있는 돈은 극히 적은 돈에 불과했다. 더불어 시녀1년차에 불과해 시녀 월급 또한 4, 5년 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라 피오라는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하고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매일같이 한숨만이 나왔다.

“얘, 피오라. 교대시간이야. 가서 점심 먹고 와.”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점심? 그야 늘 먹던 메뉴 그대로지. 별 볼일 없는 견과류랑 맛없는 빵에, 느끼하기만 한 기름덩어리인 고기랑 채소만 가득 있는 수프.”

“그게 다야?”

피오라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자, 피오라와 교대를 하러온 시녀 역시 점심메뉴에 불만이 있는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피오라에게 대꾸했다.

“얘도 참.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먹었다고. 잔말 말고 빨리 가서 먹고오기나 해.”

조금 더 대꾸했다간 짜증을 폭발할지도 모를 동기 시녀의 모습에 피오라는 결국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레인 궁에서 나와 식당이 있는 본성으로 향했다. 그런데 본성으로 향하는 길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기도 한지,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길바닥에 피오라는 결국 머리를 한껏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짜증을 부렸다.

“아 짜증나!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딴 일을 해야 하는 건데! 매일같이 맛도 없는 수프에다 맛도 없는 빵!! 그나마 운 좋게 아라네아 왕비 궁전에 배정 되서 좋아라 했더니, 정작 더 좋은 곳은 왕후 궁전이랑 케시아 왕녀의 궁전이잖아! 이게 뭐냐고 대체!! 아라네아 왕비는 분명 국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다더니! 총애는 무슨!! 얼어 죽을 총애야!!”

결국 제 성에 못 이겨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맹이를 발로 뻥 차버린 피오라는 이렇게 해서라도 짜증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한번 발로 차는 것으로도 풀리지 않는지, 이젠 주변에 있는 돌맹이란 돌맹이는 전부 발로 차기 시작한 피오라는 더 이상 자제가 되지 않는지 더욱 히스테릭을 부리며 점심도 잊은 채, 돌맹이를 아예 공처럼 굴리고 차고 있을 때였다.

“지금 거기서 뭐하는 짓이냐!?”

“뭐하는 짓이긴! 지금 짜증나 죽겠으니까 말 걸지 말… 헉! 시, 시녀장님!”

감히 짜증을 풀고 있는 자신에게 누가 말을 걸었는지 어디한번 얼굴이라도 보자는 심산으로 피오라는 몸을 틀어 상대방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피오라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에 서둘러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숙여야만 했다. 지금 피오라의 눈앞에 나타난 이는 하녀나 시녀들에게조차 악독하기로 소문난 시녀장 이었다.

“시, 시녀장님….”

“웬 소란이 들리나 해서 와봤더니, 넌 아라네아 왕비전하 궁전의 시녀가 아니더냐? 어찌 시녀란 자가 그런 배우지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시녀에 대한 기본은 물론이고, 적어도 그게 안 되면 몸가짐조차 바로하지 못할망정 그런 추태를 부리다니!”

“죄, 죄송합니다! 시녀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더 이상 숙일 허리가 남아나지 않거늘, 그럼에도 피오라는 거의 몸을 반 정도 접을 만큼 허리를 숙여 시녀장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 모습을 아니꼬운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던 시녀장은 그 비굴한 모습이 나름 마음에 들었는지 코웃음을 치며, 콧대 높은 아량을 베풀었다.

“한번은 눈감아 주겠다만 다음에 또 이런 추태를 보였을 시, 그땐 시녀직을 관둬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대로 시녀장은 제 갈길 가기위해 피오라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대뜸 한걸음 걷다말고 시녀장은 뒤를 돌아 살짝 주변을 살핀 뒤,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오라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 네 주변에 입이 무거운 자가 몇이나 되느냐.”

“…예? 어찌 그것을 제게….”

그것을 왜 자신한테 묻는지 허리를 굽힌 상태로 고개를 기울이던 피오라는 그 순간, 빠르게 머리가 돌아갔다. 예전부터 남다른 감이나, 눈치가 피오라의 주 무기라 할 정도로 타인의 행동이나 말속에 있는 의미를 피오라는 빠르게 파악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살짝 주변의 공기나 타인의 행동을 본다면 눈치 백단이라 말 할 정도로 피오라는 그것을 무기로 하여금 가문이 몰락하기 전, 사교계에선 그 눈치로 운이 좋게 왕따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시녀장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곤조곤 들린 말투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느낌에서 피오라는 시녀장이 지금 말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또, 어쩌면 그것을 잘만 이용한다면 이건 하늘이 돕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피오라는 굽히고 있던 허리를 세워 시녀장이 있는 쪽으로 몸을 완전히 틀었다. 그리고 거의 10년차나 될법한 각이 떨어진 시녀마냥 부드럽게 허리를 굽혀 피오라는 당당히 자신을 거래로 삼았다.

“동기들 중에 입이 무거운 자는 많으나, 제가 그 동기들 중에서도 유독 입이 무겁다고 정평이 나있을 만큼, 제게 비밀을 알려준 동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는 그 비밀들을 한 번도 발설할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임을 알고 있고, 입이 무거워야 만이 비로소 비밀이 되는 것이니까요.”

“…말은 잘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다른 시녀들보다 네 입이 무겁다 그리 당당히 자랑하는 것이냐?”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시녀장님.”

당당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 해야 할지. 어느 쪽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시녀 장은 그 뻔뻔함이 은근히 마음에 들어, 자신과 눈을 마주친 피오라에게 검지 손가락으로 살며시 까딱거렸다.

“좋다. 날, 따라 오거라. 네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판별은 ‘그 분’께서 하실 테니.”

시녀장이 먼저 앞장서자 피오라는 서둘러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이제 막 시녀가 되었을 때, 피오라는 시녀장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은 거의 귀에 닳도록 들은 적이 있었다. 시녀란 직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녀장이란 위치에 있음에도 불과하고 국왕과 하물며 왕후도 아닌, 케시아 왕녀를 극진히 따른다는 소문. 어디까지나 소문으로 퍼진 이야기이기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문이 퍼짐에도 피오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국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는 가장 예쁜 친딸일지라도 왕녀는 결국 혼인으로 인한 출가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왕실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평생 왕실에 있으며 권력을 휘두를 국왕도 왕후도 아닌, 케시아 왕녀를 극진히 따른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피오라로선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벌써 1년이 흘렀음에도 그 소문은 계속 현재진행인 상태이지만, 자세히 생각해본다면 시녀장이 그토록 왕녀를 따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면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저어, 시녀장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케시아 왕녀와 시녀장의 관계가 얼마나 깊기에 그런 소문이 퍼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피오라는 그것을 깊게 팔 생각도 하물며 그 소문의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피오라의 오직 돈이 우선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지에 대한 고민과 이 지긋지긋한 시녀 일을 때려 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혹시 그 입이 무거운 일을 제가 맡게 된다면 보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 네가 만에 하나 맡게 된다면 네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겠지. 뭐… 전적으로 그 보수는 그분의 마음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건 왜? 돈이 궁하느냐?”

“아, 아닙니다. 그저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는다 하시기에 궁금하여….”

시녀장은 코웃음만 칠 뿐, 그 뒤로 묵묵히 앞장서서 걸으며 어느덧 거대한 궁전의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라네아 왕비의 궁전과 비교될 만큼 거대하며 왕후의 궁전 다음으로 가장 큰 궁전이기도 한, 슈아 궁전. 그리고 국왕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총애하고 아낀다는 제1왕녀인 케시아 왕녀의 궁전이기도 했다.

“세, 세상에….”

아라네아 왕비의 궁전인 아비카 궁전도 한 멋을 하긴 하지만, 슈아 궁전만큼이나 시선을 끄는 화려함은 없었다. 피오라는 난생처음 가까이서 보는 슈아 궁전의 모습에 입이 벌어져 어떻게 다무는지 조차 잊어버린 상태였다. 피오가 좀 더 감상을 하기 전에 피오라를 흘끔 쳐다보던 시녀장은 무심한 목소리로 어서 서두르란 눈치를 주었다.

“지금부터 조심히 따라 오거라. 멀리서 네 모습이 보일지라도, 완전히 너라는 것을 보여선 절대로 안 될 테니.”

“예?”

“조심히 주변을 잘 살피고 따라오라는 말이다.”

“예….”

시녀장의 말대로 피오라는 나름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라 궁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홀을 지나 붉은 융단이 깔린 수 십 개의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길 얼마나 지났을까. 무수한 객실들을 지나 가장 거대하고 누가 봐도 이 궁전의 주인이 있을 붉은 문 앞에 멈춰선 피오라는 자신이 왔음을 알리는 시녀장의 목소리에 일단 긴장이 되어 침을 꿀꺽 삼켰다.

“왕녀전하, 분부하신대로 시녀 한명을 데려왔습니다.”

시녀장의 말이 끝나자 안쪽에서 들어오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시녀장이 바로 피오라에게 눈짓을 주며 어서 들어갈 것을 턱짓으로 명령을 내렸다.

“어서 들어가거라. 왕녀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최대한 왕녀전하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은 삼가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시녀장님.”

시녀장이 손수 문을 열어주며 피오라가 안으로 들어서길 기다리자, 문이 활짝 열린 또 다른 내부의 모습을 보던 피오라는 최대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움직였다. 분명 개인 침실임이 틀림없을 텐데 어찌나 넓던지 한참을 가서야 케시아 왕녀가 앉아 있는 테이블 근처에 도착한 피오라는 서둘러 왕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녀인 피오라입니다.”

“그래, 일단 한 가지 물으마. 너는 어느 궁전의 소속이지?”

“아라네아 왕비전하의 아비카 궁전의 소속입니다. 왕녀전하.”

“그래? 왕비전하 궁전의 소속이라… 허면 너는 어떠하냐?”

왕비에게 소속된 시녀임을 밝혔음에도 다짜고짜 알 수 없는 말을 질문하는 왕녀의 모습에 잠시 고개를 기울이던 피오라는 이내 그 뜻을 알아채고 바로 고개를 숙여 즉각 대답했다.

“제 입을 물으시는 거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호라, 그리 네 입을 자신하는 것이냐? 그럼, 만에 하나 이 일이 들켜 네 손톱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네 입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

“예?”

손톱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긴다니? 설마 이 일이 목숨과 연관된 일이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피오라는 침을 다시금 삼키며 극도의 긴장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즉각 대답하지 않은 피오라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케시아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냐? 그리 당당히 말해놓곤 정작 네 목숨이 아까워 지킬 자신이 없다는 것이냐?”

눈에 띄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케시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못마땅한 얼굴로 루네즈에게 지시하려던 순간, 피오라는 당장 제자리에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렸다. 지금의 상황이 굴욕적이기도 했지만, 몸이 머리가 직감을 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난다면 자신은 평생 그 궁핍한 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그리고 쥐꼬리만 한 시녀 월급을 받으며 시집조차 가지 못한 채, 평생을 노처녀로 살아야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피오라를 다급하게 만들었다.

“보, 보수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보수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건방지구나! 감히 일개 시녀 따위가 내 앞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운운하는 것이냐?!”

“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까지 들었다. 그래도 왕녀의 명령인데 그냥은 못할망정 돈을 받고 명령을 받겠다니. 그러나 돈에 눈이 멀었을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 돈이 아니면 살아나가기 힘든 척박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채 빚으로 인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던가? 피오라는 오늘따라 조아린 머리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유지되는 침묵에 피오라는 이 고개를 들어야하는지 고민이던 찰나, 케시아의 목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고개를 들 거라.”

고개를 들라는 단순한 명령에 피오라는 고개를 들어 케시아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우아한 첫인상과 달리, 언뜻 요염해 보이는 붉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피오라는 등에서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껴야 했다.

“너는 분명 보수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했을 터. 좋다. 네게 선금 30골드를 주마.”

“3, 30골드나 말입니까?”

“왜? 모자르냐?”

피오라가 서둘러 고개를 젓자, 케시아는 바로 준비되어 있는 30골드가 담긴 주머니를 그 앞에 던지며 나머지 돈에 대해 대답했다.

“네가 내 말만 잘 따른다면 여기서 추가로 50골드를 더 주도록 하마.”

“5, 50골드….”

“단, 네가 내게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에 따라 50골드가 너에게 갈 수도, 혹은 먼저 선금으로 준 30골드를 다시 몰수할 수도 있음이다. 자, 어찌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왕녀전하!”

돈에 눈이 아득히 먼, 시녀의 초점 없는 그 모습에 케시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피오라가 해야 할 일에 관해 케시아는 뱀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설명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라인하르트 가의 루드비카 공자에 관한 것과 헤르세인 왕녀,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들린다면 너는 조용히 그것을 내게 보고하면 되는 것뿐이다.”

“그, 그것뿐입니까?”

입이 무거운 심각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오히려 입이 무겁기 보단 귀가 밝아야하는 일인 것 같아 피오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만 케시아는 그것을 무시하며 그저 피오라가 얌전히 명령을 듣길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 아주 쉬운 일이 아니더냐. 그저 귀만 밝으면 될 뿐이고,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 그저 내게만 보고하면 되는 그런 일… 그러니, 귀를 잘 기울이고 어느 것 하나 놓쳐선 안 될 것이다. 나머지 50골드를 받고 싶다면 말이지.”

악마가 보이지 않는 50골드를 유혹하듯 피오라의 시선은 다시 눈앞에 있는 30골드 주머니 쪽에 시선이 갔다. 케시아의 말처럼 그저 입만 꾹 다물며 귀만 열어 듣는 족족 보고만 하는 간단한 일. 이건 안 할 수가 없었다. 피오라는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여전히 30골드 쪽에 시선을 준채로 케시아에게 고개를 숙였다.

“반드시 왕녀전하께서 흡족하실 내용으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헤르세인은 이틀 동안 루드비카가 그날 남긴 쪽지만을 쭉 손에서 놓지 않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로 오늘, 동이 트기 전의 늦은 새벽 시간에 비밀의 집에서 기다리겠다는 글씨와 반드시 함께 떠나자는 가장 슬픈 애수의 말. 쪽지를 직접 받은 후로 헤르세인은 머리가 맑아질 정도로 잠이 오지 않았다. 원래도 잠이란 건 없었지만 이틀 동안 밤을 새울 만큼 헤르세인은 손에 들린 쪽지만을 수백 번을 읽으며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루카.”

함께 도망가자던 루드비카의 결심.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될지라도 둘이서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자던 루드비카의 간절함.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젠 루드비카 뿐만이 아닌, 헤르세인에겐 현실로 또 소망과 욕심으로 다가왔다.

제 자신은 애초에 가진 것이 없어 그저 몸만 가면 끝이지만, 루드비카는 달랐다. 비록 라인하르트 가의 차남일지 몰라도 그에겐 물려받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 하지만 도망간다는 것은 그것을 전부 버리겠다는 포기선언과도 같았다. 자신을 위해, 오직 자신을 바라보며 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함께 도망가자던 루드비카. 그 달콤한 제안은 헤르세인에겐 악마가 유혹하는 것과도 같았다.

“처음은 이겨낼 수 있겠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세상이 녹록치 않은 건 나도 알고 있어….”

도망? 죄인도 아닌 죄인 같은 신세가 되어 멀리 멀리 도망쳐 루드비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도망자 신세일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슬럼가에서 살기를 십 수 년. 슬럼가보다 더한 곳은 없을 테지만,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빈곤한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의 세상이었다.

물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은 어디든지 존재했고,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가려면 돈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 자신이라면 몰라도 그것을 과연 루드비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평생을 귀족으로 살던 그가, 일반 평민처럼 손에 물을 묻히고 또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며 어쩌면 기사보다 더 힘들지 모를 일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 평민들 사이에서 그는 잘 감화 될 수 있을까?

어쩌면 괜한 걱정이나, 혼자만의 심각하고도 쓸데없는 생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들면서도 가장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 건, 그의 마음이 그 힘듦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귀족이 되고자 떠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었다.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둔 채, 다시 귀족이 되고자 떠나는 루드비카의 뒷모습. 그리고 그런 루드비카를 잡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헤르세인은 이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 것 같아, 고개를 세게 저으며 힘겹게 숨을 내쉬다, 팔목에 매달려있는 팔찌를 볼 수 있었다. 지금도 보물처럼 제 몸에서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가죽 끈 팔찌. 팔찌의 가운데에 달려있는 작은 장식을 만지작거리던 헤르세인은 팔목을 감싸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노을이 지나고 유난히 밝은 초승달이 뜬 밤. 헤르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언제나 루드비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 지금도 머릿속에선 루드비카와 도망치라는 속삭임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이제 루드비카가 없는 삶은 살아갈 수 없었다. 헤르세인은 서둘러 바깥에 괜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여, 짐을 꾸리기 위해 조심히 발을 움직였다.

짐이라고 해봤자 그나마 갈아입을만한 단순한 원피스와 루드비카가 준, 어머니의 유품인 루비 귀걸이가 전부.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헤르세인은 최대한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져가고자 가구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침실을 최대한 뒤져보았다. 책상이나 침대, 그나마 있는 서랍과 왕비가 연회 때 입으라 보낸 드레스 두벌이 전부인 옷장까지.

결국 자잘한 돈이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아 헤르세인은 고민 끝에 옷장 앞으로 다시 다가갔다.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기에 옷장 문을 열어 드레스를 쭉 훑은 후, 드레스에 장식되어 있는 보석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을 쯤 이었다.

똑똑똑, 소리를 내며 이 밤중에 노크가 들리더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 헤르세인을 찾아왔다.

"왕녀전하, 아라네아 왕비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왕비전하가 왜….”

이 늦은 시간에 전혀 발걸음을 하지 않던 왕비가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진 못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 침대 위의 짐을 뒤늦게 깨달은 헤르세인은 서둘러 짐 꾸러미를 품에 안고서 이것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주변을 살피던 끝에 재빨리 옷장에 숨겨 문을 단단히 닫아버렸다. 워낙 드레스도 두벌 밖에 없고 옷장이라 하기 에도 애매한 텅텅 빈 옷장이라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있었지만, 헤르세인은 최대한평소 같은 얼굴로 왕비를 맞이하고자 했다.

왕비를 들이라는 허락도 없이, 역시 이곳의 감시자답게 문이 열리면서 왕비가 안으로 들어섰다. 다행이도 왕비가 바로 문을 열기 전에 짐을 숨길 수 있어 한시름 덜 수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옷장이 계속 신경 쓰여 헤르세인은 최대한 왕비를 돌려보내고자 얼른 왕비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 내가 못 올 곳을 온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찌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놀랄 정도로 요점을 집어낸 왕비의 목소리에 헤르세인은 순간 심장이 철렁거렸다. 하지만 전혀 당황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헤르세인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른다? 허면, 이 궁전에서 온전히 너와 나, 단 둘이여야만이 네가 그 입을 솔직히 불겠구나.”

“…예?”

그때, 무슨 생각인지 왕비는 갑자기 뒤를 돌아 문으로 향하더니 이 궁전에 있는 모든 시녀들을 단숨에 집합시켰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그녀의 명령은 헤르세인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다.

“지금부터 너희 시녀들은 전부 이 궁전의 바깥에서, 내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진 대기하고 있거라. 명령이다.”

잠시 동안 왕비의 알 수 없는 명령에 시녀들은 웅성거렸지만, 그 누구도 아닌 왕비의 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녀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시녀들이 모두 왕성 바깥으로 나가고 궁전은 어느새 텅텅 비어진 상황이 되자, 이제 남은 사람이라곤 헤르세인과 왕비, 두 사람 뿐이었다. 사람 흔적조차 보이지 않은 텅 빈 복도를 한참이나 보고 있던 왕비는 서둘러 침실의 문을 닫고는 곧장 걸음을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옷장을 완전히 지나치는 것이 아닌, 바로 옷장의 문 앞에 멈춰선 왕비는 두 짝의 문을 활짝 열어 표정하나 변함없이 눈동자를 그대로 내리깐 채로 드레스 밑에 숨겨진 작은 짐 꾸러미를 굳이 언급하며 헤르세인에게 물었다.

“이 짐은 무엇이냐. 도망이라도 칠 생각이더냐?”

“와, 왕비전하!”

“인연을 끊어내라 했거늘, 결국 넌, 라인하르트 공자와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구나.”

왕비의 짙은 한숨이 귓가에 유독 크게 들렸다면 착각일까? 마치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없이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있던 왕비의 어깨는 착각으로 보일정도로 어쩐지 작게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왕비는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짐 꾸러미를 들어 헤르세인의 곁으로 다가가 짐을 굳이 그 품에 직접 안겨주었다.

“왕비… 전하?”

처음에는 그 짐을 전부 풀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했지만, 풀기는커녕 짐이 묶여있는 상태로 헤르세인에게 건넨 왕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값비싼 반지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와 머리 장신구까지 모두 떼어 헤르세인에게 넘겨주며 대답했다.

“가져가거라. 전부. 그것들을 팔아 돈으로 보태 쓰도록 해라.”

“왜… 갑자기 왜 이런 것들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대체 왜….”

왕비는 오색찬란한 큰 보석들이 박혀있는 장신구들을 전부 내밀었지만, 헤르세인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왕비의 배품. 그리고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이상하지 않는 거라면 이것은 호의였다. 이 왕성에 들어와 단 한 번도 왕비에게서 느껴본 적 없던 호의, 그리고 배품. 또 언제나 자신을 그저 눈에 가시처럼 쓸모없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하던 사생아란 이유로 멀리하던 싸늘히 행동하던 지난날의 왕비의 모습들. 그 모습이 익숙하기에 지금 왕비의 행동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짐을 빼앗아 자신의 앞에 던지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취조하는 것이 왕비의 본래 모습이 아니던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헷갈리게 할 정도로 왕비의 표정에는 여전히 서늘했고, 푸른 눈동자는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웠다. 혹시, 거짓된 연기로 자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닐까 싶어 헤르세인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폈지만 그것이 왕비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는지 왕비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렸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믿기지 않은 것이냐?”

만약, 자신이 처음 이 왕성에 와 그녀가 처음부터 호의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지금의 행동을 쉽게 믿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은 쓸모없는 아이라 버렸다던 왕비의 싸늘한 말을 들은 순간, 비수는 이미 심장에 박혀버렸고 그 날의 기억은 죽어도 잊을 수 없었다. 헤르세인은 한참에서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 안 믿깁니다. 왕비전하의 이런 행동…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비전하께서 이런 친절을 베푸실 만큼 저를 진정 아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널 단 한 번도 빈센트만큼이나 아끼지 않았지. 아니,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 그 이유는 누구보다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테고. 한 가지… 네게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혹시,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느냐?”

“…아버지? 제 친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비의 작은 끄덕임에 헤르세인은 작게 벌려진 입을 끝내 다물었다.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창 궁금하던 어린 시절. 하지만 궁핍한 슬럼가의 생활과 점점 처지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만이 가득해, 그때 당시 헤르세인에겐 독기와 돈만이 전부였었다. 그러다 왕성에 들어와 부모님이란 존재에 더욱 반감을 심어준 왕비의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환상과 생각은 전혀 안 갖게 되었지만,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왕비조차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치부라 말하는 것이 자신이란 존재이거늘, 하물며 아버지란 사람조차 설사 살아있을지언정 사생아인 자신을 과연 반길 수 있을까? 그 모습에 상처 받을 지언정, 차라리 평생을 만나지 않는 것이 백번 나을지도 몰랐다. 얼굴도, 이름조차 모를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왜 갑자기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꺼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 저에게는 아버지란 사람은 처음부터 없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굳이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미 왕비전하께서 제게 주신 상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더 이상 제 존재를 더 부정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헤르세인의 솔직한 대답이 들렸음에도 왕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히 헤르세인의 코발트빛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 그것이 네 대답이구나. 알겠다.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 장신구들은 받거라. 널 위해서가 아닌, 혹시나 모를 때에 따라 중요한 도피 자금으로 쓰도록 해라. 그리고 도망친 이상, 뒤도 돌지 말고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도 말고, 아무도 찾지 않는 머나먼 땅에 정착해, 그곳에서 살거라. 왜 갑자기 이런 배품과 호의를 보이냐고 내게 물었느냐? 그저 내 작은 변심이라 생각 하거라. 그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 의미 따윈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떠나, 여기도 나도 빈센트도 전부 잊고 그렇게 살거라. 헤르세인.”

“왕비전하….”

그 순간, 창밖이 번쩍이더니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천둥을 치기 시작했다. 천둥이 으르릉 소리를 내며 울자, 그 뒤를 이어 아직까지 차가운 겨울의 계절임에도 함박눈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며 창문의 유리를 흠뻑 적셔갔다. 어째서 이런 날에 비가 뒤늦게 쏟아지는지 하늘이 무심했지만, 헤르세인은 자꾸만 자신을 도망가라 떠미는 왕비의 행동에 선뜻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서 가거라. 어서! 어서 가라는 데도!!”

표정 없던 왕비가 한껏 얼굴을 일그러트리며 헤르세인에게 외쳤다. 어서 가라고. 당장 이곳을 떠나 제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가장 싸늘한 눈으로 다시 한 번 헤르세인에게 외쳤다.

“어서 가지 못할까!!”

한걸음, 두 걸음. 헤르세인은 갑작스레 변한 왕비의 모습에 서서히 뒷걸음을 치다, 결국 완전히 몸을 돌려 문을 열고서 아무도 없는 복도를 하염없이 뛰어갔다. 비밀의 집에 가기 위해선 비밀통로로 가기 위한 제일 꼭대기 층의 서재로 가야 했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헤르세인은 왕비의 싸늘하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분명,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싸늘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 보던 왕비의 눈빛. 그런데 왜, 그 눈빛 속에 자신을 향한 슬픔이 묻어있던 것일까?

‘착각일거야. 분명… 착각일거야. 어쩌다보니 날 잠깐 동정한 것 뿐 일지도 모르잖아.’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으나 헤르세인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비밀의 집에 도착하는 것 뿐. 오직 루드비카만을 생각하며 헤르세인은 숨이 가빠도 두 다리를 멈추지 않았다.

헤르세인이 떠나간 비어진 싸늘한 침실. 왕비는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다가, 끝내 궁전으로 돌아가고자 조금은 느려진 걸음으로 침실에서 나와 복도를 홀로 걷기 시작했다. 왕비의 모습이 거의 복도에서 사라질 쯤,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최대한 몸을 숨기며 몰래 침실 안의 이야기를 엿들은 피오라는 경악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상에 헤르세인 왕녀가 도망치다니… 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빠, 빨리 케시아 왕녀전하께 알려야 해! 내 50골드!”

요 이틀 동안 단단히 헤르세인의 주변을 철저히 살피던 피오라는 이미 50골드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 일을 잘만 전한다면 50골드는 거의 거저먹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기다 왕성에서도 이보다 더한 스캔들을 없을 거라 생각했다. 설마, 그 사생아 왕녀가 그것도 그 유명한 귀족가의 공자와 오밤중에 도망을 친다니. 예상컨대 이것은 분명 케시아 왕녀가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을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나름 주변을 살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케시아 왕녀의 궁전에 도착한 피오라는 침실의 문 앞을 지키고 서있는 전속시녀 루네즈를 보며 다급히 전했다.

“루, 루네즈님! 어서 케시아 왕녀전하를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오밤중에 네가 무슨 일이지?”

“빨리 케시아 왕녀전하를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헤르세인 왕녀에 관한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라고?”

영 못미더운 얼굴로 피오라를 쳐다보고 있자, 안 그래도 급박한 상황이건만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은 루네즈의 모습에 피오라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루네즈의 곁으로 다가가 작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지금 헤르세인 왕녀가 도망쳤습니다!”

“뭐?!”

피오라에게서 작게 귓속말을 들은 루네즈는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다시 표정을 되찾아 피오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막 잠들었을 케시아 왕녀를 배려하는 동시에 조금은 서두른 손짓으로 문을 노크했다.

“왕녀전하. 루네즈입니다. 피오라가 왕녀전하께 급히 전할 정보가 있다하여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잠들어 깨어나기 어렵다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피오라의 소식만 오길 기다린 그녀였는지 피오라가 왔다는 소식에 침실 안에서 어서 들이라는 목소리에 루네즈는 서둘러 피오라와 함께 침실 안으로 들어섰다.